

생명샘 (living Stream)

Korean and English



Book 5 (2001)

White Young Jeon

Cambodia Reformed Faith Institutes

머릿말

목차

1.

곤고한 날에 생각하라 (전7:1-14) 2001. 2.4

형통주의, 성공주의로 복음이 희석되어가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과 사도의 가르침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전도자도 곤고가 형통보다 더 나은 것으로 평가하면서 우리로, 곤고한 날을 경멸하지 말고 존귀하게 여겨 그날에 숨겨놓은 복을 찾으라고 권한다. 명예가 기쁨보다(1), 초상집이 잔치집 보다(2.4) 슬픔이 웃음보다(3), 끝이 시작보다 더 중요하다(8) 고 한다. 오늘이 옛날보다 더 낮고 (10) 지혜가 돈보다 더 낮다(11-1) 한다. 그래서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한다. 이유인즉, 바로 그 곤고한 때가 지혜를 배우고, 진리를 배우고, 경외를 배우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자기 분수를 알고 거기에 맞는 인생을 살는 지혜를 배우게 하시려고 형통과 곤고를 병행케 하심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곤고한 날, 고통의 날이 진정한 형통의 길을 배우는 가치 있는 순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어째서 곤고한 날은 가치가 있는가?

첫째, 곤고한 날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타락한 인생은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려하지 않는다. 무신론 사상으로 사는 인생에게 "나쁜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 12절에 지혜와 지식의 피난처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다. 이 경외가 고난의 장소에서 얻어지는 축복이란 것이다.

정말 인생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부터 소망이 시작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가장 가까이 오셨다. 자기주의에 치우쳐 우상을 만드는 인생에게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길을 보여주기에 귀한 것이다.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고,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오직 새역사는 하나님을 알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곤고한 날에 자기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곤고한 (나쁜 때)때에 자기의 비참함을 깨닫는다. 이것이 제대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노련한 스승으로서 전도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여러 비교를 통해서 그 가치를 주장한다. 1) 명예가 기름보다 낫다 한다. 예서는 이 일에 실패함으로 망령된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란 명예를 세상 것과 바꾸지 말아야한다. 2) 초상집이 잔치집보다 낫다. 그리스도인이 낮은데 마음을 둘때 거기서 지혜를 얻는다.

가나의 혼인잔치보다 나사로의 초상집에서 주님은 더,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을 성장시키셨고 그리스도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드러내셨다. 상징으로 보여주신 것이 실제로 드러난 것이다.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 자체임을 드러내시는 영적 체험은 초상집에서 일어났다. 3) 옛날보다 현재가 더 낫다는 진리도 곤고할 때 더 잘 배운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연락을 너무 좋아한다. 성경과는 정 반대의 길로 나가다. 다윗의 춤추는 축제(cerebration)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알고 예배(worship)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문화 사역이란 과제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지만, 이것은 초상집에서 지혜를 배운 사람들의 분뿜이지. "영지"가 없는 사람은 도리어 타협하고, 교회에 이상한 물결을 가져와 순수한 복음을 희석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날에 그리스도의 빛 아래 자기 실상을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자.

세째, 곤고한 날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아는 자는 곤고한 날에 기도를 배운다. 물에 빠진 자가 지푸라기도 붙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은 기도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 고난은 그 사람에게 고마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곤고한 날에 기도의 골방으로 가야한다. 이 고난은 우리를 깨우고, 변덕 많은 우리의 욕구에 정함이 있게 한다. (Calvin) 다윗의 시편을 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본다. 69편에 나온 다윗은 큰 어려움을 당하 자로 나온다. 자기 영혼에 몰려오는 시련이 있었다. 고독과 비탄에 쌓여있었다. 거기서 그는 무엇을 했는가? 그는 부르짖음으로 기도를 배웠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웠다. 찬미하기로 결심하는 믿음으로서 다윗은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정말 곤고한 날은 저주가 아니다. 그것은 축복의 샘을 발견하는 위대한 기회인 것이다.

전도자를 통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자, 곤고한 날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의 비참함을 바라보고 적극적인 기도자가 되자. 이것이 형통자의 길이다.

Consider in trouble days (Ecclesiastes 7:1-14) 2001. 2.4

Today, when the gospel is being diluted by prosperism and successivism,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teachings of Jesus and the apostles. The evangelist also evaluates hardship as better than prosperity and encourages us not to despise difficult days, but to honor them and find the blessings hidden in them. It is said that honor is more important than oil (1), a memorial service is more important than party chips (2.4), sadness is more important than laughter (3), and the end is more important than the beginning (8). It is said that today is

lower than in the past (10) and that wisdom is better than money (11-1). So, on difficult days, I tell you to think. The reason is that those difficult times are an opportunity to learn wisdom, the truth, and fear. It is God's will to allow us to experience prosperity and hardship in parallel so that we can learn the wisdom to know our own purpose and live a life suited to it. That is why difficult days and days of pain can become valuable moments to learn the path to true prosperity. Why are hard days worth it?

First, because you can think of God on difficult days.

The nature of fallen life does not want to believe in the existence of God. For those living with atheist ideology, “when bad things happen” becomes an important opportunity to think about God. In verse 12, what is the refuge of wisdom and knowledge? It is the fear of God. This reverence is a blessing obtained in a place of suffering. Life truly begins with hope when you think of God. So God came closest to revealing Himself. For a life that is focused on self-centeredness and creates idols, suffering is precious because it shows the way to know God.

When you think you are going through suffering, keep meditating on God and fill your heart with God. This is because new history only begins when we know God.

second. This is because you can know yourself right away on difficult days.

Also, we realize our misery in difficult (bad) times. This is what works.

Therefore, as a seasoned teacher, the evangelist is moved by the Holy Spirit and asserts its value through various comparisons. 1) They say fame is better than oil. Esau failed to do this and became a ruined person. As a Christian,

you should not exchange your honor for something new. 2) A house of mourning is better than a house of banquets. When a Christian sets his heart on low things, he gains wisdom there.

The Lord accomplished a greater work at the house of mourning for Lazarus than at the wedding feast in Cana. He grew the faith of Mary and Martha and revealed that Christ Himself is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What was shown as a symbol was revealed as reality. The spiritual experience of revealing that it is life itself that saves the dead occurred in the house of mourners. 3) The truth that the present is better than the past is learned better when times are difficult. The times we live in today are very fond of communication. Take the opposite path from the Bible. David's dancing celebration is important, but knowing the Lord and worshiping Him is more important. The task of cultural ministry lies with Christians, but this is the responsibility of those who have learned wisdom from the Book of Sorrows. Those who do not have “gnosis” instead compromise and bring strange waves into the church, diluting the pure gospel. So let us use the day of suffering as an opportunity to see our reality under the light of Christ.

Third, because you can pray on difficult days.

Those who know God and themselves learn to pray in difficult days. Just as a drowning person tries to grasp at straws, the person prays. In that sense, the suffering is something that the person is thankful for. So we must go to the closet of prayer on difficult days. This suffering wakes us up and makes us determined in our fickle desires. (Calvin) When we look at the Psalms of David, we see this fact. David, who appears in section 69, appears as a person who faces great hardships. There was a trial coming upon his soul. He was

filled with loneliness and grief. What did he do there? He learned to pray and what faith is by crying out. By believing in his decision to praise, David received amazing grace. A really bad day is not a curse. It is a great opportunity to discover the fountain of blessings.

Let us listen carefully to the words of our Lord through the evangelist. On difficult days, let us think of God first, look at our own misery, and become active prayers. This is the path of the prosperous.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눅1:57-66) 2001.1212 수

넷물이 모여 강과 바다를 이루듯이 엘리사벳의 불임, 사가라의 불신앙, 세례요한의 주의 손아래서의 성장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조화있게 이루심을 본문은 말해줍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 들뜨기 쉬운 때, 하나님의 위대 한 손이 각자의 형편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기이한 역 사하심을 보고 놀랍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셨나요? 첫째, 공홀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은 큰 공홀을 베푸시는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57-58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공홀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 거워하더라고 했습니다. 이웃과 친족들의 평가이지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엘리사벳 은 큰 공홀(호의)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사가라와는 달리 그는 천사의 전한 메시지 를 그대로 믿어 하나님의 크신 공홀을 체험했습니다. 60절에 문중이 모여 사가라라고 이름을 지으려할 때 요한이라고 한 것이나 마리아의 방문을 받고 즉각 "내 주의 모친" 으로 알아 본 것은 개별적인 계시를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43) 또 마리아를 축원한 것을 보면 믿음의 여인임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그는 기도의 여인이었기에 수태불 능한 여인인데도 하나님의 크신 공홀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홀은 기도하는 그릇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고후1:10-11절에 바울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말할 때, 고린도 교인 에게 기도로 위로가 찾아온다는 것을 알았기에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강권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기도의 은사로 이루려는 바울의 의도는 기도를 통해서만 크신

중 홀이 성령을 통해 체험되는 길을 보였습니다. 사형선고를 당하는 환경, 살 소망이 끊어진 자리 등으로 표현된 어려운 핍박은 정말 그에게 진퇴양단이었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자기를 의뢰하는 것을 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리에 나가게 하는 것이 기도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공황을 맞보기 원한다면 주님만을 의뢰하는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징계를 통해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가랴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치료하시는 분이셨습니다. 64절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의 이름을 사가랴가 아닌 요한이라(His name is John) 쓰자 즉시, 혀가 풀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가랴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징계를 통하여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산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구속을 예언하는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징계는 우리를 아프게 하나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징계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버리운 자입니다. 징계는 우리를 자녀답게 하며 징계가 있을 때 진정한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의 손길로 연단 받음을 기뻐하며 그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세째, 개인 신앙 성장과정에 능력있게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가랴의 찬송 소문이 이스라엘에 퍼질 때 듣는 사람마다 두려워했고 세례요한의 성 잠과정에서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였다"고 했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66)고 했습니다. "손"과 "손가락"은 능력을 뜻합니다.(행13:11) 지금도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 알맞게 나타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하여 자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사랑하심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능력에
사로잡혀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God works all things together for good (Luke 1:57-66) 2001.1212 Wed

Just as streams come together to form rivers and seas, the text tells us that all the events that occurred in Elizabeth's barrenness, Zechariah's unbelief, and John the Baptist's growth under the hand of the Lord harmonized with the birth of Christ. At a time when it is easy to get excited and lose track of the true meaning of Christmas, when we think about how God's great hand appears according to each person's circumstances, we are amazed to see God's wonderful work. How did the Lord appear in the text? First, He appeared as a God who gives mercy. To Elizabeth, God appeared as someone who showed great mercy. Verses 57-58 say that when the time came for Elizabeth to give birth and she gave birth to her son, her neighbors and relatives rejoiced with her when they heard that the Lord had shown great mercy to her. It is the evaluation of neighbors and relatives, but it is also the evaluation of God. Elizabeth was a woman who received great mercy (favor). Unlike Zacharias, he believed the angel's message and experienced God's great mercy. In verse 60, when the family gathered together to name Zacharias, he called him John, and when he was visited by Mary, he immediately recognized her as "the mother of my Lord." It is clear that he received an individual revelation. (43) Also, looking at the blessings he gave to Mary, It is clear that she is a woman of faith. Above all, because she was a woman of prayer, she received God's great mercy even though she was infertile. This is because God's mercy comes to those who pray. In 2 Corinthians 1:10-11, when Paul spoke of God's

great comfort in suffering, he urged the Corinthians to help through prayer because he knew that comfort would come through prayer. And Paul's intention to accomplish all things through the gift of prayer showed that only through prayer could God's great mercy be experienced through the Holy Spirit. The difficult persecution expressed as an environment where he was sentenced to death and a place where his hope for life was lost was truly a dilemma for him. Our job is to pray. The goal of prayer is to stop relying on yourself and move to a place of trusting only in God. If you want to experience this kind of mercy, please go to a place where you trust only in the Lord. Second, God appeared as a God who heals through discipline. The God who appeared to Zacharias was a healer through discipline. In verse 64, God's response was to write His name is John, not Zacharias, and immediately his tongue was loose and he praised God. God appeared to Zacharias and helped him learn obedience through discipline and become a living witness of Christ. He played the role of a prophet, prophesying redemption whil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Discipline hurts us, but it strengthens us. Discipline is evidence of becoming a child of God. If there is no discipline, he is an illegitimate child and a reprobate. Discipline makes us children, and when there is discipline, we can sing true praise. We must rejoice and enjoy being refined by the hand of the Lord. Third, He appeared as God who works powerfully in the process of personal faith growth. When the news of Zacharias' hymn spread throughout Israel, everyone who heard it was afraid, and John the Baptist said in his sleep, "The hand of the Lord was with me." "All who heard these words took them to heart, saying, 'What will happen to this child?' For the hand of the Lord is with him." (66) "Hand" and "finger" mean power. (Acts 13:11) Even now, God, who appears and works appropriately according to each

person's circumstances, brings all things together to accomplish His work. Let us live as those who spread the salvation of Christ, captivated by the power of praising God for His mercy and love.

마리아의 찬양 (눅1:39-56) 2001.12.5 수

마리아를 맞은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하여 아이가 기뻐 뛰노는 것을 느끼며 (41) 그를 가리켜 "내 주(메시아)의 모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 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42)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시리라"(45) 고 했습니다. 마리아 역시 48절에서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특히, 4656절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양에서 우리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구원이 구약의 계시보다 더 폭 넓게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마리아의 찬양은 어떤 것인가요? 첫째, 그것은 영혼에서 흘러나온 찬양입니다. 46-50절에 보면, 마리아가 자기 영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이라 한 것을 보면 한나의 찬양과 같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 니이다(삼상2:1)기도응답을 받은 한나는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노래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바라보고, 노래했듯이 마리아 역시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10)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구원은 걸날림의 구원이 아니라 근원적인 구원이란 사실의 본을 보인 것입니다. 그가 무조건 마음으로 믿었기에 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영혼 깊은데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의 찬양은 일대변혁이 일어난 새로운 영혼에서 나온 찬양인 것입니다. 오늘날 외식주의로 나가는 구원운동이 얼마나 많은가요? 이것은 거짓된 복음이며, 일시적인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보다 사회 제도개혁에 관심을 쏟거나 심리요법의 영혼 치료나, 이상한 황홀경으로 이끈 영성운동이나 인간 중심적, 현세 지향적 구원은 모두 다 성경적 구원이 아닙니다. 오직 영혼구원을 중심한 복음이 참 구원입니다.(벧전1:9) 그러므로 영혼에서 흘러나온 마리아의 찬양을 우리도 불러야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것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는 찬양 받을 대상이 불분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존경하고 격려하는 차원을 넘어선 박수갈채를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보내고 있는 시대입니다. 환영보다 비난의 화살을 쏘아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낮은 심정으로 드리는 다윗의 영혼의 감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노래하는 마리아의 찬양을 배워야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자를 낮추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합니다. 세째, 그것은 옛 언약을 성취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54 55절에 보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는 말 씀에서 우리는 그 종, 이스라엘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조상에게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으로 구약의 모든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히1:1-2)

여러 모 양과 여러 부분으로 예언하던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그리스도 가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지금 마리아는 내다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Praise of Mary (Luke 1:39-56) 2001.12.5 Wed

Elizabeth, who welcomed Mary, wa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felt her child jumping for joy and playing. (41) She called him “the mother of my Lord (the Messiah).” She then “called with a loud voice, saying, ‘Blessed are you among women, and blessed is the child of your womb!’” (42) “Blessed is the woman who believed, for the Lord will surely fulfill His word to her” (45) And she did. Mary also praised God with confidence in her verse 48, “Behold, from henceforth all ages will call me blessed.” In particular, in Mary's praise in verse 46-56, we can see that the salvation achieved by Christ, the Son of God who will save His people from sin, is spoken more broadly than the Old Testament revelation. What is Mary's praise when she sees this? First, it is praise that flows from the soul. In verses 46-50, Mary praises her God from her soul. “My soul praises the Lord, my heart rejoices in God my Savior...” This is the same as Hannah's praise. “My heart rejoices in the LORD; my horn is exalted in the LORD; my mouth is opened wide against my enemies. Mary did not sing for the sake of it, but for the salvation of the kingdom of God, which exalts the anointed of Jehovah. Just as she sang, Mary also sings such a song. (10) The salvation of the people of the kingdom of God is not a superficial salvation. Rather, he is singing from the depths of his soul the fact that he received this grace because he believed in it unconditionally. It is a praise that comes from a new soul that has undergone a great transformation. How many salvation movements are out there today that are false gospels and

focus on reforming social systems rather than saving souls, or are spiritual movements that lead to strange ecstasies? Not all world-centered or world-oriented salvation is biblical salvation, but only the gospel that focuses on soul salvation is true salvation. (1 Peter 1:9) Therefore, secondly, we must sing Mary's praise that flows from our souls. It is a praise to God. We are living in an age where it is unclear who should be praised, and even though applause is given more to people than to God. We need to have the joy of David's soul, which is not afraid and gives before God with a humble heart. That is why we must learn the praise of Mary, who sings of salvation that comes only from God. Third, like Mary who praises the grace of God, we must praise only the God of salvation with a fearful heart. In verses 54 and 55, it is a praise for the faithful God who fulfilled the old covenant. In the words, "He will help and have mercy and remember, just as He promised to our fathers, to Abraham and to his descendants forever," we see the hand of God remembering His servant, Israel. It speaks of a faithful God who fulfills exactly what he prophesied to his ancestors. This means that all the Old Testament covenants were fulfilled through the incarnation of Christ (Hebrews 1:1-2). What was prophesied in many ways and in many parts was fulfilled. Mary is now looking ahead and praising that this covenant has been fulfilled with the coming of Christ.

순종의 첫 걸음 (눅1:26-38) 2001.11.28

사가랴와 달리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했습니다. 구약의 한나처럼 조용한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며 사모한 경건한 여인이었 습니다. 목수와 정혼한 것을 보면 그렇게 대단한 지위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리라"는 소식은 정말 또 다른 시련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주님의 분부를 주저없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이루는데 쓰임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의 순종 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반대하고 따지고 이유가 많은 불신앙적인 태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고 바로 이 순종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는 우리의 구원이 왜 순종을 필요로 하는지를 생각하고자합니다. 첫째, 우리의 구원의 목표가 임마누엘이기에 순종이 필요합니다. 26-30절에 엘리사벳이 수태한지 6개월이 되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만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 할지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잉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의아해하는 마리아에게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심"으로 되는 일이기에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마리아에게 용기를 주는 말이지만 사실 구원의 목표가 바로 임마누엘이란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은 죄 사함과 영생 얻음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 임마누엘이 목적입니다. 이것은 이미 창3:15절의 원시복음에서 구체적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라는 말씀에는 참 구원은 하나님이 친히 주권적 으로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것으로서 마귀와 적대감을 갖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려고 지금 마리아의 몸을 빌려 오시는 구체적인 성취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갈4:4)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외에도 순종이란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데 그 뜻이며 배경임을 우리는 구약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에노스(4:26) 에녹(5:22), 아브라함과
 요셉은 모두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순종으로 이루었습니다. 마침내
 신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봅니다.(요15:5)
 순종이야말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이기 때문에 순종이
 필요합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고
 그분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32-33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왕권을
 가지신 분이요 야곱 집의 왕 노릇하시는 분 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 오셨고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고
 다스리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 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순종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세째, 우리의 구원이 순종으로 시작하여 순종으로 마쳐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 구원이 바로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보입니다. 35-38절에 보 면 마리아가 그 큰 일을 이루신 것이 성령의
 임재와 말씀의 능력으로 이뤄졌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둘이 모두
 순종이란 통로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순종은 성령의 수레와 같습니다.
 마리아가 순종하니까 주님의 성령이 엄청난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순종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자신이 순종함으로서 주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수동으로 때로는 능동으로 나타나지만 성령이 이런 역할을 주도하신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를 통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능력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The first step of obedience (Luke 1:26-38) 2001.11.28

Unlike Zacharias, Mary listened to Gabriel and asked for the words of her Lord to be fulfilled. Like Hannah in the Old Testament, she was a quiet, pious woman who waited and longed for the Messiah. She was not a person of great status, seeing as she was betrothed to a carpenter. So, when she heard that she would “give birth to the Son of God,” she had to prepare for another ordeal. Despite this, Mary obeyed the Lord’s command without hesitation. These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ose whom she uses to bring about the salvation of her own people. I don't know how precious his obedience is. An unbelieving attitude that opposes the Word and has many arguments and reasons cannot accomplish God's work, and it is accomplished through this very obedience. Today we want to consider why our salvation requires obedience. First, obedience is necessary because the goal of our salvation is Emmanuel. In verses 26-30, when Elizabeth was six months pregnant, the angel Gabriel met Mary and announced the news of her conception of the Son of God, saying, “Peace, you who have received her grace!” She told the puzzled Mary not to be afraid because “the Lord is with you.” Although these words give Mary courage, they are actually proof that the goal of her salvation is Emmanuel. The purpose of our salvation is not the forgiveness of sins, eternal life, and the status of becoming children of God, but the purpose of Emmanuel. This has already been specifically prophesied in the proto-Gospel in Genesis 3:15. The

words, "I will make you enemies of the woman's descendants..." clearly teach that true salvation is something that God Himself sovereignly initiates and accomplishes, thus creating enmity with the devil and becoming one with God. The specific fulfillment of Christ, the woman's descendant, now borrowing Mary's body to bruise the head of her serpent appears in today's text. (Galatians 4:4) How amazing is this? In addition, we can clearly see through Old Testament events that obedience is the vessel and background for enjoying the grace of Immanuel. Enos (4:26), Enoch (5:22), Abraham, and Joseph all achieved their walk with God through obedience. Finally, in the New Testament, we see salvation achieved in Christ (John 15:5). Obedience is the only way to enjoy the grace of Immanuel. Second, since salvation comes only through Jesus Christ, obedience is necessary. The revelation to Mary sends Christ Jesus and focuses her attention on Him. Verses 32-33 say that Christ is the one who holds the kingship of David and that he reigns as king of the house of Jacob. Jesus truly came as the descendant of Abraham and David, and as the one who established and ruled the Messianic kingdom. Therefore, since our salvation is achieved only through Christ, obedience to Him is absolutely necessary. Third, because our salvation begins and ends with obedience. Today's word shows that our salvation is achieved through obedience. Verses 35-38 make it clear that Mary accomplished this great work through the presence of her Holy Spirit and the power of her word. Both of these appeared through the channel of obedience. Obedience is like the chariot of the Holy Spirit. Because Mary obeyed, the Holy Spirit of the Lord accomplished great things. It is God's grace that he obeyed, but the Lord worked because he himself obeyed. Sometimes it appears passively, sometimes actively, but the Holy Spirit takes the lead in this role. I pray that

you will live a powerful life enjoying the grace of Immanuel through Christ,
which is given to those who are obedient.

무조건 믿는 신앙 (눅1:18-25) 2001.11.21 수

신앙에는 알고 믿는 것과 믿고 아는 것, 두 흐름이 있습니다. 그 중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백부장과 같이 무조건 믿는 신앙입니다.(마8:18) 그는 자기 하인의 병을 위하여 주님에게 간구하기를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고 함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씀 한마디면 그대로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일이 없다고 칭찬하신 것이 바로 무조건 믿는 신앙입니다. 그 외에도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신 후, 진정한 음식이 주 난 자신임을 증거하실 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줄 믿고 알았삽니다"고 함으로서 무조건 믿는 것이 우선이고 알게 되는 것이 그 다음 순서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조건 믿는 신앙"이란 무엇을 믿는 것입 첫째, 하나님을 무조건 믿어야 합니다. 무조건 믿어야 하는 대상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무조건 믿어야 합니다. 20절 에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랴가 전한 계시를 무조건 그대로 믿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함이어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라 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믿고 실제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외식된 신앙은 우리의 마음 상태와 깊은 관련을 갖습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불의로 채워져 있으면 따지는 것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참 믿음의 마음은 무조건 믿음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를 무조건 믿음의 대상으로 믿지 않는 것은 매우 섭섭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심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히11:6) 그래서 주님은
 순간적으로 이 믿음에서 탈락될 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고 질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도 사가랴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찬송은 하는데 찬송하지 않으며 봉사는 하는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봉사를 하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목적인 때가
 없지 않습니다. 오래 기도한 후 기막힌 응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하면서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자면 고난을 통해 연단된 믿음을 가져야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삼
 위일체 하나님을 무조건적 믿어야합니다. 그럴 때 그를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어야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적 믿음의 대상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14에는 예수님을 말씀이라 했는데 이 것은 성경과 관련을
 갖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화(성경)되
 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갖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32절에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하노니"라고
 함으로 하나님과 말씀을 동등한 위치에 두었던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사가랴에게 징계가 따라옴은 말씀을 무조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시대의 남은 백성들은 무조건적인 말씀의 신앙이 없었기에
 애굽에 내려갔고 거기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망했습니다.(렘44:) 성경은
 읽어놓고 믿어야하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무조건적으로 믿어야합니다. 세째, 하나님의 능력을 무조건

믿어야 합니다. 불신앙은 징계를 가져오지만 믿음은 축복과 능력을 가져옵니다. 사가랴와 달리 엘리사벳은 무조건 믿음으로 수치를 가리우고 복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24-25, 45)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그의 능력을 무조건 믿음으로 서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Unconditional faith (Luke 1:18-25) Wednesday, November 21, 2001

There are two streams of faith: knowing and believing and believing and knowing. Among them, what the Lord wants is unconditional faith like the centurion. (Matthew 8:18) He prayed to the Lord for his servant's illness, saying, "Just say the word, and my servant will be healed," even if he cannot see it. I believed that if I just said one word, it would happen. He praised us by saying that he had never encountered faith like this. This is faith that we believe in unconditionally. In addition, after feeding the 5,000 with five barley loaves and two fish, when Jesus testified that the true food was Himself, Peter asked, "Now that we have the word of eternal life, to whom shall we go?" By saying, "I believed and knew that you are the Holy One of God," he showed that believing unconditionally comes first and knowing comes next. What does "unconditional faith" mean? First, you must believe in God unconditionally. The person who must be trusted unconditionally is God more than anything else. We must unconditionally believe in the Trinity of God, Father, Son, and Holy Spirit, as recorded in the Bible. In verse 20, the angel Gabriel wanted to believe unconditionally the revelation given by Zacharias. "Because you do not believe my word, but in due time my word will come to pass." There are times when we believe in God theoretically and not as a

practical God. You must not say “Lord, Lord” with only your lips. This hypocritical faith is deeply related to the state of our hearts. If your heart is proud and filled with injustice, you will have many arguments. However, the heart of true faith begins with unconditional faith. It is very disappointing to say that you believe in God but not actually believe in Him as the object of your faith unconditionally. This is because God does not delight in doubt. (Hebrews 11:6) So, when the Lord momentarily falls away from this faith, He reprimands them by saying, “Why did you doubt, you of little faith?” Like Zacharias, how many moments do we have when we have a form of godliness but do not have the power of godliness? There are times when we pray but do not pray, we sing hymns but do not praise, and we serve but do not serve in the true sense, and the purpose is to express ourselves. Even though he received an amazing answer after praying for a long time, Zechariah could not believe it, saying, “How can this happen?”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always stay awake and pray. To do this, we must have faith that has been refined through suffering. We must unconditionally believe in the Trinity God spoken of in the Bible. That's when you can get to know him deeply. Second, he must unconditionally believe the word of God. Believing in God means that the Word of God is the object of unconditional faith. In John 1:14, Jesus is called the Word, which is a word related to the Bible. Just as Jesus was incarnated, Jesus became the Word (Bible). Therefore, the Bible has the authority of God. Paul put God and the Word on an equal footing when he said in Acts 20:32, “I entrust you to the Lord and to the word of his grace.” In verse 20, the reason Zacharias was disciplined was because he did not unconditionally believe the Word. The remaining people of Jeremiah's time did not have unconditional faith in the Word, so they went down to Egypt,

where they were punished by God and perished. (Jeremiah 44:) The Bible is an object of faith that must be turned aside and believed. Since this is God's promise, we must believe it unconditionally. Third, we must unconditionally believe in God's power. Unbelief brings punishment, but faith brings blessing and power. Unlike Zacharias, Elizabeth covered her shame with unconditional faith and became a blessed woman. (24-25, 45) I pray that you experience amazing power by unconditionally believing in God, His Word, and His power.

사가라에게 나타난 계시 (눅1:5-17) 2001.11.14 수

사가라의 가정으로 시작되는 누가복음의 첫 사건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가요? 우리는 "주를 위한 백성을 예비하는 사명 (17)을 받은 한 경건한 가정의 사가라의 모습을 봅니다. 말라기 예언이 끝나, 이래, 400년 영적, 암흑기가 지난 후, 혜성처럼 나타난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세례요한입니다. 그는 메시아의 추앙을 받을 정도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일했지만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인자의 오실 길을 준비한 길잡이에 불과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 땅에 찾아온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일하셨나요? 첫째, 한 경건한 가정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5-7절에는 사가라 가정의 프로필을 언급합니다. 다음 세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 그는 헤롯왕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폭군이 활동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한 경건한 가정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2) 경건한 부부였습니다.(6-7) 아론 계열에 속한 사람으로서 본래부터 하나님의 계시에 성실한 가정 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했고 "주의 계명과 율례에 흠이 없는 자"로 정의했습니다. 3) 그러나 경건한 가정일지라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7절) 마치 구약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같은 의인들의 삶에 일어난 문제와 같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가 약해진 증거가 아니고 도리어 새 역사를 행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고난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준비되었음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절실한 필요는 무엇인가요?

지혜로운 통치자나 용사나 전략가인가요? 아니면 뛰어난 경영가인가요?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경건한 가정을 찾으십니다. 주님 재림 직전, 악한 자는 더욱 악해지지만 경건한 자는 더욱 더 경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들을 통해 부흥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이 마음놓고 쓰시는 경건한 가정이 되십시오 둘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경건한 가정의 문제는 기도의 능력을 만드는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와 같습니다. 사가랴 가정에는 오랫동안 성령의 비존과 꿈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들을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때를 위 하여 그들에게 이런 고질적인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였고 이 기도 의 모태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잉태된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너의 간구 함이 들린지라..."고 했습니다. 계속적인 간구의 제목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위해 기도도 했지만 그들 자신들의 문제를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응답되었다는 전갈입니다. 한나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대한 계시는 기도하는 분위기를 통해서 임하십니다. 제사장은 기도를 상징하 는 분향을 드리고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10) 이렇게 하나님은 이름만 경 건을 갖기 원치 않습니다. 경건하다면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순종하는 실제적인 일이 있어야하고, 기도하는 열심이 하늘을 찌를 듯이 넘쳐흘러야 합니다. 세째, 사가랴에게는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이런 영적 분위기 속에 나타난 천사 의 소식은 요한 이라는 아들을 낳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는 것이 목적이 아니 었습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신약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세례요한 출생 자체가 은혜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임이고(요1:18), 그의 사역 목적이
아버가 자식에게 자식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화목의 일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화목사역을 암시했으며, 그의 사역방법이 성령충만으로 된
것처럼 그리스도 사역 역시 성령으로만 이루어질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가랴가 받은 계시는 세례요한에 관한 계시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계시였던 것입니다. 감사의 달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안에서 쓰임받는 경건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Revelation to Zacharias (Luke 1:5-17) 2001.11.14 Wed

How does the first incident in the Gospel of Luke, which begins with
Zechariah's family, testify of Christ? We see the image of Zechariah, a godly
family member who received the mission to "prepare a people for the Lord"
(17). After the prophecy of Malachi ended and 400 years of spiritual darkness
had passed, there was a person who appeared like a comet. John the Baptist
worked with the spirit and power of Elijah to the point where he was revered
as the Messiah, but he was not the Christ to come to the world; he was merely
a guide who prepared the way for the coming of the Son of Man. It was the
"voice of one crying in the wilderness." How did God work to introduce
Christ? First, He worked through a godly family. Verses 5-7 mention the
profile of Zechariah's family. It makes the following three facts clear: 1) He
was a priest of the Abijah class during the reign of King Herod, and even
while the tyrant was active, God worked through a godly family. (6-7) They
were originally from the line of Aaron. They were a family that was faithful to

God's revelation, so Luke called them "righteous before God" and defined them as "those who are blameless in the commandments and statutes of the Lord." 3) But even in godly families, there were problems. It was a problem of not being able to have children (verse 7). It was like a problem that occurred in the lives of righteous people like Abraham and Isaac in the Old Testament. This was not evidence that the degree of God's love had weakened, but rather it was suffering with God's will to carry out new work. I hope that you will accept your current suffering with faith, knowing that God's great grace, which I do not know, has been prepared for you. What is the pressing need of our time today? Are you a wise ruler, warrior or strategist? Or are you a great manager? Of course it is necessary, but more than anything, he is looking for a godly family. Just before the Second Coming of the Lord, the wicked will become more wicked, but the godly will become more pious. He will achieve prosperity through them. Become a godly family that the Lord uses freely. Second, He worked through people who prayed. The problems of a godly home have a strange power to create the power of prayer. It's like a power plant that creates electricity. For a long time, the visions and dreams of the Holy Spirit occupied the hearts of Zachariah's family. I am asking for a son. God allowed them such chronic suffering for such a time as this. God made us pray for a long time, and in the womb of this prayer, God's will to accomplish the work of redemption was conceived. In verse 13, it says, "Your prayers have been heard..." This means that they had a topic for their continued prayers. They prayed for the people, but they also prayed for their own problems. The message is that this has been answered. When people prayed like Hannah, the important revelation of Christ came through the atmosphere of prayer and the people prayed outside. (10) In this way, God

does not want you to have piety only in name. If you are pious, you must have practical work of reading, studying, meditating, memorizing, and reciting the Word, and your zeal in prayer must overflow as if it were sky-high. Third, the revelation of Christ came to Zacharias. The message of the angel that appeared in this spiritual atmosphere was that he would give birth to a son, but the purpose of the New Testament was not to give birth to a son. It was to show the “revelation of Christ.” Just as the birth of John the Baptist itself was a grace, it showed the work of Christ accomplished by the grace of God (John 1:18), and the purpose of his ministry was for fathers to children and children to fathers. It implied Christ's work of reconciliation as if it were a work of reconciliation, and showed that Christ's work would also be accomplished only through the Holy Spirit, just as His work method wa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It was a revelation. I pray that you will become a godly family who is used by the Lord as we wait for the Lord's return during this month of thanksgiving.

인자복음의 서론 (눅1:1-4)

에스겔 강해를 21장으로 잠시 끝내고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강해하고자 합니다. 평소 예수님의 생애를 차례로 생각함으로 그 풍성한 은혜를 접하고 싶은 마음이 늘 남아있던 차에 그 영적 부담을 오늘로서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서론은 그 문체가, 70인 역(구약히브리어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과 같이 고대문체로 되어있어 상당한 식견을 가진 저자가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의사출신으로서 바울의 전도여행에 동행하여 활동하다가 훗날, 누가복음에 연속하여 사도행전을 쓴 누가였습니다. 더욱이 누가복음을 인자복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복음서가 인간 예수님에 대하여 자세히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나 과부의 기도비유나 탕자비유는 모두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면을 자세히 서술하였기 때문에 우리로 친밀감을 느끼게 하며 우리의 삶의 본을 보게하며 더 나아가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인자복음은 어떤 내용이며, 왜 기록되었습니까? 첫째, 인자복음은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란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도 되고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도 되는데, 누가복음을 대할 때 우리는 계시로 받아야 합니다.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승천하기까지의 공생애에 일어난 사건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히1:1-3)로서 마지막 계시입니다. 그리스도의 33년 생애가운데 무수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를 통해 나타내시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기록자들이 많았다고 했는데 그

중 하나가 누가였습니다. 그를 통해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함으로서 교회의 초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그림자가 실제로 나타난 것을 누가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복음을 대할 때 우리가 처함 시대가 바로 은혜시대임을 알고 대해야 합니다. 이 말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물댄 동산같은 예레미야서의 예언을 우리는 그리스도안에서의 완성된 에덴을 맛보고 있으며 광야가 변하여 샘물이 되리라는 약속을 우리는 그리스도안에서 그 은혜의 맛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1:1-2절에 천사에게 준 계시를 요한이 받아 기록한 것처럼 바울의 조력자로서 성령의 지혜로 관찰하고 살핀 다음,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누가복음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드려야 합니다. (딤후3:16)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받아 쓴 계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책을 대할 때마다 계시라는 것을 알고 어린 아이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풍성한 생명을 접하기 바랍니다. 둘째, 인자복음은 믿음을 견고케 하려고 쓰여졌습니다. 인자복음은 순서대로 기록되었습니다. 마태 복음은 하나님나라의 왕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면 마가복음은 섬기는 종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복음이라면 누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사람되심을 강조하는 복음입니다. 특히 이것은 역사적 순서를 따라 기록함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가 풍성히 나타났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더욱이 인자복음은 믿음에 확신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3-4) 먼저 한 개인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 하나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데오빌로 각하의 믿음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공동체의 믿음을 견고케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확신을 얻고 이 시대에 바른 지혜를 배우고 그리스도의 무수한 사건을 통해 여러분의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 생명인가를 발견함으로서 복된 자리에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Introduction to the Gospel of the Son of Man (Luke 1:1-4)

After briefly concluding the exegesis of Ezekiel with Chapter 21, I would like to expound the Gospel of Luke from today. As I always wanted to experience the abundant grace by thinking about the life of Jesus, I was able to relieve that spiritual burden today. The introduction to the Gospel of Luke is written in an ancient writing style similar to the Septuagint (the Old Testament Hebrew Bible translated into Greek), so it is believed to have been written by an author with considerable knowledge. He was a former doctor who accompanied Paul on his missionary journey and later wrote the Acts of the Apostles as a continuation of the Gospel of Luke. Furthermore, the reason why the Gospel of Luke is called the Gospel of the Son of Man is because it tells in detail about the human Jesus. For example, the parable of the good Samaritan, the widow's prayer, and the parable of the prodigal son all describe the human side of Christ in detail, making us feel close to them, allowing us to see examples of our lives, and further providing us with wisdom to solve problems. It is giving. What is the Gospel of the Son of Man and why was it written? First, the Gospel of the Son of Man is the revelation of Christ. The revelation of Christ can be a revelation about Christ or a revelation received directly from Christ, and when dealing with the Gospel of Luke, we must

receive it as a revelation. In verse 1, “What does it mean to be fulfilled among us? This refers to the events that occurred in Christ’s public life from his birth to his ascension to heaven. This is the fulfillment of Old Testament prophecy (Hebrews 1:1-3) and the final revelation. Christ In verse 2, it is said that God was pleased to reveal His salvation through countless events during His 33-year life. There were many writers who were witnesses and servants of the Word. One of them was Luke. By recording the revelation of Christ through him, Luke shows us that the shadow of the Old Testament has become reality. We must understand and understand that this is the Age of Grace. We are experiencing the prophecy of the book of Jeremiah, which was like a watered garden for the Israelites who returned from Babylon. We are tasting the completed Eden in Christ, and the promise that the wilderness will be transformed into a spring of water in Christ. So, we are enjoying the taste of that grace, just as John received and recorded the revelation given to the angel in Revelation 1:1-2, as Paul’s helper, we observed and examined it with the wisdom of the Holy Spirit and then wrote it under the inspiration of the Holy Spirit. When dealing with the Gospel of Luke, you must accept it as the word of God (2 Tim. 3:16). In that sense, the Gospel of Luke is a revelation written by Christ himself. Every time you read this book, you must know that it is a revelation. Second, the Gospel of the Son of Man was written in order to strengthen faith, while the Gospel of Mark testifies to Christ as the king of the kingdom of God. It is the gospel of Christ, and while the Gospel of John is a gospel that emphasizes Christ as the Son of God, the Gospel of Luke is a gospel that especially emphasizes how God’s revelation was revealed in a historical order. This shows it well. Furthermore, the Gospel of the Son of Man is intended to give confidence in faith. (3-4) First, one purpose is to

establish one's faith. In other words, it was said that it was to build up the faith of His Excellency Theophilus. At the same time, the purpose of this is to strengthen the faith of the community. I pray that you will gain confidence, learn the correct wisdom of this age, and discover how rich your salvation is in life through the countless events of Christ, and go on to a blessed place.

칼의 노래(검가)(겔21:8-32) 2001.10.31 수

본문은 바벨론을 통해 유다와 암몬 족속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검가(칼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검가라 하면, 일찍이 라멕이 저지른 저를 벌하 시는 하나님의 의를 노래한 것이 창세기 4:23-24절에 나옵니다. 아담의 6대손, 라멜 에게서 욱축치는 자의 조상, 수금과 수부는 자의 조상,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조상이 나왔지만, 회개치 않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중한 벌이 따랐습니다. 같은 맥락을 가진 본문도 칼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칼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의를 노래한것입니 우리들은 예기치 않은 전쟁이 확산되는 때에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기를 바라보며 미국과 한국과 세계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합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딤후2:1-2) 이 "칼의 노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의만이 영원히 세워집니다. "최고의 예술을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음악인들의 표어대로 하나님은 시를 통해서 자신의 계시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소재가 보통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 그리스도의 영광 과 영원함" 같은 것인데, 여기서는 검(Sword)을 소재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전쟁을 예찬함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의를 예찬한 것입니다. 9절에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마광되었도다"고 했고, 14-15절에도 "중상케 하는 칼, 그 칼이 번 개갈고 살육을 위하여 번개 같도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벌주심으로써 회개치 않는 죄를 구체적으로 갚으시는 의의 하나님이심을 보입니다. 여기 나오는 의란 구체적으로

의의 말씀인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성경 위에 세워지지 않은 모든 것은 다 무너집니다. 예를 들면, 행복한 가정생활, 노년의 아름다운 생활을 영위하려면 반드시 의의 근원인 성경의 지침을 받아야만 합니다.(엡5:18, 전 12:13) 사실상, 구원이란 죄에서의 구출만이 아니고,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의가 없어 하나님의 진노아래 있던 인생은(롬1:18-19) 율법이 요구하는 의보다 더 나은 의 곧,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습니다.(롬3:21) 그 구원은 빛의 열매인 의를 맺혀감으로서 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의를 세우기 위해 겸손히 주께 나아갈 뿐 아니라, 이 땅위에 복음을 증거함으로서 의의 가정, 의의 사회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는 사회가 되게 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보다 높은 것을 모두 낮추십니다. 18-27절에는 시드기야의 불순종은 마침내 바벨론에 의한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반드시 낮추시는 하나님의 주임되심을 이 노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 때문입니다. 돈이 주인이 되었거나 권력이 주인이 되었거나, 심지어 생활 보장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밀치고 높은 자리에 앉을 때 그는 반드시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있다면 이것과 진정한 싸움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째, 하나님만이 세상의 왕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여기 심판 대상에 암몬 족속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이 BC 589년경 유다와 동맹하여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28-32) 마침내 그리스도의 의만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온 세상의 왕 이신 그리스도를
겸손히 섬기며 살아갑시다.(시2:)

Song of the Sword (Sword Song) (Ezekiel 21:8-32) 2001.10.31 Wed

The text is called Geomga (Song of the Sword) because it shows God's discipline in judging Judah and the Ammonites through Babylon. Speaking of Geomga, it appears in Genesis 4:23-24 that it sings of God's righteousness in punishing Lamech for his actions. From Adam's 6th generation descendant, Ramel, came the ancestor of those who raised livestock, the ancestor of those who played the lyre and the harp, and the ancestor who made sharp machines, but God's severe punishment followed him because he did not repent. The text in the same context does not sing about the sword, but about the righteousness of God that the sword symbolizes. We hope that God's righteousness will be established at a time when unexpected war spreads, and we earnestly pray for the leaders of the United States, Korea, and the world. You must pray. This is so that "we may live a quiet and peaceful life in all godliness and holiness" (1 Tim. 2:1-2). What lessons about the kingdom of God can we learn from this "Song of the Sword"? First, only God's righteousness is established forever. "Offering the best art to the best God," is the motto of musicians, and God is pleased to reveal His revelation through his poetry. So, the subject matter of the psalm is usually something like "God's kindness and truth, Christ's glory and eternity," but here, the subject matter is a sword. The reason is that this does not glorify war, but only the eternal righteousness of God. Verse 9 says, "Sword, sword, sharp and polished," and verses 14-15, "A sword to slander, like lightning for slaughter, like lightning for slaughter." By punishing Judah through Babylon, He shows that He is a God of righteousness who

specifically pays for unrepentant sins. The righteousness mentioned here specifically refers to the Bible, the word of righteousness. Therefore, everything that is not built on the Bible will collapse. For example, in order to have a happy family life and a beautiful life in old age, one must receive guidance from the Bible, the source of righteousness (Ephesians 5:18, Ecclesiastes 12:13). In fact, salvation is not only deliverance from sin; , It is to establish God's righteousness from another aspect. Life, which was under the wrath of God due to lack of righteousness (Romans 1:18-19), gains righteousness through faith in Christ, a righteousness that is better than the righteousness required by the law. (Romans 3:21) Our salvation is to establish the kingdom of righteousness by bearing righteousness, which is the fruit of light. Not only do we humbly come to the Lord to establish this eternal righteousness, but we can also create a righteous family and a righteous society by testifying to the gospel on this earth. We must create a society where the word of God gains power. Second, He humbles everything that is higher than God. In verses 18-27, Zedekiah's disobedience ultimately led to destruction by Babylon. In this song, we can see that God is the Lord, who always humbles those who are higher than Him. This is because of the sin of serving idols. When money becomes the master, power becomes the master, or even livelihood security becomes the master, and he pushes away God and sits in a high position, he will inevitably be brought down. If there is anything among you that is higher than God, there must be a real fight against this. When this happens, a new work of life takes place within us. Third, God alone reveals that he is the king of the world. Even the Ammonites were included in the judgment here. This is because they sinned by allying with Judah around 589 BC.(28 -32) Finally, the day will come when only the righteousness of

Christ will rule the whole world. Let us live humbly serving Christ, the King of the world. (Psalm 2:)

에스겔의 탄식 (겔20:45-21:7) 2001.10.24

참 선지자는 예언과 함께 그것을 책임지는 눈물을 가진 자입니다. 말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동참하여 안타까워하는 십자가 지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 스겔에게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탄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의 탄식은 자기 백성에 대 한 하나님의 탄식을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론과 교리는 많은데 진정한 탄식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번 전쟁을 바라보는 여러분에게 정말 이 런 탄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방관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말만이 아닌 그 문제를 내 것 으로 끌어안는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져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에스겔의 깊은 탄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것은 시대를 책임지는 자의 탄식입니다. 4549절에 보면, 남방삼림에 대 한 탄식이 나오고, 16절에는 유대를 향한 탄식이 나옵니다. 전자는 비유이고 후자는 그 해석입니다. 이것을 향하여 탄식하라는 것은 에스겔이 그 시대를 책임지는 자로 부름받 았다는 뜻입니다. 선지자는 시대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다윗은 선지자로서 시 대를 상대한 사람들이었듯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시대를 책임지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벧전2:9) 동시에 이것은 자기백성을 책임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유대와 그 성소를 향하여 예언 하라고 한 것은 구약 교회를 향한 예언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온 땅에 있는 교회 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런 본연의 자세, 이 세대를 책임지는 자로서 살아가야 합 니다. 책임진 자로서의 탄식이 일어나야 합니다. 십자가

지는 자의 눈물이 있어야합니다. 십자가 지는 자가 있는 곳에 부활의
 생명과 부흥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비판하고, 환경을 탓하고, 이웃에게 돌리는 마음에는
 이런 탄식이 있을 수 없고, 생명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생명이 발아하는 법이니까요 둘째, 이것은
 죄를 회개하는 탄식입니다. 왜 에스겔은 탄식했을까요? 재앙의 소문
 때문입니다. 그 재앙은 어떤 것인가요? 의인과 악인을 끊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공 할 만한 재앙인지 의인마저도 그 재앙에
 동참해야하는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그 재앙으로 마음이 녹고, 손이
 약해지고, 영이 쇠하고, 무릎이 약해진다고 했습니다. 그 재앙의 실상을
 안 에스겔은 회개하는 심정으로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의 소식을
 듣고 우리의 죄, 시대의 죄, 이웃의 죄를 회개할 때 천국을 체험하게되고
 그 때부터 소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째, 이것은 미래의 회복을
 기약하는 탄식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미래를 바라보고 씨를 심는
 자의 눈물을 흐렸습니다. 예언하고서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은 눈물이
 있었습니 다. 아무리 경고해도 비유로 생각한 무단 이스라엘을 회복을
 기약하는 진실의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정말 시편 126편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심는 자는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는 소망의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에스겔 당대는 맛보지 못했으나 70여 년이 지난 후
 이스라엘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의 씨,
 복음의 씨를 심음으로서 어두운 시대를 빛으로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 합니다.

Ezekiel's Lament (Ezekiel 20:45-21:7) 2001.10.24

A true prophet is one who has the tears to take responsibility for prophecy as well as prophecy. He is a cross-bearer who does not just say something, but participates in it and feels sorry for it. So God commanded Ezekiel to sigh as if his back was being cut off. His lamentation can be said to be a shadow of God's lamentation for his people. The problem with today's church is that there are many theories and doctrines, but no true lament. Do you really feel this kind of lament as you look at this war? Or are you not a bystander? We must have the heart of Christ, embracing the problem as our own, not just words. In that sense, I would like to think about the meaning of Ezekiel's deep lament in today's text. First, this is the lament of someone in charge of the times. In verse 45:49, there is a lament for the southern forest, and in verse 16, there is a lament for Judea. The former is a metaphor and the latter is its interpretation. Lamenting over this means that Ezekiel was called to be the one in charge of that era. A prophet is a person who is responsible for the times. Just as Abraham and David were people who dealt with the times as prophets, all Christians are called to be those in charge of the times. That is what it means to be called the light of the world and the salt of the earth (1 Peter 2:9). At the same time, it means one who is responsible for his people. The command to prophesy toward Judea and its sanctuary is a prophecy toward the Old Testament church. The Lord's interest has always been the church throughout the earth. The church today must live with this original attitude, as a person responsible for this generation. As a responsible person, you must lament. There must be tears of those who bear the cross. This is because where there are those who bear the cross, the life of resurrection and revival occurs. A heart that avoids responsibility, criticizes, blames the

environment, and blames its neighbors because it cannot take care of its own body cannot have this kind of sighing and cannot expect the work of life. When a grain of wheat falls to the ground and dies, life germinates. Second, this is a lament for repentance of sin. Why did Ezekiel lament? Because of rumors of disaster. What is that disaster? It means to separate the righteous from the wicked. It was said that the disaster was so terrible that even the righteous had to participate in it. It was said that the disaster caused the heart to melt, the hands to weaken, the spirit to fail, and the knees to weaken. Ezekiel, knowing the reality of the disaster, sighs with a heart of repentance. When we hear the news of this disaster and repent of our sins, the sins of our time, and the sins of our neighbors, we will experience heaven, and from then on hope begins. Third, this is a lament that promises future recovery. But Ezekiel looked to the future and shed the tears of a sower. After prophesying, I cried as if my back was breaking. No matter how many warnings were given, the seed of truth was planted that promised the restoration of Israel, which was dull and thought of as a parable. Just like Psalm 126, those who plant seeds with tears have planted seeds of hope that will return with joy. Ezekiel's time could not taste it, but after 70 years, Israel was restored. I pray that you will become God's workers who turn dark times into light by shedding tears and planting the seeds of the Word and the Gospel.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구원 (겔20:30-49) 2001.10.17 수

에스겔 20장 하반부에서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결심을 꺾어 버리시고(30-32), 바벨론에서 다시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을 주시는 약속(33-38)과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구원을 보입니다.(39-44)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진정한 회개로 나타나는 구원입니다. 42-43상반절에 "내가 너희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줄 알고 거기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미워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회개의 요소를 발견합니다. (1) 믿음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그의 공로를 믿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완벽한 공로를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2) 자백이 있었습니다. "너희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한 기억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기의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질 때 진정한 회개가 시작됩니다.(요일1:9) 3) 악이 싫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죄를 이야기해도 심상히 여기는 사람이 성령의 회개케 하시는 일로 인하여 죄의 물골을 보니까 싫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부으심으로 일어나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주여, 죄를 심상히 여기던 마음이 심 각하게 여기는 자로 변화되게 하소서 둘째, 산 제사로 나타나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회개만이 아니라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롬12:1-2절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했습니다. 산 제사란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것임을 믿는 데서 출발합니다.(40-41상)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 천신하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흠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 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열국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라는 말씀에 산 제사를 드리는 증거가 나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첫 열매와 성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자신을 향기로 드리는 것을 보십시오. 이 순수하고 절대적 구원을 누가 이루시는가요? 오직 주님만이 이루어 가십니다. 세례, 성령 부으심으로 나타나는 구원입니다. 회개와 헌신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구원은 성령의 부으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부흥은 바로 이런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터져 나오는 니느웨식의 부흥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것이 에스겔을 통해 거울처럼 보여준 구원의 열매였습니다. 여기 성령을 부으신다는 말은 없어도 거룩한 삶을 이웃에게 나타내거나(41하) 여호와를 아는 그 풍성한 경험적 지식이 물결처럼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때 되는 것이기 때 문입니다.(42, 44-45) 성령의 부으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합시다.

Salvation achieved by Jehovah (Ezekiel 20:30-49) 2001.10.17 Wed

The second half of Ezekiel 20 states that salvation, which is impossible through human efforts, is possible only through God's absolute power. He breaks their resolve to serve idols (30-32) and shows the promise of giving them Canaan by bringing them out of Babylon (33-38) and the salvation that God Himself achieves (39-44). The salvation that God Himself achieves. What is it? First, salvation comes through true repentance. Verses 42-43a say, "You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when I bring you into the land I swore to give to your ancestors, and there you will remember your ways and all your defilements, and you will hate yourselves for all the evil you have done." "I said. We find here the elements of true repentance. (1) I had faith. True repentance must be preceded by believing in God, His Word, and His merits. Because Christ has accomplished perfect merit. It is said that sins are forgiven through his name. (2) There was a confession. "Remember your ways and all the ways you have defiled yourselves." The remembrance of what one has done is the work of the Holy Spirit. True repentance begins when one's eyes are opened to see one's reality. (1 John 1:9) 3) The work of hating evil takes place. No matter how much we talk about sin, people who take it seriously will hate it when they see the sin in its face thanks to the Holy Spirit's work of repentance. This is true repentance brought about by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Lord, help me change from someone who takes sin seriously to someone who takes it seriously. Second, it is salvation that comes through a living sacrifice. The salvation that God achieves is not only repentance, but also the realization of Romans 12:1-2, which involves offering oneself to God as a living sacrifice. It says, "Offer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which is your spiritual worship." A living sacrifice begins with the belief that my body is not mine, but only God's. (40-41a) "They will all serve me on my holy

mountain, on the high mountain of Israel; there I will accept them with pleasure, and there I will receive your gifts and your worshipers.” “I will require the firstfruits and all your holy things. When I bring you out of the nations and gather you out of the countries where you have been scattered, I will receive you as a fragrance and I will sanctify myself in you in the sight of the nations.” In these words, there is evidence of offering a living sacrifice. See how you serve only God, offer your first fruits and holy offerings to God, and offer yourself as a fragrance. Who achieves this pure and absolute salvation? Only the Lord can make it happen. Third, salvation comes through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God's salvation, expressed through repentance and devotion, is achieved through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The revival we seek is precisely this. I am seeking a Nineveh-style revival that bursts forth within me. This was the fruit of salvation shown in a mirror through Ezekiel. Even though there is no mention of pouring out the Holy Spirit here, it is when the Holy Spirit of God is poured out that a holy life is revealed to one's neighbors (41b) or the rich experiential knowledge of Jehovah arises like a wave. (42, 44- 45) We must long for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This is the salvation that God achieves. Let us bring the season of Christ to this world without Christ.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니라(겔20:1-29)

에스겔 20장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달리, 이스라엘의 반역 행위를 대조시킴으로서 그들의 징계가 아주 정당한 것임을 증거합니다. 현재 우리들은 수많은 계시를 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순종치 않는다 면 이스라엘의 전철을 답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 조명아래 순종생활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순종의 즐거움으로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13, 21)라고 한 것을 보면 말씀을 순종할 때 그 효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인 안식일 지키는 명령을 중시해서 어떻게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첫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1-2절에 하나님은 장로들에게 응답해주지 않겠다고 하시면서도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들의 과거를 기억케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하려는 뜻이 숨겨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요? 애굽에서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은 애굽의 우상으로 더럽히지 말라(7)고 경계하시면서 마침내 애굽에 재앙을 부으셔서 우상숭배의 결과를 가르쳐주셨습니다.(8) 거기서 건짐받은 이스라엘로 광야에서도 동일한 계시인 율례와 규례를 알게 하셨고(10) 거룩한 백성의 표징인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습니다.(11) 그러나 그들의 불순종으로 진노를 쏟으려 했으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취소하셨습니다.(12-14) 2세에게 준 계시 역시, 1세가 받은 것과 같은 율례였습니다.(17-20)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셨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우상을 섬기고 율례를 폐하 였습니다.(21-30)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계시가 놀라운 은혜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불평으로 갚았던 것입니다. 특히 그의 백성으로서의 기본적인 표징인 안식일 규례마저도 더럽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탄식이었습니다. 수 차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 내 속에 활동하는 반역하는 죄와 싸워야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반역하여 멀리 떠나 갔습니다. 그 반역적 기질이 무엇인가요? 예나 지금이나 타락한 인간 속에 자 리잡고 있는 욕을 가리킵니다. 한마디 말이 다윗을 따르던 백성의 마음을 단번 에 돌려놓은 세바의 반역처럼,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자기의 권 력과 명예를 위한 것임이 드러난 요압의 교묘한 불순종처럼, 심각한 영향을 미 치는 부패성이 우리에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려 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과수해나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경건에 이르기 를 연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세우신 표준인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 를 순종해야합니다. 이것이 욕을 이기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 다. 이사야58:13-14에 안식일을 즐거운 날, 존귀한 날로 여기고, 사사로운 일을 금하고, 오락을 구치 않을 때, 그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땅의 높은 곳에 올리 우고, 야곱의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되는 것입니다

Sanctify my Sabbath day (Ezekiel 20:1-29)

Chapter 20 of Ezekiel proves that their discipline was very justified by contrasting Israel's rebellious behavior with God's faithfulness in saving his people throughout Israel's history. Although we are currently receiving numerous revelations, if we do not obey the Word, we are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Israel. Therefore, I believe that we must realize how precious a life of obedience is under the historical light and approach it with the joy of obedience. So, if you look at verse 11, "These are my statutes, if anyone obeys them, they will gain life by them" (13, 21), we can enjoy its effectiveness when we obey the Word. At this time, let's think about how we can enjoy an abundant life by focusing on the command to keep the Sabbath, which is a sign of God's people. First, we must always remember God's great grace. In verses 1-2, God says he will not respond to the elders, but speaks to Ezekiel. His hidden intention is to make them remember their past and lead them to repentance. What grace did God give them? God, who revealed Himself as "I am the Lord your God" from Egypt, warned them not to defile themselves with Egyptian idols (7) and eventually poured disaster on Egypt, teaching them the consequences of idolatry. (8) Those who were saved from there. God made Israel know the same revelations, the laws and regulations, even in the wilderness (10) and established the Sabbath as a sign of a holy people. (11) However, God tried to pour out His wrath on them for their disobedience, but He canceled it for the sake of God's name. (12- 14) The revelation given to the second generation was also the same law that the first generation received. (17-20) God demanded the same thing from the Israelites who entered Canaan, but they all served idols and abolished the laws. (21-30) In this way, Israel Although the revelation given to them was an amazing

grace, they left God and became worshipers of idols and repaid God's grace with complaints. In particular, even the Sabbath observance, which was the basic sign of his people, was defiled. This was God's lament in today's text. Despite being given several opportunities, he gradually drifted further away from God.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for saved Christians today to always remember the amazing grace that God has given them. Second, we must fight against the rebellious sin that is active within us. Despite receiving this grace, Israel rebelled against God and went far away. What is that rebellious nature? It refers to the flesh that resides in fallen humans, both past and present. Like Sheba's rebellion, which changed the hearts of the people who followed David with a single word, and Joab's subtle disobedience, which seemed to be for God's sake but ultimately turned out to be for his own power and honor, we see corruption that has a serious impact on us. It's in there. Therefore, in order to enjoy a life filled with life, you must maintain the faith of the fear of the Lord. You must constantly practice godliness. You must obey the rules of keeping the Sabbath, which is the standard established by the Holy Spirit. This is how you overcome the flesh. It is a way to enjoy the grace given to us in Isaiah 58:13-14. When we regard the Sabbath as a joyful and honorable day, refrain from doing personal things, and do not seek entertainment, we take pleasure in it and ascend to the highest places on earth. Ugh, you will enjoy Jacob's abundant grace of salvation.

에스겔의 애가 (겔19:1-14) 2001.10.4

오늘 본문은 유다 말기정권이 어떻게 망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17장에 이미 언급한 내용의 반복입니다. 1-9절까지는 젊은 사자로 비유된 여호아하스 왕이 애굽에 잡혀갈 것과 다른 젊은 사자인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잡혀갈 것을 예언합니다. 10-14절은 유다를 포도나무로 비유하여 거기에 붙은 건강한 가지인 왕들이 몸 두 꺾이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거울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본래 국가는 하나님이 친히 세운 기관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상에 세운 기관 둘이 있는데 이것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은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심으로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고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라"(창3:16)는 기본원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남에 따라 여러 영태의 가정으로 나타나지만 여전히 기본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여러 명의 아내를 둔 것은 창조원리를 벗어난 행위입니다. 교회 역시 그리스도가 만드신 기관입니다. 교회가 지상에 구체화된 것은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18절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사실상 에덴동산의 가정은 교회의 그림자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과 남은 무리를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무엘 때에 인간 왕을 구하는 그들에게 국가의 형태를 허락하셨음을 뿐입니다. 바벨탑을 세울 때부터 하나님의 왕되심을 싫어하고 인간이 왕이 되고 자하는 국가가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정정치를 원하셨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욕적 욕구를 받아 드림으로서 국가제도를 허용하신 것이다. 그러기에 국가는 인간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본래 원하신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비유로 나타난 것처럼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여전히 하나님의 왕심을 인정할 때 되는데 그들은 자기욕심에 끌려 머리만 굴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악에 악을 낳고 불행에 불행을 거듭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젊은 사자요 건강 한 가지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버리면 멸망의 길을 자처하는 셈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미국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이 세상나라는 하나님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국가를 세웠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고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벨론, 메대, 파사, 그리이스, 로마, 공산주의, 민주주의로 나누 인 것이 이제는 통합주의 국가를 점점 추구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적 그리스도 나라와 그리스도 나라로 대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후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세상에 완성되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영원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 나라요, 절대능력으로 이뤄지는 나라인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사9:6-7)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의를 세운다고 하면서 어떤 선이 무시되고, 사랑이 무너진 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과 한국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 받기를 기도해야하겠습니다.

Ezekiel's Lamentations (Ezekiel 19:1-14) 2001.10.4

Today's text shows how the late-period regime of Judah falls and is a repetition of what was already mentioned in Chapter 17. Verses 1-9 prophesied that King Jehoahaz, likened to a young lion, would be taken captive to Egypt, and that King Jehoiachin, another young lion, would be taken captive to Babylon. Verses 10-14 compare Judah to a vine and prophesy that the kings, who are healthy branches, will be broken in two. Through this historical mirror, we can learn several lessons about the Christian view of the state. First, the original nation was not an institution established by God himself. There are two institutions that God himself established in the world: the family and the church. By creating Adam and Eve in the Garden of Eden, God established the basic principle that "the husband should rule over his wife, and the wife should desire her husband" (Genesis 3:16). As time passes, many different assumptions appear, but the basic principles remain the same. Even for King David, having multiple wives is an act that deviates from the principles of creation. The church is also an institution created by Christ. The church came to life on earth with the coming of the Holy Spirit at Pentecost. In Matthew 16:18, it was our Lord's wish to establish a church. In fact, the home in the Garden of Eden was the shadow of the church. This is what was shown through the Israelites and the rest. The Lord wanted to show the kingdom of God by establishing a church. Then, during the time of Samuel, he simply granted them the form of a nation by seeking a human king. From the time the Tower of Babel was built, we can see the beginning of a nation that hated God's kingship and wanted a human being to be king. He wanted a theocracy, but God allowed the national system by accepting their fleshly desires. Therefore, the nation was created by humans and was not the system that God originally wanted. As shown in today's parable, in order for the

nation to function properly, it is still necessary to acknowledge God's royal will, but they were only being driven by their own greed. This ultimately led to evil upon evil and misfortune after misfortune. No matter how young and strong you are, if you abandon God, who controls you, you are setting yourself on the path to destruction. We must pray that America, where we live, will not turn away from God. Second, the kingdom of this world is advancing to achieve the kingdom of God. Because humans established a nation that God did not want, various problems arose and continue to arise. Divided into Babylon, Media, Persia, Greece, Rome, communism, and democracy, they are now increasingly pursuing a unified state. Eventually, the kingdom of Antichrist will be replaced by the kingdom of Christ. Afterwards, the kingdom of Christ will be completed in this world and advance into eternity with the second coming of Christ. However, from this earth, the Lord has taught us that the kingdom of God is a kingdom of righteousness and peace, and a kingdom achieved by absolute power. (Isaiah 9:6-7) Do not ignore any good while saying that you are taking this opportunity to establish the righteousness of God. And if love falls apart, this is not what God wants. We must pray that the United States and Korea will be used preciousely in establishing God's kingdom in these last days.

다윗의 평생소원(삼하7:1-17) 2001.9.23 (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의 언약"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 소원 은혜언약(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약속)이 점진적이며 더 뚜렷하게 나타나다가 마침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새 언약이란 것으로 완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구약에 있는 다윗이지만 복음 안에서의 풍성한 은혜의 씨앗들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봅니다. 이런 축복이 다윗에게 계승된 것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주목할 때 우리는 다윗의 평생 소원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행13:22)라는 사실이 본문 7:2절 한 귀절에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나는 백향목 궁정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가운데 있도다"는 한 마디에 그의 평생소원이 간결하게 집약되었습니다. 첫째, 다윗은 어떤 평생소원을 가지고 있었나요? 3절에 보면 나단을 통해 하나님은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두신 소원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소원이란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복과 저주를 마음의 상태와 깊이 관련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이 움직이는 방향이라는 의미에서 바울은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는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에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감사하며 죽었다가 다시 살려주신 것을 생각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21에는 여호와 앞에서 뛰어 놀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평생 소원은 감사 제사를 드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도 고기뱃속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듯이(2:9) 열 문둥이를 고치신 주님이 감사의 제물을 기다리셨던 것처럼(눅17:17-19) 감사는 은혜 받은 성도의 마땅히 드릴 제물인 것입니다. 전 그는 겸손한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 평생소원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한마디 속에는 속에는 하나님에 대해 황송스러운 마음을 가진 겸손한 그를 발견합니다. 받은 은혜를 비교해 보니까, 그는 너무나 부끄워했던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는 마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옳은 오만하기 쉬운 자리였지만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평생소원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는 주를 위한 현신이 평생소원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다윗에 계는 무슨 희생을 치러서라도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자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봅니다. 그러기에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보좌를 늘 사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롬12:1-2절은 우리의 표준이며, 평생 우리가 따를 삶의 나침판입니다. 이런 고지에 빨리 이르느냐가 우리의 행불행을 좌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나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이런 다윗의 소원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동소원이어야 합니다. 둘째, 이 소원의 제물 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다윗의 이런 소원은 갈멜산의 제단에 드려진 제물과 같았습니다. 이런 소원의 제사 위에 하나님은 불같은 축복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첫째, 그 나라를 견고히 하셨습니다.(8-12) 둘째, 언약관계를 통해 가장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14-15) 셋째, 영원한 은혜의 복을 부어주셨습니다.(17-29) 다윗은 이런 약속에

근거하여 영원한 복을 달라고 구했습니다.(29)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종의 집에 영원한 복을 주소서

David's lifelong wish (2 Samuel 7:1-17) 2001.9.23 (

Chapter 7 of 2 Samuel is so important that it is called the "Covenant of David." The so-called covenant of grace (God's promise to show grace) gradually and more clearly appears through Adam, Abraham, Moses, and the prophets, and finally through Christ. This is because the new covenant was completed through the coming of David, but when we look at the reason why this blessing was passed down to David in the Gospel, we see that he has it all. It can be seen that David's lifelong desire was to be a man after God's own heart (Acts 13:22), which is clearly shown in verse 7: "I dwell in the cedar tree." David's lifelong wish was succinctly summarized in one word: "The ark of God is within a veil." First, what kind of lifelong wish did David have? In verse 3, God said through Nathan, "Speak whatever is in your heart." I said. It means to act according to the desires that God has placed in your heart. A wish is a blessing from God placed in your heart. So the Bible deeply relates all blessings and curses to the state of the heart. Therefore, in the sense that the desire of the heart is the direction in which God's will moves, Paul said that God puts a desire within us and acts on it. His wish was to offer a thanksgiving offering. Because God allowed him to win, he is grateful that he has become the king of Israel and is thrilled to think that God brought him back to life. So in 6:21 it says he played before the Lord. His lifelong wish was to live a life of thanksgiving. Just as Jonah offered a sacrifice of thanks from the belly of a fish (2:9), and just as the Lord who healed ten lepers waited for a sacrifice of thanks (Luke 17:17-19), thanks is an offering that

should be given by believers who have received grace. His lifelong wish was to have a humble heart. Today, in these words, I find a humble person with a heart full of joy toward God. Comparing the grace he had received, he felt so ashamed. “With what can I repay your grace?” That was the underlying thought. Although Job was prone to arrogance, he lived with gratitude for God's grace. If we have a lifelong wish, it should be to have the heart of the Lord. His lifelong wish was to be incarnated for the Lord. We see that David, who received great grace from the Lord, had the heart to dedicate everything to the Lord no matter what the sacrifice. Therefore, his heart always longs for God's presence, God's will, and God's ruling throne. In that sense, Romans 12:1-2 is our standard and the compass of life we must follow throughout our lives. Whether or not we reach this level quickly determines our fate or misfortune. I can't help but do that because my master is the Lord. David's wish should be the common wish of all Christians. Second, how did God respond to this offering of wishes? David's wish was like the sacrifice offered on the altar on Mount Carmel. On this sacrifice of hope, God responded with fiery blessings. First, he strengthened the nation. (8-12) Second, he allowed people to enjoy the most intimate fellowship through covenant relationships. (14-15) Third, God poured out the blessing of eternal grace. (17-29) Based on this promise, David asked for eternal blessings. (29) “Make it forever before you. By your grace, make the house of your servant. Give me eternal blessings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겔18;1-32) 2001.9.19 수

우리는 18장의 "신 포도의 잠언"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살리라"는 하나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회개한다면 회복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죄악도 오직 개인 적인 회개로서만 해결됩니다. 스스로 돌이키고 이웃의 죄를 책임지고 재를 무릎쓰고 회개하면 새로운 소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운동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회개에는 어떤 요소가 들어있는지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합니까? 첫째, 버리는 행동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회개를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데 이것은 로마서12:2에 마음이 새롭게되어 변화를 받은" 마음입니다. 이것은 "후회"나 "뉘우침"과 다릅니다. 반성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악을 버리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 회개는 성령으로 시작되어 모든 악을 버리며, 하나님을 만나 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것을 둘로 표현했습니다. (1) 사람의 육적 생각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30-31절에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고 했고, 28절에는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을 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16:23에서 주님은 "너는 나를 넘어서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 사람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저버렸습니다. 진정한 자아부인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킴으로 되는 것이지 자기 생각을 주장할 때는

불가능하다. (2) 죄악에서 떠나는 것이라 했습니다. 21절에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 이켜 떠나 네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고 했는데 회개란 자기가 있는 자리의 모든 불의와 불경건을 떠나는 것입니다. 거기 에는 5-9절과 같이 우상숭배, 제사, 간음, 부정, 더러운 이를 버려야한다는 것입니다. 들째, 회개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을 용어상 구분하지만 사실 이 둘은 서로 분리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믿음을 품었다 는 말이고 믿었다면 회개로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회개는 버리는 것 대신 취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1) 법과 의를 순종하는 것(21)과 (2)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31)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니느웨의 회개운동도 망한다는 책망을 들었 지만 그 배후에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을 믿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마음의 새로 움을 얻기 위하여 살피고 노력하고 책임져야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믿음과 회개,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 나타나 있듯이 우리는 요나처럼 주의 목전을 떠났 어도 주의 성전에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세째, 회개란 개별적인 것입니다. 회개에 버리는 것과 취하는 것이 들어있을 뿐 아니라, 1절에 나오는 잠언처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는 인 과 응보의 그릇된 견해를 주의해야합니다. 유전설은 비성경적임이 분명합니다. "가계 의 저주를 끊어야 산다"는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안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이런 견해는 3 계명의 오해인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은 구원문제에 있어서 철저히 개별적입니다. 노아, 욥, 다니엘의

중보기도(겔13:14,20)가 개인 구원에 영향을 못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어두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는 복음입니다. 나
하나가 바로 서면 나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런 의인을 오늘도 원하십니다. 이런 의인이
되십시오.

Turn and repent (Ezekiel 18:1-32) 2001.9.19 Wed

Through the “Proverb of Sour Grapes” in chapter 18, we can hear God’s voice of love saying, “If you come back even now, you will live.” Even if you have no hope at all, if you repent even now, the path to recovery will be open. The sins prevalent in our society can only be resolved through personal repentance. If you turn around yourself, take responsibility for the sins of your neighbors, kneel in ashes and repent, a new hope will begin. I hope that this kind of repentance movement will occur in our hearts, our families, and our churches. What does today’s text say about what elements repentance contains? First, there is the act of throwing away. Some people call repentance a “change of mind,” which is what Romans 12:2 calls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is is different from “regret” or “contrition.” Although we need to reflect, we still need to come to a place where we let go of our sins. Therefore, true repentance begins with the Holy Spirit, abandoning all evil, and meeting God. In today’s text, this is expressed in two ways. (1) It is said to be about throwing away one’s fleshly thoughts. Verses 30-31 say, “Repent and turn away from all your sins.” Verse 28 says, “He considered himself and turned away from all his sins. He will certainly live and not die.” Repentance

is throwing away carnal thoughts. In Matthew 16:23, the Lord said, "You are the one causing me to stumble; you do not set your mind on the things that are God, but the things that are human." In Peter's case, he abandoned God's thoughts for man's thoughts. True self-denial is achieved by submitting one's thoughts to God's thoughts, which is impossible when asserting one's own thoughts. (2) It is said to depart from sin. He said in verse 21, "If a wicked man turns from all the sins he has committed and keeps all your statutes and does what is lawful and righteous, he will certainly live and not die."

Repentance means leaving all unrighteousness and ungodliness in one's place. As in verses 5-9, we must abandon idolatry, sacrifice, adultery, uncleanness, and uncleanness. Second, repentance means taking God's righteousness by faith. There is a distinction between repentance and faith in terminology, but in reality, the two cannot be separated from each other. If you repent, it means you have faith, and if you believe, you are supposed to repent. Repentance must involve taking instead of throwing away. (1) Obedience to the law and righteousness (21) and (2) renewing the mind and spirit (31) must occur.

Although they were rebuked that the repentance movement in Nineveh would also fail, they only believed in the God who spoke behind them. The church must look, make efforts, and take responsibility to obtain renewal of heart. As Psalm 51 shows that faith and repentance are in good harmony, we must have faith to go to the Lord's temple like Jonah, even if we have left the Lord's sight. This is what true repentance looks like. Third, repentance is individual. Not only does repentance include throwing away and taking, but we must be careful of the erroneous view of benevolence and retribution that, as in the proverb in verse 1, "The father has eaten sour grapes, but the son's teeth are set on edge." It is clear that the theory of inheritance is unbiblical. The claim

that “you must break the family curse to survive” is not a biblical teaching. In Christ, all our curses have been broken. This view appears to be a misunderstanding of the third commandment. The Bible is completely individual when it comes to salvation. He said that the intercessory prayers of Noah, Job, and Daniel (Ezekiel 13:14,20) had no effect on personal salvation. This is the gospel that gives true hope to us living in dark times. Because if I stand upright, I too can be saved and help others. The Lord wants these righteous people even today. Become this kind of righteous person.

높이시고 낮추시는 여호와(겔17:1-24) 2001.9.12.(수)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교만의 결과가 얼마나 어리석은 가를 보이면서 겸손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권합니다. 1-10절에 비유를, 11-22절에 그 해석을 보이면서 끝이어 23-24절에는 교만한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높이 심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을 꺾으시고 결국 겸손한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 나라에서 겸손한 섬김이 얼마나 중요하며 어떻게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를 생각하고자합니다. 천백 오랜는 방의 연장이고 거한 간 다는 시 여정의 관광이 내 (37. 18)는 말씀대로 동서고금을 통해 교만한 자는 모두 망했으며, 우리가 사는 세상도 결국은 교만으로 망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흔히 사탄으로 잘못 인용 하는 이사야14:12의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바벨론을 가리키는데 이 바벨 론이 망하는 것도 교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사14:13-14) 이 바벨론으로 비유된 세상도 교만 때문에 망한다고 요한은 예언했습니다.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계18:10) 그래서 본문에 나온 비유에서도 이스라엘은 교만 때문에 망한다고 지적했 습니다.

독수리(느브갓네살왕)가 백향목 가지(이스라엘의 여호야긴 왕)를 꺾 어 상고의 땅(바벨론)에 심고, 그 땅의 한 종자(시드기야왕)를 큰 물가에 심

어 포도나무로 자라 독수리의 발아래 있게 합니다.(1-6) 그런데 그 포도나무 는 다른 독수리(에굽)에게 물을 요청하다가 화를 당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손을 벗어나기 위해 애굽과 손을 잡으려는 시드기야의 멸망을 예언한 것입니다. 유다의 불신실과 교만은 스스로 멸망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언약을 배반 한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들을 망케 한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겐손의 왕을 따라 겐손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만한 이스라엘의 망하는 그림만을 보지 말고 겐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22-24까지 에스겔은 하 나님이 친히 언약을 이루시듯이 그 나라 도 친히 세우시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마치 겨자씨비유에 나오는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 드는 그런 나라가 온다 는 것입니다.(23) 정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나라는 완성되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을 중심하여 살 때만이 진정한 겐 손을 알게 됩니다. "나 여호와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시며 푸른나무를 말리우고 마른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는 것처럼 그 나라 백성은 언제나 겐손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Jehovah exalts and humbles (Ezekiel 17:1-24) 2001.9.12. (Wed)

In today's text, Ezekiel shows how foolish the results of Israel's unbelief and pride were through the parable of the eagle and the vine, and encourages them to live as humble people. He shows the parable in verses 1-10 and the interpretation in verses 11-22. In verses 23-24, God promised that God's kingdom would prosper by humiliating the proud Israel and exalting the

church, the new Israel, and ultimately establishing a humble nation, the kingdom of the Messiah, through humble service in that kingdom. I would like to think about how important it is and how one can live as a humble person. As I said in the poem (37.18), “the thousand bones are an extension of the room and a place to live,” all the arrogant people have been ruined throughout the East and the West, and the world we live in has been ruined. The Bible says that the Bible says that the name “Gyemyeongseong, the son of the morning” in Isaiah 14:12, which is often misquoted as Satan, refers to Babylon, and that Babylon is destroyed because of pride. I will ascend into the heavens, I will exalt my throne above the stars of God; I will sit on the mount of the congregation, in the north; I will ascend in the highest clouds, I will be likened to the Most High.” (Isaiah 14:13-14) This is likened to Babylon. John prophesied that the world would also be destroyed because of pride, “Oh, woe to you, Babylon, that great city! Your judgment has come in one hour.” (Revelation 18:10) So, the parable in the text also pointed out that Israel is destroyed because of pride. The eagle (King Nebuchadnezzar) broke off a branch of a cedar tree (King Jehoiachin of Israel) and planted it in the land of Mercantile (Babylon), and a seed from that land (King Zedekiah) was planted by the river and it grew into a vine. (1-6) However, when the vine asks for water from another eagle (Egypt), it suffers disaster. This foretells the destruction of Zedekiah, who tried to join hands with Egypt to escape the hands of Babylon. Judah's unfaithfulness and pride led them down the path of destruction, as did Israel's pride in betraying the covenant. Second, we must live humbly following the king of humility established by God. However, we must not only see the picture of proud Israel falling, but the picture of the kingdom of God that gives grace to the humble. From 22 to 24, Ezekiel

prophesied that God would personally establish the kingdom just as he fulfilled the covenant. Just like in the parable of the mustard seed, a country like the big tree where birds nest will come. (23) With the coming of Christ, that kingdom has been completed and is now among us. Therefore, anyone can know true humility only when they live centered on the Lord. “You will know that I, the Lord, bring down the high trees and exalt the low trees. I dry up the green trees and make the dry trees flourish.” Just as the people of the country must always be servants with a humble heart.

영원한 언약의 회복(겔16:35-63) 2001.9.5 수

에스겔 16장은 이스라엘의 영적음행을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 앞에서 읽기를 삼가라고 할 정도로 그 추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소돔 고모라의 죄악이나 사마리아의 죄악을 비교시킴으로서 그들의 수치를 더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캄캄한 밤중 별 빛의 찬란함같이 "내가 어렸을 적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60)라는 소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름아닌 하나님이 친히 주도하시는 구원의 회복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60-62절에서 이 회복을 알리는 은혜 언약의 중요한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력이 있어서 체결한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60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운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창3: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라고 하였고, 요한복음 12:12-13절에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을 우리가 시작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했기 때문에 믿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삭개오나 수가성 여인의 구원도 알고 보면 그들의 근면이나 순종보다 먼저 주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내가 시작했다는 주장에서 주님이 시작하셨다는 주장으로 바뀌어질 때 잃어버리고 조석으로 바뀌는 우리와 달리 한번 세운 언약을 기억이 기억하시어 이루시는 주님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이것은 그들의 언약함과 상관없이 영원한 효력을 가져온 약속입니다. 그래서 60절 하반절에 또 말하기를 이것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불렀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멸망 받은 소돔과 고모라나, 사마리아의 죄악은 저리 가라고 할 정도로 더 처절하여 회생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말해줍니다. 영적 음행이 도덕적인 음행으로 나타난 것뿐 아니라, 자기 자녀를 우상 제물로 바치는 사악한 죄를 범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을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41:18절에 "자 산에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라는 약속은 우리의 누추하고 약한 것과 무관하게 다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되는 일인 것입니다. 이와같이 자기 노력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에 감사로 넘쳐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의식은 우리의 가정 생활, 교회 생활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로 의식에 사로 잡혀 살아가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되어 교만하고 사랑이 메마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 의식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Restoration of the Eternal Covenant (Ezekiel 16:35-63) 2001.9.5 Wed

Ezekiel 16 expresses Israel's spiritual fornication so blatantly that it shows its ugly side so clearly that one should refrain from reading it in front of sensitive children. In particular, their shame was revealed more clearly by comparing them with the sins of Sodom and Gomorrah and Samaria. Despite this, God gave us the promise of hope, like the brilliance of starlight in the dark of night, "I will remember the covenant I made with you when I was young, and I will

establish an everlasting covenant with you” (60). This refers to none other than the restoration of salvation led by God Himself. In verses 60-62 we discover an important feature of the covenant of grace that announces this restoration. It was not concluded due to ability, but was only concluded through God’s one-sided insistence. In the first half of verse 60, it says, “This is the covenant I made with you when you were young.” This is written in Genesis 3:15, “I have put you at enmity with the woman,” and in John 12:12-13, it appears that we have begun to believe in and accept Christ, but it is clear that we believe because we were born from God. It shows. If you look at the salvation of Zacchaeus and the woman at Sychar, it is because the Lord began the work before their diligence or obedience. Therefore, unlike us, who lose the salvation we received and change with the tide when we change from the claim that I started it to the claim that the Lord started it, we can live a life of grace in the Lord, who remembers and fulfills the covenant once made. .

Second, this is a promise that has eternal effect regardless of their weaknesses. So the second half of verse 60 also says this is called “an everlasting covenant.” The text tells us that the sins of Israel were so terrible that they were told to go away, as were the sins of Sodom, Gomorrah, and Samaria, which were destroyed, making recovery impossible. Not only did spiritual fornication manifest itself as moral fornication, but it also advanced to the point of committing the evil sin of sacrificing one’s own children to idols. It is for these people that God will establish an everlasting covenant. The promise in Isaiah 41:18, “I will open rivers on the mountains, springs of water in the midst of the valleys, waters of the wilderness, springs of water on the dry land,” has nothing to do with our shabbiness and weakness. This is something that only happens through God’s amazing grace. Likewise, we who have been

saved solely by faith in God's covenant of grace, regardless of our own efforts, must be overflowing with gratitude because we live only by God's grace every day. This sense of grace is what makes our family life and church life blessed. However, those who live their lives obsessed with a sense of merit will eventually leave God's grace and live a life that is arrogant and barren of love. I hope that you will be filled with this sense of grace.

영적 순결을 좇아라 (겔16:1-34) 2001.8.30 수

레위기 에 나오는 제사제도, 음식규례, 문둥병과 유출병의 정결규례는 모두 그리스도 한 분의 죽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히브리서 기 자는 모형 혹은 그림자(shadow)가 참 형상(reality)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석했습니다.(히10:1,14)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죄악의 경중이나 느낌이나 이웃의 판단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통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완전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5:8)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을 때 완전 순결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골자입니다. 이런 큰 구원을 염두에 두고 에스겔 16장은 우리의 실질적인 영적 순결을 얻는 길을 비유적으로 가르쳐줍니다. 거기 나오는 이스라엘의 수치스러운 죄악이 바로 우리의 죄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순결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교훈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구원받기 전의 나의 비참한 죄악상태를 기억할 때 순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가리켜 아무 소망 없는 피투성이 아이로 비유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깨우칩니다. 우리도 과정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요. 마귀의 권세아래 종노릇하며 세 상 풍속을 좇아 온갖 죄를 범한 처절한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엡2:1-2) 그럴 때 우리 영혼은 순결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의 신분을 잊 고 나의 현실에만 머물러 있으면 마치 "나의 나된 것이 내 힘으로 되었다." 는 주장을 쉽게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성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어 주며, 순결로 나아가게 합니다. 따지고 보면 교회생활에 있어서

공예배, 성찬식, 주일 성수등은 모두 우리의 과거의 기억을 새롭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2세들에게 1세의 실패를 기억케 하는 신명기의 메시지는 순결한 삶으로 나가는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순결한 삶은 이미 받은 풍성한 구원을 묵상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순결한 삶은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 현재 주어진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는데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8-14절에 보면 피투성이가 된 이스라엘을 씻기고 옷을 입히고 패물로 장식하여 왕후의 지위까지 올리셨다고 했는데, 그들은 그 풍성한 축복과 특권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우상숭배에 미쳐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받은 풍성한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것에 마음이 빠져있다면 이것은 배은망덕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 순결은 이미 받은 구원을 누릴 때 조금 조금 이루어지는 것이지 한꺼번에 되어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기 전 우리의 비참함을 아는 것이나 현재의 은혜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일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순결을 이루는 길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15-34절에는 이스라엘의 영적 음행을 남편을 멀리 떠나 이 사람 저 사람과 놀아나는 타락한 창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불 신실한 실상을 보인 것입니다. 순결을 지키는 것은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기대이며, 자기 몸을 버리신 구주님의 목적이며, 무시로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목표임을 잊지 말아야하겠습니다.

Pursue spiritual purity (Ezekiel 16:1-34) 2001.8.30 Wed

The sacrificial system, dietary regulations, and purification regulations for leprosy and discharge found in Leviticus were all completed through the death of Christ alone. Pointing to this, the writer of Hebrews interpreted that the type or shadow was made up of the true image (Hebrews 10:1,14). This fact allows us to have nothing to do with the severity or feelings of sin or the judgment of our neighbors. Regardless, God has made us completely pure and holy children of God who can communicate directly with God as long as we go through Christ. (Matthew 5:8) The gist of the gospel we believe is that when we believe in the death of Christ, we become completely pure. With this great salvation in mind, Ezekiel 16 metaphorically teaches us the way to attain practical spiritual purity. Because Israel's shameful sins are our own, we need to learn specific lessons about what we can do to achieve spiritual purity. First, we can move toward purity when we remember our miserable state of sin before salvation. In verses 1-7, Israel is likened to a child covered in blood with no hope, reminding us that they were saved by the grace of God. We, too, died in trespasses and sins along the way. We must acknowledge that we are miserable sinners who are slaves under the power of the devil and have committed all kinds of sins by following the customs of the world. (Ephesians 2:1 -2) At that time, our souls find purity. However, if you forget your past identity and stay only in your reality, it is as if "I became what I am through my own strength." It is easy to make claims and forget the grace of God. Reflection of faith makes us humble and moves us toward purity. If we look closely, we can see that in church life, public worship, Holy Communion, and Sunday observance all have the purpose of refreshing our past memories. The message of Deuteronomy, which reminds the second generation of Israel of the failures of the first generation, can be said to show them the path to a pure

life. Next, a pure life is achieved when we meditate on the abundant salvation we have already received. This means that a pure life is achieved not by dwelling only on the past, but by enjoying the grace given in the present through faith. In verses 8-14, it is said that God washed Israel, who was covered in blood, clothed them, decorated them with jewelry, and elevated them to the status of queen. However, they forgot the rich blessings and privileges and became crazy about idolatry, which God hates the most. If Christians do not enjoy the abundant salvation they have already received and are preoccupied with other things, they are living a life of ingratitude. Spiritual purity is achieved little by little as you enjoy the salvation you have already received, and is never achieved all at once. Lastly, the text says that although it is important to know our misery before salvation and to know our present grace, living a faithful life in small things is the way to achieve purity. Verses 15-34 say that Israel's spiritual fornication is like a depraved harlot who goes away from her husband and plays with one person after another. This shows the true nature of our unfaithfulness. Maintaining chastity is nothing more than being a faithful Christian. We must not forget that this is His Father's expectation for us, the Savior's purpose in giving up His own body, and the goal of the Holy Spirit who constantly works within us.

불에 던져진 포도나무 (겔15:1-8) 2001.8.22 수

본문은 이스라엘을 "불에 던져진 포도나무"로 비유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5:1-3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케 하시느니라"는 약속의 말씀과 관련시켜 어떻게 열매맺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은 포도나무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전혀 떨어질 수 없는 생명 관계이기에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해야 되는 운명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서 가지인 우리에게 무엇이 공급되니까? (1) 죄 용서의 은혜가 옵니다. 레위기 17장에 나오는 모든 부정이 가리키는 죄악에 걸리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2) 풍성한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생명수, 생명의 떡, 생명의 열매, 생명의 집으로 비유된 그리스도만이 영생이시고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3) 모든 능력이 그에게서 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 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바울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4:19) (4) 영원한 기쁨도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공급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16:22) 그러고 보면 우리는 모든 은혜의 원천을 가진 셈입니다. 바로 이것이 열매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를 싫어하면 이스라엘처럼 영적 죽음의 자리에 떨어져 육체의 열매를 맺고 야마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갈5:19-21) 둘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6-8절에 보면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의 불행에 대해서 4가지를 말해줍니다.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줄 알리라"(7)고 한 말씀에 다음과 같은 결과를 경고했습니다. (1), 하 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배은 망덕하는 자리에 있으니 얼마나 큰 불행이겠습니까? (2)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그 위에 임합니다. 소돔 고모라의 진노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명예와 권력과 부귀를 소유해도 하나님을 떠난 자의 마지막은 광야 마른땅의 기 나무처럼 됩니다. (3)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두려움으로 무릎을 꿇게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으로 온 천하가 그 앞에 무릎을 꿇듯이(빌2:10)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이에게 드러날 때 죄인에게는 공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 것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의 감격의 두려움과는 달리 홍해에 빠져 죽은 애굽군병들의 심판 받음에서 나온 두려움인 것입니다. (4) 그들의 거처가 황폐해집니다.(8 절) 하나님을 떠난 가지들은 자기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관련된 환경도 불 행해 집니다. 요한 삼서 2절의 잘되는 영혼, 형통한 범사, 육체의 강건함은 오직 그리스도안에 거하는 자만이 누리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안에 거하는 자 가되어 주변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Vine thrown into the fire (Ezekiel 15:1-8) 2001.8.22 Wed

The text compares Israel to a “vine thrown into the fire” and urges repentance. This also applies to us as New Testament Christians, so we must be able to hear the voice of the Lord and examine ourselves. In that sense, John 15:1-3 says, “I am the true vine, and my Father is the vinedresser. Every branch in me that does not bear fruit the Father takes away, and every branch that does bear fruit he takes away, so that it may bear even more fruit.” Let us think about how we can live a fruitful life in relation to the words of promise, “He purifies them.” First, we are branches of the vine attached to Christ. This means that since Christians are in a life relationship that cannot be separated from Christ, their destiny is to be satisfied only with what He gives. So what is provided to us, the branches, from Christ, the vine? (1) The grace of forgiveness of sins comes, and there will be no one who will not fall into the sins indicated by all the denials in Leviticus. It is only Jesus Christ who cleanses us from all this unrighteousness. (2) Abundant life flows out. Only Christ, likened to the water of life, the bread of life, the fruit of life, and the house of life, is eternal life and can give eternal life. (3) All power comes from him. So, when we live a serious life in Christ, we can do everything like Paul. (Philippians 4:19) (4) Eternal joy is also provided only by Christ. Christians give us joy that the world cannot give. (John 16:22) In that way, we have the source of all grace. This is the characteristic of a fruitful Christian life. However, we must keep in mind that if a branch does not want to remain attached to the tree, it will fall into the state of spiritual death like Israel and bear physical fruit. (Galatians 5:19-21) Second. If we leave Christ, we cannot help but become unhappy. Verses 6-8 tell us four things about the unhappiness of fruitless Christians. “I am against them, and they come out of the fire, and the fire will consume them; and you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when I am

against them.” (7) He warned of the following consequences. (1), become enemies with God. How great a misfortune would it be for a child of God to be in a position of ungratefulness toward God? (2) The fire of God's wrath comes upon him. You can become a person who lives a life consumed by fear, like the wrath of Sodom and Gomorrah. Even if they have a lot of fame, power, and wealth, those who leave God end up like a tree on dry land in the wilderness. (3) He will bow his knees in fear before the righteousness of God. Just as Christ's exaltation causes the whole world to bow before Him (Philippians 2:10), when God's justice is revealed to everyone, sinners will be filled with fear. Unlike the thrilling fear of the Israelites crossing the Red Sea, this is the fear that comes from the judgment of the Egyptian soldiers who drowned in the Red Sea. (4) Their dwelling places become desolate. (Verse 8) The branches that leave God are not only unhappy themselves, but their surroundings also become unhappy. This is because the prosperity of the soul, prosperity in everything, and a strong body as mentioned in 3 John 2 are blessings enjoyed only by those who live in Christ. I pray that you will become a person who lives in Christ and live as a source of blessings that will bless those around you.

구원의 요건 (겔14:1-23) 2001.8.8 수

신약 복음서처럼 구약 에스겔서에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신칭의"의 가르침은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14장을 묵상할 때 참 구원의 요건이 다음과 같다는 사실을 쉽게 깨닫습니다. 첫째, 진정한 구원은 언제나 자기 죄에 대한 깨달음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는 첫 걸음이 병의 진단에서 시작되듯이 한 죄인의 구원은 그 자신의 죄 문제부터 지적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1-11절에는 우상 섬기는 장로들이 선지자에게 나아오자 하나님은 거짓선지자의 죄악과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의 죄악이 동일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실상을 정확하게 평가받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거울을 주셔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게 하셨습니다. (롬3:19) 역시 성령님을 주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책망하여 그것을 깨닫게 하려는데 있습니다. 죄를 잘못"이나 "실수"로 취급하려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많이 서야하고, 예리한 책망 받기를 좋아해야 하며, 현재의 고난을 통해 자기 실상을 볼 수 있도록 성령의 비추임(illumination)을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모든 구원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진정한 구원에는 죄의 비참함을 깨달을 뿐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자이심을 깨닫는데 있습니다. 오직 그의 공로로만 구원받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2-23절에서 하나님은 멸망한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남은 자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볼 때에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무고히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와 말이니라".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힘으로
 무엇을 했다고 주장하며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어두움의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자기를 부인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이 예언은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길을
 마련해 주심으로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주님이십니다. 어떤 문제든지 주께 나가면 거기에 모든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그것은 오직 개인이
 믿어야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2-19절에는 네
 차례(14.16.18.20)나 노아, 욥, 다니엘이 중보 기도를 한대해도 응답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들도 자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들의
 공로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인격적인 일대일로 이뤄집니다.
 그리스도를 개인이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위대한
 의인이나, 욥처럼 모든 악에서 떠난 사람이나, 다니엘처럼 자기를 지켜
 거룩하게 사는 사람일지라도 남의 구원에 보태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믿음으로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통이나 가문이나 환경이나 분위기를 따라서 구원을
 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기를 오직 자기 개인이 자기의
 비참함을 알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신뢰하고 그를 믿음으로 받아 드릴 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교의 달에 이런 원색적인 복음의
 흐름이 여러분의 영혼에 선명해지기를 축원합니다.

Requirements for Salvation (Ezekiel 14:1-23) 2001.8.8 Wed

Like the New Testament Gospel, the Old Testament Book of Ezekiel also had the same teaching of “justification by faith” as justification by faith. When we meditate on chapter 14, we easily realize that the requirements for true salvation are as follows. First, true salvation must always begin with the realization of one's sin. Just as the first step in treating a sick person begins with the diagnosis of the disease, it is natural that the salvation of a sinner must first point out the problem of his or her own sin. In verses 1-11, when the idolatrous elders came to the prophet, God pointed out that the sins of the false prophets and the sins of those who were deceived by them were the same. This is an accurate evaluation of their reality before God. In this sense, God gave us the mirror of the law so that we can see ourselves as we really are. (Romans 3:19) The reason the Holy Spirit was given is to convict us of our sins and make us realize them. Modern Christians who want to treat sin as a "fault" or "mistake" must stand frequently before the mirror of God's Word, enjoy receiving sharp rebuke, and seek the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 to help them see their reality through present suffering.), because this is the first step to all salvation. Second, true salvation involves not only realizing the misery of sin, but also realizing that only God is our savior. You must know that in verses 22 and 23, God promised the salvation of the still remnant of Israel, “When you see their deeds and deeds, you will be comforted by them, and all that I did in Jerusalem was innocent. “And you will know that it is not,” declares the Sovereign LORD. Everyone is tempted by the darkness to claim that they have done something in their own strength and that they can do it in their own strength. But the Lord tells us to learn to deny ourselves in all things. This prophecy has finally been completed by providing a way to be saved. If you come to the Lord, you will find a solution to everything. This is

the gospel. There is still something left for us to do. The last thing is that true salvation can only be achieved if an individual believes. Noah, Job, and Daniel pray for intercession four times (14, 16, 18, 20). They said they would not respond, but they were saved through their own faith and their merits cannot affect others. Our salvation is always achieved through a personal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Christ. When an individual believes, even if he is a great righteous person like Noah, a person who shuns all evil like Job, or a person who keeps himself holy and lives a holy life like Daniel, he does not contribute to the salvation of others, but only by personally believing in Christ. Only then can salvation be achieved. It is easy for us to discuss salvation based on tradition, family, environment, or atmosphere. However, we can clearly say that true salvation is achieved only when an individual recognizes his own misery, trusts in the merits of Christ, and accepts him by faith. I hope that this unconventional flow of the gospel becomes clear in your soul during Mission Month.

안디옥 교회처럼 섬기자(행13:1-12) 2001.8.12

이방선교의 전초기지인 안디옥 교회는 피난민을 통해 복음을 먼저 받았고(11:20)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치는 섬김을 통해 더 견고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안디옥 교회에서 그 열매를 나타내더니 마침 내 소아시아, 유럽, 미국을 거쳐 한국에 증거 되어 오늘날에는 온 세계에 확산되었습니다. 한 이방교회가 믿음의 본을 가지고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세계의 빛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안디옥 교회가 진정 복음의 모델로서의 열매를 어떻게 나타냈는지를 보이는데 교회생활과 선교사역에 어떤 본을 보였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활동에 있어서 어떤 본을 보이셨는가요? 안디옥 교회는 여러 방면에 본이 되었습니다. (1) 화목의 본을 보였습니다. 교사와 선지자들의 이름을 보더라도 복음으로 하나가 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 라성 같은 5명의 지도자들 중에는 바나바처럼 작은 사람도 있었고 사울 처럼 논리적 이고 단호한 사람도 있었고, 시므온 같은 흑인도 있었으며, 마나엔처럼 왕 족 출신도 있었는데 그들 모두가 복음 안에서 한 성령을 받아 한 사람처럼 주님을 섬겼습니다. (2) 배움의 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충실했습니다.(12:22,27)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기도 하고 전도한 것처럼 그들은 그 가르침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3) 성령 의 뜻을 따르려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언제나 겸손히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 하는 교회였습니다. 선교사를 정할 때에도 기도했고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기도한 것을 보면 기도의 은사로 주님의 일을 이루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4) 무엇보다 그 교회는 주님 의 일에 헌신하는 교회였습니다. 가장 귀 한 것을 모두 다 참여하여 주 께 바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교회의 성장도 이런 아름다운 본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둘째, 선교활동에 있어서도 본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먼저 실루기아의 바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분명한 증거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말씀만을 증거했습니다. (7) 다른 것들은 모두 복음의 시녀가 되게 했고 오직 그리 스도의 말씀이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고넬료 가정에서의 베드로의 증거 와 같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죄 사함이 선교의 내용 이었습니다.(10: 36-43) 동시에 증거자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성 령의 인도를 받아 모든 문제를 극복했던 것입니다. (10-12) 반대하는 바에수라는 자를 보고 그를 책망했을 때 주의 손이 함께 함으로 소경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권위가 나타나 복음을 믿게 한것입 니다. 조용한 가운데 증거된 복음은 여전히 효력을 가져온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교회생활과 선교활동의 본을 따라서 우리교회도 이런 복된 성장을 가져오게 합시다.

Let's serve like the Antioch church (Acts 13:1-12) 2001.8.12

The Antioch church, an outpost of foreign missions, first received the gospel through refugees (11:20) and became stronger through the teaching and service of Barnabas and Saul. The gospel that began in Jerusalem showed its fruits in the church in Antioch and eventually Asia Minor. It spread through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to Korea and has now spread throughout the world. When a Gentile church lived as an example of faith, God used them as the light of the world. In today's text, I would like to think about how this

Antioch church truly showed fruit as a model of the gospel, and what kind of example it set in church life and missionary work. First, what kind of example did you set in church activities? The Antioch church was a model in many ways. (1) He set an example of harmony. Even when we look at the names of teachers and prophets, we can feel that they are united by the gospel. Among the five leaders, there was a kind person like Barnabas, a logical and firm person like Saul, a black person like Simeon, and someone from a royal family like Manaen. All of them received the one Holy Spirit in the gospel and became one person. I served the Lord. (2) There was a model for learning. They were faithful to the teachings of the prophets and apostles sent from Jerusalem (12:22,27). Just as the Jerusalem church received the teachings of the apostles, fellowshiped, prayed, and evangelized, they followed and obeyed the teachings. (3) There was a zeal to follow the will of the Holy Spirit. It was a church that always fasted and prayed with a humble open heart to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They prayed when selecting missionaries and prayed when sending out missionaries. There was an effort to accomplish the Lord's work with the gift of prayer. (4) Above all, it was a church devoted to the work of the Lord. There was a zeal to participate and dedicate everything that was most precious to the Lord. The growth of our church must follow this beautiful example and bear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Second, he also set an example in missionary work. They first had clear evidence when they preached the gospel at Paphos in Sileucia. They only testified the word. (7) Everything else became servants of the gospel and only the words of Christ were revealed. It was like Peter's testimony in Cornelius' home. The only content of the mission was Christ's death, resurrection, and forgiveness of sins. (10: 36-43) At the same time, the witness wa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I

overcame all my problems under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10-12)
When he saw an opponent named Bar Jesus and rebuked him, the hand of the Lord was with him and he became blind. Spiritual authority was revealed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nd led people to believe in the gospel. The gospel preached quietly remains effective. Let us bring about this blessed growth in our church by following the example of the church life and missionary activities of the Antioch church.

영혼 사냥꾼을 경계하라(겔13:1-23) 2001.8.1 수

사도 바울이 딤후전6: 11절에서 사냥꾼의 추격을 피해 도망가는 짐승같이 거짓교훈 들을 신속하게 피하라고 가르친 것처럼 에스겔 13장은 이스라엘이 망한 근본이유가 거짓교훈임을 지적하면서 영혼 사냥꾼'을 경계하라고 가르칩니다. 18절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 메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찐저 너희가 어찌하여 네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하느냐?"라고 책망한대로 우리는 거짓교훈의 화전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첫째, 어떤 모양으로 거짓교훈이 나타났는가? 남녀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은 세 가지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2.17) 첫째. 자기 마음 나는 대로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2, 3)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드 보라나 빌립 집사의 일곱 딸들이 한 예언은 일시적인 것이지 영구적인 것은 아니었으나 그 시대에 쓰신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디모데 전서의 바울의 가르침 대로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금합니다.(딤후전2:10-14) 둘째. 진실이 결여된 예언입니다.(5-6) 말로만 할뿐이지 자기 수고가 들어가지 않은 것은 거짓입니다. 진리는 수고를 통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세째, 이상한 기적이나 의식으로 나타났습니다. 허탄과 거짓된 점케로 예언하지만(3.6) 아무 것도 얻지 못하는 황무지의 여우처럼 방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자리를 지키지 못한 마귀와는 달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거짓 교훈을

분별해야만 합니다. 둘째, 거짓교훈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요? 18-19절에 영혼 사냥꾼으로 비유한 거짓 교훈은 우리 영혼에 치명상을 입힙니다. 거짓교훈은 영혼의 독약과 같기 때문 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거짓교훈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며 그의 호적이 제거 당하고 그 땅에서 쫓김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9) 그리고 거짓교훈은 우리 영혼을 파멸시킵니다. (18) 유다서에 보인대로 거짓교훈은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물 없는 구름이요, 죽어 또 죽어도 뿌리까지 말 라버린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바다의 거친 물결이며, 캄캄한 흑암에 들어간 유리 하는 별들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육적으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짓교훈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세째, 그러면 어떻게 거짓교훈에서 벗어날까요? 거짓교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길뿐이다.(20-23)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결코 거짓교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지적한대로 거짓교 훈에서 벗어나는 길은 먼저 자기를 믿음 위에 건축하고 다음에 불(거짓교훈)에 빠 진 이웃을 끌어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정말 이것은 맹렬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쫓 이 알기 위하여 진리를 찾아가는 순례자로 살기 바랍니다.

Beware of soul hunters (Ezekiel 13:1-23) 2001.8.1 Wed

Just as the Apostle Paul taught in 1 Timothy 6:11 to quickly avoid false teachings like an animal fleeing from a hunter, Ezekiel 13 is the fundamental reason for Israel's destruction. Pointing out that this is a false teaching, it teaches us to be wary of 'soul hunters'. Verse 18, 'Thus says the Lord GOD: 'Woe to you women who sew cushions on every arm and make kerchiefs for

the heads of tall and short, to hunt the souls of men! Why do you slay your people? "Do you hunt souls and try to save them for yourself?", we must know God experientially in order to escape the dagger of false teachings. First, in what form did false teachings appear? The lies of the male and female prophets The prophecy had three characteristics. (2.17) First, it was a prophecy that came from one's own heart. The prophecies made by the daughters were temporary and not permanent, but they were prophets who wrote in that era. As Paul taught in 1 Timothy, we forbid women to teach and dominate men. (1 Tim. 2:10-14) Second. It is a prophecy that lacks truth. (5-6) Anything that is only said in words but does not involve one's own efforts is false. Faith without works is itself dead. Unlike the devil, who prophesys with vanity and false predictions (3.6) but is unable to stay in his place and gets nothing, Christians teach false teachings. Second, what effect does false teaching have? In today's text, false teaching, likened to a soul hunter, inflicts fatal damage on our soul. Ezekiel said that anyone who follows false teachings will not be able to enter the council of God, will have his family registered, and will be chased out of the land. (9) And false teachings will destroy our souls. They are said to be reefs at a love feast, shepherds who feed only themselves, waterless clouds, fruitless autumn trees that have died and withered to their roots, rough waves of the sea, and wandering stars in pitch-black darkness. I hope you will break away from false teachings that bring disastrous results both spiritually and physically. Third, how do we escape false teaching? The only way to escape false teachings is still to know God. (20-23) You can never escape false teachings until you know God. Because only God is the truth. As Jude pointed out, the way to escape from false teaching is to first build yourself on faith and then pull out your neighbors

who have fallen into the fire (false teaching). This is truly a fierce fight. I hope to live as a pilgrim who seeks the truth to know God.

눈물의 떡(겔12;1-28)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말씀이 입하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한 에스겔을 보도록 하여 그들을 깨우치게 하셨습니다. 또 그로 일어서서 떨면서 물을 마시게 하고 떡을 먹게 함으로 장차 당할 일의 징조가 되게 했습니다. (6절)

여기서 우리는 진노 중에라도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시고 깨우 치시고 돌이키도록 하려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 사랑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났나요? 첫째, 끝까지 사랑하는 자상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1-15절에서 우리는 아무리 패역한 족속일지라도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극한 사랑의 눈길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보며, 그 사랑이 복음 안에서 더 밝히 드러나는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는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으시는 성자의 사랑과 잃은 한 드라크마를 찾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잃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밤낮 기다리시는 성부의 뜨거운 사랑을 봅니다.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무리 패역한 자리에 있다할지라도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질병일 수도 있고, 자동차 사고일 수도 있고, 풀리지 않는 사람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자리라 할지라도 곁에 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을 바라 보아야 합니다. 둘째, 여기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주님의 손길을 봅니다. 17-20절에서 우리는 강포로 인해 고생의 떡을 먹게되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하려는 그분의 뜻을 봅니다. 하나님을 알게하려고 고생을 당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징계로 받는

고난이든지 섭리 로 받는 고생이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될 때 온전한 인격으로 바른 인생을 살게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길을 가셨으며 (벤전12:22-25) 또한 교회가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고 가르쳤습니다.(딤후1:8,2:3,4:5) 이 얼마나 놀 라우신 사랑인지 모릅니다. 어느 하나도 허비되는 앓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셋째, 자기 백성을 향한 목시를 신속히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날이 더디고 모든 목시가 응험이 없다" 는 속담이 팽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첫 증거입니다. 계시 인 성경을 믿지 앓는 자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계시인 성경의 완 전함을 믿음으로 영혼이 소성되며 그 말씀의 확실함과 정직함과 순결함을 맛봄으로서 기쁨 충만한 마음과 밝은 영안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 겠습니다.(시19:7-14) 고통하는 말세, 진리지식을 떠나기를 좋아하는 때를 맞아 하나님의 자상 한 사랑으로 임하는 자상한 계시의 빛을 잘 따라감으로 고난 속에서도 하 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Bread of tears (Galatians 12:1-28)

Ezekiel received the revelation of the Word from God five times. He enlightened them by having them look at Ezekiel, which showed Israel being taken captive. He made him stand up and tremble and drink water and eat bread as a sign of what was to come. (Verse 6) Here we see the Lord not withholding His loving hand toward His people even in His wrath, but trying to enlighten them and make them turn back. How did that love appear? First,

we see a caring God who loves us until the end. In verses 1-15, we see the merciful hand of God, who does not give up on his people no matter how rebellious they are, but looks upon them with utmost love, and discovers that this love is revealed more clearly in the gospel. In Luke 15, we see the Son's love for a lost sheep, the Holy Spirit's love for a lost coin, and the Father's passionate love as he waits day and night for his lost son to return. Because of that great love, no matter how rebellious we are, we can stand up again with courage. Sometimes this may be a disease, a car accident, or an unresolved relationship. Even if all hope in the world has been cut off, we must look into the loving gaze of Almighty God who is by our side. Second, here we see the Lord's hand to help us know God through suffering. In verses 17-20, we see His will to experientially know God through Israel, who are forced to eat the bread of His suffering through violence. It means that we suffer in order to know God. When you come to know God experientially through suffering, whether it is suffering as punishment or as a result of providence, you will be able to live a righteous life with a perfect character. Jesus went this way (1 Peter 12:22-25) and also caused the church to go this way. So, Paul taught the church to suffer along with the gospel (2 Tim. 1:8, 2:3, 4:5). You have no idea how amazing this love is. Let's live a life where nothing is wasted. Third, we see a faithful God who quickly fulfills His vision for His people. At that time, the proverb was prevalent in Israel: "The days are slow and all visions are unfulfilled." This is the first evidence against God. Those who do not believe in the revelation of the Bible are bound to fall. By believing in the perfection of the Bible, which is a special revelation, our souls are revived, and by experiencing the certainty, honesty, and purity of the Word, we must live as people with a heart full of joy and bright spiritual eyes (Psalm 19:7-14). As

we face the suffering of the last days, a time when people prefer to leave behind the knowledge of the truth, I pray that they will become victorious saints who discover God's hand even in suffering by following the light of the tender revelation that comes through God's tender love.

새 마음을 주리라 (겔11:1-25) 2001.7.18 수

본문은 예루살렘이 당할 위협을 마치 고기가마에서 고기를 끄집어내는 것에 비유 했습니다. 고기가마가 예루살렘 성이라면 고기는 이스라엘백성이며 끄집어내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1-13) 공홀과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께 그런 끔찍한 심판을 받는 사람이란 그 자신에게 도무지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존재임을 배웁니다. 그래서 참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일방적인 은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3:15, 빌1:6)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모으시고 그들 속에 새 신을 주어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는 회복의 예언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우리는 11장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새 역사를 이루신다고 했는지 살펴봅시다. 첫째, 절망적인 자리에서라도 새로운 시작을 하실 것입니다. 1-13절에는 이스라엘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이 이상을 받고 있을 때 영적 지도자들 중 한 사람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고 또한 바벨론의 침략으로 온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읍이 끓는 가마 속의 고기 같다는 하나님의 두려운 경고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남은 이스라엘에게까지 심문하시는 것을 보면(10-12) 구원뿐 아니라 심판에 있어서도 지극히 세심하시며 두려운 분이심을 알게됩니다. 그러나 이런 비참한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시는 구원이기에 공로 없는 우리라 할지라도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름 받은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다가 징계를 받아 고기 뱃속에 들어갔 습니다. 거기서 3일간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가 될 줄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떤 절망 이라도 새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둘째, 새 마음을 주심으로 새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19절에서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새 역사를 봅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부어주심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언제나 새로운 일의 시작인데, 여기서는 두 가지 마음, 일치하는 마음(undivided heart) 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안에서 하나님과 일치가되고 사람 과의 화목하는 마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heart of flesh)이란 굳은 마음을 제한 살 같은 마음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회개 하고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겸손과 온유한 마음 곧, 주님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아름다운 마음, 생명이 약동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바로 이런 마음만이 주님이 주목하는 새로운 역사입니다. 수 천년전의 이스라엘을 통해 보여주신 교회부흥은 지금도 성령님의 역사로서 시작되기에 주님을 바라 보고 내 속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나도록 진정으로 회개합시다.

I will give you a new heart (Ezekiel 11:1-25) 2001.7.18 Wed

The text compares the threat to Jerusalem to pulling meat out of a meat pot. If the meat pot is the city of Jerusalem, the meat is the Israelites, and being taken out refers to the state of Israel being held captive by Babylon. (1-13) We learn that a person who receives such a terrible judgment from God, whose mercy

and wisdom is endless, is someone who can never hope for hope. So true salvation always begins with God's absolute and one-sided grace. (Genesis 3:15, Philippians 1:6) Their only hope was the prophecy of restoration that would bring Israel together from among all people, give them a new spirit, remove their hard hearts, and change them into soft hearts. Let us look at how the Lord says in chapter 11 that he will accomplish new history. First, you will make a new start even in a hopeless position. Verses 1-13 show the fact that Israel had no choice but to despair. While Ezekiel was receiving a vision, an incident occurred in which one of the spiritual leaders died, and there was also a fearful warning from God that all Israel and the city of Jerusalem would be like meat in a boiling pot due to the Babylonian invasion. Finally, when we see God questioning the remaining Israelites who were taken captive to Babylon (10-12), we learn that He is extremely attentive and fearful not only in salvation but also in judgment. However, God promised that he would personally restore Israel, even if it was in such a miserable situation. Our salvation is like this. Because salvation is initiated, carried out, and accomplished by God, we can have courage even if we have no merit. Jonah, who was called, disobeyed God's command and went to Tarshish, but was punished and put into the belly of a fish. I experienced amazing grace there for three days. No one knew that that very place would be a place to offer a sacrifice of thanks and experience the grace of salvation. Let us praise the Lord who can start a new job no matter the despair. second. By giving us a new heart, He will create a new history. In verse 19 we see God's new work toward Israel, which was in a place of despair. This is achieved through the pouring out of the Holy Spirit.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s always the beginning of something new, and here he is said to give us two hearts, a

united heart and a tender heart. It is a heart that is united with God in Christ, a heart that is at peace with others, and a heart that is only for the glory of God. A heart of flesh is a heart like flesh, excluding a hard heart. This refers to the humble and gentle heart given to those who repent and believe through the work of the Holy Spirit, the heart of the Lord. It refers to a beautiful heart that is satisfied only with God, a heart that is vibrant with life. Only this kind of heart is the new work that the Lord pays attention to. The church revival shown in Israel thousands of years ago still begins with the work of the Holy Spirit, so let us look to the Lord and truly repent so that revival can arise from within.

그룹들의 사역 (겔10:1-22) 2001.7.11 수요일

에스겔이 본 그룹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네 생물(고급천사)로서 (겔1:8) 보좌에 계신 분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 성의 심판을 수행했습니다. 가는 베 옷을 입은 그룹 이 제단에서 불을 받아 예루살렘 성읍에 흘리는 것과(1-8)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의 보금자리라 할 수 있는 성전을 떠나는 두려운 심판을 볼 수 있습니다. (9-22) 우 리는 이 심판 시행 시, 부단히 섬기는 그룹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어떻게 효력있게 섬기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거의 매 절마다 그룹이란 말이 나온 10장에서 두 가지 섬김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룹들은 하나님의 구속을 중심하여 섬겼습니다. 구속(구원)이란 하나님 의 일하시는 모든 일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만들 때도 구속을 염두에 두셨 고 피조물을 다스림도 이 구속을 중심하여 이끄셨으며 마침내 이 세상 역사는 구속 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본문에 구속이란 말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그룹 들이 섬긴 것이 바로 구속 중심한 사역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18-19절에 그룹위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The Glory of God) 이란 하 나님의 임재의 표현이며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현현(Theophany)을 가리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성경과 비교할 때 이 영광은 여호와와 신이신 성령의 영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1:2절에 혼돈하고 공허한 깊은 흑암 위에 운행한 여호와와 신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예배중심인 성막을 완성할 때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영광도 바로 성령의 영광을 가리킵니다.(출40:34-35) 마침내 육신을 입 고 오신 예수님 안에서 이 영광은 충만했고(요1:14)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 천으로 교회 위에 임하신 성령은 바로 이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광을 봄으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변화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후3:18) 그룹 위에 있기도 하고, 성전 문지방 위에 있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소를 떠나 위로 올라간 하나님의 영광의 움직임을 따르는 삶이 구속 중심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룹의 섬김처럼 구속을 따라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둘째. 그룹들은 순종일관하여 섬겼습니다. 그룹들의 섬김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얼마나 일사분란하게 섬기는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들의 모습자체가 순종자의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네 얼굴을 가진 네 생물이 사람의 손이 가득 찬 네 날개를 가지고, 눈이 가득 찬 네 바퀴를 그 밑에 가진 그룹은, 표현하기 어려운 생물이지만 분명한 한가지 사실은 서로 연합되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순종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입니다. 그룹들이 신속하고 정직하고 위엄 있게 순종하는 것을 보면 조금도 빈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철저히 연합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님에 대한 순종이란 이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내일로 미루고, 자기 마음 나는대로 교회를 섬긴다면 순수한 순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주의 뜻이라면 즉각 하던 일을 멈추고 순종하는 과감한 결단이 있을 때 순종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순종으로 시작하여 순종으로 마치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야 하겠습니다. 순종이 기적이며, 순종이 성령충만이며, 순종 자체가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경지에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 * 그룹의 섬김에서 우리는) 중심한 ()의 섬김을 배웁니다.

Ministry of the groups (Ezekiel 10:1-22) Wednesday, July 11, 2001

The cherubs that Ezekiel saw were the four living creatures (high-ranking angels) in the Book of Revelation (Ezekiel 1:8), who carried out the judgment of the city of Jerusalem according to the will of the One on the throne. We can see the fearful judgment of the cherub dressed in linen receiving fire from the altar and scattering it over the city of Jerusalem (1-8), and the glory of God leaving the temple, which can be called the home of Israel. (9-22) When this judgment is carried out, we can learn how to effectively serve the gospel given to us through the groups that constantly serve. In chapter 10, where the word group appears in almost every verse, we see two types of service. First, the cherubim were centered around God's redemption. Redemption (salvation) is the center of all God's work. When God created all things, He had redemption in mind, and His rule over creation was guided by this redemption, and ultimately, the history of this world will be completed through redemption. Even though there is no word redemption in the text, it indicates that the cherubim's service according to the "glory of God" is a ministry centered on redemption. So, in verses 18-19, "The Glory of God" above the group refers to the expression of God's presence and the manifestation (Theophany) of God Himself. In other words, compared to other Bibles, this glory is Jehovah. It can be seen as the glory of the Holy Spirit, the God of God. In Genesis 1:2, the Spirit of Jehovah hovering over the chaotic and empty depths of darkness was the glory of God, and the glory of God that filled the tabernacle, the center of Israel's worship, was also the Holy Spirit. It refers to the glory of (Exodus 40:34-35). This glory was fully fulfilled in Jesus who came in the flesh (John 1:14), and the Holy Spirit who came upon the church through the death, resurrection, and ascension of Christ is this glory. Therefore, as we see

that glory, we are gradually transformed into the image of Christ (2 Corinthians 3:18). We are on the cherub and on the threshold of the temple, and the movement of God's glory leaves the sanctuary of Jerusalem and ascends upward. Second, we must serve the Lord according to redemption just like the service of the cherubim. When we look at the cherubim's consistent service, they obey God's commands. It is amazing that their appearance itself is a cherub with four faces, four wings full of human hands, and four wheels full of eyes. Although it was a difficult life, one thing that is clear is that the cherubim were united with each other and focused on obeying God's glory without any flaws. Because we are thoroughly united, obedience to the Lord must be done quickly, making excuses and putting it off until tomorrow, and serving the church as you please cannot be called pure obedience in any situation. When you make the bold decision to immediately stop what you are doing and obey, you can enjoy the grace given to the obedient. We must all build the Lord's church by living the most blessed life, starting with obedience and ending with obedience. I pray that we become saints who enter the state where obedience is a miracle, obedience is the filling of the Holy Spirit, and obedience itself is an indescribable grace. (*) * From the service of the group, we learn the service of) centered ().

성전에서 시작되는 심판 (겔9:1-11) 2001.7.4 수

성령의 인도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본 에스겔은 동시에 심판받는 이스라엘의 죄 악을 바라보고 탄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보지 않는다고 하며 행하는 불 법이 성읍에서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까지 가득 찼으며 일반백성 뿐 아니라 제사장들과 장로들까지 배반한 사실에 더욱더 경악을 금치 못하며 극심한 심판 중 에 홀로서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해지는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 하며 우는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가라지 와 알곡의 구분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분명해지듯이 우리가 사는 종말시대의 심판 도 더욱 더 분명해지는 것을 여기서 배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종말 심판은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알아봅시다. 첫째, 그 심판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옵니다. 3절에 그룹(천사들)에 머물러 있던 여호와와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러, 일곱 천사들(성읍을 관할하는 자)에게 이마 에 표하지 않은 자들은 남녀노유 할 것 없이 성소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 성읍에. • 돌아다니면서 다 쳐서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유월절 어린양의 피가 발린 집은 넘어가면서 애굽의 처음 난 것은 다 죽이던 그때와 동일한 심판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심판은 반드시 일어나고 즉각적이며 또한 전면적입니다.(8) 그리고 이 심 판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거절한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9)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온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비상경보음이 울릴 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신속한 행동을 취하고 경계해야 우리들의 불신앙의 죄를 즉시 회개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심판자 주님께 돌이키며

그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겠 습니다. 둘째, 그 심판은 분명한 구별을
 가져옵니다. 본문에서 심판이 좁은 문과 넓은 문,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육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누어지듯이 흑백으로 나 누어져서
 시행되는 심판을 봅니다. 인 맞은 자 외에는 모두 심판을 받는 것처럼, 그
 리스도안에서 분명한 인을 가진 자만이 마지막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인 맞은 자의 비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계3: 12, 7:3, 94, 14:1, 22:4)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은 창세
 전의 선택하심으로 시작되고 (롬8:29-30)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구분시키시고(고전12:13) 그들의 삶을 통해 확 연히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보좌에서 나온 심판은 이 땅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날이 갈수록
 구분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
 거를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까?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주를 섬기고
 사랑하여 그의 가르침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삶의 증거가
 분명하십니까? 셋째, 이 심판은 성전에서 시작됩니다. 성전이란
 여호와의 집이며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은 교회를 중심한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통 믿는 자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병아리가 암탉을 품듯이 사랑하고
 보호하시 며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 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며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기에 그의 심판은 말 한마디 한
 것까지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 은 밀한 중에 행한 것도 마음중심을
 보시며 베푸시는 철저한 공평한 심판이 될 것입 니다. 믿는 자에서부터
 시작되는 심판을 생각하고 이제 우리는 책망의 말씀을 받 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대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언행심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뒤를 쫓아 올 것임을 깨닫고 근신하며 깨어 있는 신자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Judgment begins at the temple (Ezekiel 9:1-11) 2001.7.4 Wed

Ezekiel, who looked at the spiritual world under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simultaneously looked at the sins of Israel being judged and lamented. We are even more astonished at the fact that God has abandoned us and is not looking at us, and that the law we practice has filled the city and the temple where we worship God, and that not only the common people but even the priests and elders have betrayed us. I knew. But there was a group of people who had received the mark on their foreheads who were sighing and weeping because of these abominations that were being done. As in Jesus' parable, we learn here that just as the distinction between weeds and wheat becomes clearer day by day, the judgment of the end times we live in also becomes clearer. So, let's find out how Israel's final thoughts occurred. First, the judgment comes from the throne of God. In verse 3, the glory of Jehovah, which was resting on the cherubs (angels), reached the threshold of the temple, and the seven angels (those in charge of the city) commanded all who did not have the mark on their foreheads, regardless of age or gender, starting from the sanctuary and going to the city of Jerusalem. • He ordered them to go around and kill everyone. This was the same judgment as when all the firstborn in Egypt were killed, while passing over the houses covered in the blood of the Passover lamb. Therefore, this judgment must occur, is immediate, and is comprehensive. (8) And this judgment occurred because of

the sins of the leaders who rejected God's infinite mercy. (9) The judgment from God's throne has already begun. When the emergency alarm sounds, we must come to our senses, stay awake, take prompt action, and be alert. We must immediately repent of our sin of unbelief, turn to the Lord, the merciful judge, and obey His commands. Second, the judgment brings about a clear distinction. In the text, we see the judgment being carried out divided into black and white, just as the judgment is divided into the narrow door and the wide door, the desires of the flesh and the desires of the Holy Spirit, the resurrection of the flesh and the resurrection of judgment. Just as everyone except those who are sealed will be judged, only those who have a clear seal in Christ can escape the final judgment. So, in the Book of Revelation, Christians are explained using the parable of a person who was sealed. (Revelation 3: 12, 7:3, 94, 14:1, 22:4) In fact, God's salvation begins with selection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Romans 8:29-30) and is distinguished by receiving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1 Corinthians 12). :13) It is clearly revealed through their lives. In this way, the judgment that comes from the throne is distinguished on this earth in very specific ways day by day. Dear believer, do you have clear evidence that you are a child of God? Is there clear evidence of a life of serving and loving the Lord as a citizen of heaven, listening to, understanding, and obeying His teachings? Third, this judgment begins in the temple. The temple can be said to be the house of Jehovah and the throne of God on earth. The fact that judgment begins in the temple indicates how important it is to live a life centered on the church. Jehovah's eyes are all on believers. He protects you like the apple of an eye, loves and protects you as a chick embraces a hen, does not break a bruised reed, does not snuff out a dying wick, and waits for a thousand years

as if it were a day. His judgment is as good as a single word or a bowl of cold water. Even what you did in secret will be judged with complete fairness by looking at your heart. Considering the judgment that begins with believers, we must now be willing to receive words of rebuke. We must live a life before the fearful judgment seat of God. I pray that we live as sober and alert believers, realizing that our words and actions will be judged before the judgment seat of God.

투기의 우상 (겔8:1-18) 2001.6.30. (수)

투기의 우상이란 3절, 하반절의 설명대로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이란 뜻이다. 하+ 대기) 아나분의 사람을 표지2 % 라 의 교호와 정한 사, 표 승 다. 출20:5. 34:14. 신4:24. 신6:15. 수24:19에 자기를 거스리고 대적하며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향해 나 여호와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이라 했고, 야고보서 4:5절에도 세속에 치우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고 했으며 요한복음2: 17절에도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과 강도의 굴혈로 만든 것을 보고 투기가 격발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 보지 아니하고 공흘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18)라고 하신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우상은 어떤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살펴보자. I. 먼저. 오늘날의 투기의 우상은 어떤 것이 있나? 우상이란 헛되다는 뜻이다. 2 계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기든지 아니면 우상 을 섬기게 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인생은 부패하여 우상을 섬기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헛된 것을 좋아하는 인간의 탐욕은 형태만 다를 뿐이지 여러 모양의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기를 좋아한다. 이것이 무엇이든지 주님보다 앞 서거나,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상이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는가? 첫째, 명예우상이다. 오늘날 사람 들이 명예에 살고 죽는 것은 첫째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동기와 목적에서 죄 를 범했기 때문이며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죄악이 교만이며 가장 복된 마음이 겸손인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자존심을 미화시킴으로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데 이는 로마시대의 인간주의의 산물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섬김을 보여주심으로서 오직 아버지만을 섬기도록 가르쳐주셨다. 둘째.
 물질우상이다. 몸소 물질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우리에게 물질이란
 언제나 우리를 부패하게 만드는 죄악의 아 지트가 되기 쉽다. 그래서
 바울은 부하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경계해야 할 제일의 요소로
 말했다. 예수님도 의식주의 염려와 근심을 경계하시면서 물질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하시면서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주님에게
 드림으로서 이 우상을 이기게 하셨다. 세째로 신비주의 우상이다.
 연합을 강조하다보니, 신 령한 세계를 빙자하여 이런 것으로 묶어
 버리려고 한다. 뉴 에이지 운동이나 요 가 운동은 물론이거니와
 포스터모던 운동도 여전히 신비운동과 손을 잡게 되어있 다. 오늘날
 PCUSA 교단의 동성연애자의 안수 결정은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다보
 니까 그 일에도 서슴치않고 찬성투표를 던진 현상이다. 이런 투기의
 우상으로 가득 찬 시대에 여전히 그리스도를 높이는 운동이 아니면
 바벨탑 운동이라는 사실 을 알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 II. 자유와 해방의 길은 무엇인가? 본문에서 이런 투기의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가지 길을 보인다. 1) 신령 한 세계를 보아야
 한다. 영적 세계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세계 곧, 하나님나라 이다. 이
 나라를 보는 것이 권능을 받는 것이다.(2-3) 권능을 받으면 그 세계를
 의식하고 그 세계를 아는 것이다. 에스겔은 불같은 형상'을 보았다.
 이집은 리 스도를 거룩하고 신속하게 섬기는 그룹으로 우리로 우상을
 멀리하도록 본을 보인 다. 이런 세계를 보는 자만이 우상의 유혹을
 이긴다. 2) 현실을 분별할 수 있어야한다.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는 현장을 보게 하셨다. 이 세대를 분별하려면 먼저 헌신이 기본이다(롬12:1-2). 애매 모호한 시대를 통 과하는 우리들은 분명한 선을 그릴 필요가 있다. 이 분별력이 황무한 땅에서 치료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Idol of Jearosy (Ezekiel 8:1-18) 2001.6.30. (number)

As explained in verse 3, second half, the idol of speculation means “an idol that provokes speculation.” Ha + waiting) 2% of the people of Anabun, the alternating course of D, the four, the vote wins. Exodus 20:5. 34:14.

Deuteronomy 4:24. Deuteronomy 6:15. In Joshua 24:19, he said to Israel, who rebelled against him and opposed him, and served other idols, “I am the Lord your God, I am a jealous God,” and in James 4:5, he said to Christians who are biased toward the world, “God is a jealous God.” “The Holy Spirit who dwells in us longs with envy,” and in John 2:17, we can see Jesus becoming envious when he saw that his Father’s house had been turned into a merchant’s house and a den of robbers. “Therefore, I also Let’s take a look at what idols God, who says, “I will repay you with anger, will not spare you, nor will I show you mercy” (18), so dislikes, and how we can escape from that position. I. First. Today’s idols of speculation are. What does an idol mean? The reason why it is said in the 2nd commandment that we must either worship God or serve idols is because human life is corrupt and likes to serve idols. They only have different forms, but they like to make idols of various shapes, bow to them, and serve them. Whatever it is, if it is before the Lord or if it is loved more than the Lord, it is an idol. First, what kind of idol is it for modern people? The reason people today live and die in honor is because the first Adam sinned with the motive and purpose of becoming like God, and

that is why our greatest sin is pride and our most blessed heart is humility. Second, by showing service, our Lord taught us that we cannot live apart from material things. It is easy to become a hideout for sin that corrupts us, so Paul said that the desire to be rich is the number one factor that a man of God should guard against, and Jesus also cautioned against concerns about food, clothing, and shelter, and where there is materiality, there is also your heart. He said, "He overcame this idol by giving the best thing to the Lord first." Thirdly, it is a mystical idol. As they emphasize unity, they try to tie it together under the pretense of a spiritual world. Not only the New Age movement and the yoga movement, but also the postmodern movement still join hands with the mystical movement. Today, the PCUSA denomination's decision to ordain homosexuals is a phenomenon in which people do not hesitate to vote in favor of the ecumenical movement. In an age filled with these speculative idols, let us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knowing that if it is not a movement that exalts Christ, it is still a movement to the Tower of Babel. II. What is the path to freedom and liberation? The text shows two ways to escape from this idol of speculation. 1) We must see the spiritual world. The spiritual world is the world ruled by God, that is, the kingdom of God. To see this kingdom is to receive power. (2-3) When you receive power, you become conscious of that world and know that world. Ezekiel saw a fiery image. This group serves Christ in a holy and prompt manner, setting an example for us to stay away from idols. Only those who see this world can overcome the temptation of idols. 2) You must be able to discern reality. God led him to see the scene of Israel's idolatry. To discern this generation, discernment is fundamental (Romans 12:1-2). As we pass through

ambiguous times, we need to draw clear lines. This discernment is what achieves the history of healing and revival in a barren land.

비상한 재앙의 시대를 대비하라 (겔7:1-27)

오늘 본문에서도 과거나 현재나 항상 같은 방법으로 죄악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에덴동산에서의 아담과 이브의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벌로 임한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부조화현상도, 노아때 인간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창6:5) 행한 홍수심판도 죄악이 심히 중하고 관영하여 동성애의 죄(창19:4-5)까지 있었던 소돔 고모라에 대한 유향과 불의 심판도, 시내산 기슭에서 금송아지 우상 때문에 백성중 3천명 가량 죽이신 하나님의 심판도 동 일하게 언약의 파기 문제 때문이었다. 오늘 나오는 유다 말기도 여전히 하나님의 관 심은 언약 지키는 문제여서(1-4) 파기 시에 7절에 "비상한 재앙" (an unheard of disaster)이 임한다고 했다. 그래서 오늘은 언약을 파기한 자에게 어떤 재앙이 미치 며, 거기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 가를 생각하고자 한다. I. 이스라엘 위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 언약의 생명인 신실성을 파기한 이스라엘에게 임한 재앙은 어떤 것이었나? 본문 에는 재앙의 네 가지 특성이 나온다. 첫째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재앙이었다. 에스 겔은 그 날을 정해진 임박한 재앙"(7,10)이며, 끝날(1-4)이라 했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라 했다.(8)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이런 마지막 날 재앙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근 신해야 한다. 둘째, 그것은 기근으로 나타났다. 15절에 천재지변을 통해 진노하신다. 아합시대의 극심한 가뭄 뒤에 온 기근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징계였다. 우리는 영적 기근을 막기 위하여 미리 기도하자. 셋째, 그것은 질병(온역)으로 나타났다. 전 염병은 하나님의 진노의 한 수단이다.(신28:27) 불순종할 때 찾아오는 징계는 애굽 의 모든 질병을

우리 몸에 부으심이다.(신28:58-68) 뿔히고 흡으시고 떨게 하고 쇠 하게 하신다. 오늘날 에이즈는 하나님의 내버려둠으로 오는 저주임에도 회개할 줄 모르고 도리어 삶의 한 방법이라고 합리화시키고 있지 않은가. 진노가 임하기 전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는 주님의 음성에 즉각 귀를 기울이자. 넷째, 그것 은 칼(외적 침략)로 나타났다.(24) 언약백성인 구약의 이스라엘도 이런 심판과 진노로 다루셨다면 오늘날 우리 역 시 하나님과의 언약 파기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언약의 파기로 인한 그리스도인의 타락은 다름아닌 그들의 마음이 다른 곳에 드러지는 우 상송배로 귀착되기 때문이다. 무너진 가정과 예배의 회복과 또 가정과 교회의 진리 파수를 위해 그리고 가정의 치료를 위해 기도하자. II.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길 이런 온갖 재앙과 외적의 침략으로 전혀 소망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빨리 그 자리에서 회복할까? 26-27절에서 우리는 세 가지 회복의 필요성을 느낀다. 1) 성령 의 꿈을 가져야한다. 선지자에게 묵시가 없는 시대라 했다. 묵시가 없다는 것은 예 수님의 중심 되심을 믿지 않고 또한 성령의 꿈도 없어 인생의 갈 방향을 잃어버렸 다는 것이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 남종과 여종은 예언하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어야한다. 2) 말씀으로 돌아 가야 한다. 제사장에게 율법이 없어진다 했다. 율법은 기준인데, 타락한 세상은 성경을 천대하며 점점 더 성경을 읽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 여 삶에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자이다. 3)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한다. 장로들은 모락이 없어졌고, 왕은 애통하고, 백성은 다. 영적인 지혜와 권위에 대한 순종이 다 없어진 그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한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과 그의 주신 권위에 순종하는 자로 삼시다.

Prepare for an era of extraordinary disaster (Ezekiel 7:1-27)

In today's text, we encounter God, who always deals with sin in the same way, whether in the past or present. The phenomenon of disharmony between God and humans, humans and humans, and humans and nature, which was punished by Adam and Eve for their disobedience to God in the Garden of Eden, was also reflected in the phenomenon of disharmony between humans and humans at the time of Noah, "when he saw that the thoughts of humans were always evil" (Genesis 6:5)) The judgment of the flood, the judgment of sulfur and fire on Sodom and Gomorrah, whose sins were so serious and widespread that they even committed the sin of homosexuality (Genesis 19:4-5), and the judgment of about 3,000 of the people killed at the foot of Mount Sinai because of the golden calf idol. God's judgment was equally due to the problem of breaking the covenant. In the last verse of Judah, which appears today, God's interest is still the issue of keeping the covenant (1-4), so when it is broken, verse 7 says that "an unheard of disaster" will come. So today, I would like to think about what kind of disaster comes to those who break the covenant and how they can recover from it. I. God's Wrath on Israel What was the disaster that came upon Israel, which broke its faithfulness, the life of the covenant? In the text, four characteristics of disaster appear. First, it was a disaster appointed by God. Ezekiel called that day "an imminent disaster that has been determined" (7,10), the last days (1-4), and the day of God's wrath (8). We must keep in mind these last-day disasters that no one can escape. Second, it appears as a famine. In verse 15, the famine that followed the severe drought during Ahab's time was ultimately God's punishment in advance. Third, it appeared as a disease (pestilence). The epidemic is a means of God's wrath. (Deuteronomy 28:27) The punishment that comes when we

disobey is pouring all the diseases of Egypt on our bodies. (Deuteronomy 28:27) :58-68) Today, even though AIDS is a curse that comes from God's abandonment, we do not know how to repent, but rather we rationalize it as a way of life, saying, "You and your children." Let us immediately listen to the voice of the Lord saying, "Weep for him." Fourth, it appeared as a sword (external invasion). (24) If Israel in the Old Testament, the covenant people, was also treated with this kind of judgment and wrath, we too today are subject to the covenant with God. We must know that breaking the covenant brings serious consequences, because the fall of Christians leads to idolatry in which their hearts are devoted elsewhere, as well as the destruction of the broken family and worship. Let's pray for and for the healing of the family. How do we quickly recover from the situation when there is no hope due to all kinds of disasters and invasions from external enemies? 1) We need to have the dream of the Holy Spirit. It is said that it is an era without apocalypse, which means that we do not believe in the centrality of Jesus and have lost the direction of our lives. 2) By receiving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given to those who sincerely desire it, male and female servants must prophesy, young people must see visions, and old people must dream. It was said that the law would disappear from the priests. The law is the standard, but the fallen world despises the Bible and reads it less and less. Blessed people are those who meditate on the Bible day and night and bear fruit at the right time in their lives. 3) He must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The elders have lost their counsel, the king mourns, and all the people. When all spiritual wisdom and obedience to authority are gone, we must boldly approach the throne of grace and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This is because the Lord is still

preparing and waiting for the grace we need. Dear saints, let us live as obedient to God and the authority He has given us.

지금 여호와를 알자! (겔6:1-14)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산들, 작은 산 들, 골짜기, 시내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하는 온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멸되고, 시체가 제단사이에 넘치게 될 것을 예언하면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했다. 4번이나 반복해서."너희가 나를 여호와인줄 알리라(You know that I am the Lord)"(7,10,13, 14)는 말씀을 통해 여전히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 사랑하며 경배하며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심정을 발견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그네 같은 그리스도인의 목표임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자. I. 위로부터 임한 말씀을 잘 받을 때 알 수 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 거민들을 쫓아내 주실때에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우상을 금 하는 방법을 제시하셨다. 즉 이방인과 언약을 맺지 말고, 이방 결혼을 금하고, 우상 의 단을 헐어버리는 행동을 요구하셨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시내산에 두 번째 강림하신 하나님은 그들 앞에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로라"(6)고 반포하셨다. 그리스도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주장하셨다. 본문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는 에스겔석의 반복되는 공식과 같은 문구로써, 하나님만이 모든 계시의 근원이 된다는 뜻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를 알게 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환상을 보았어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 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 이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만을 사랑하는 바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란다. II. 하나님 편을
 선택함으로서 알 수 있다. 하나님은 강압적인 주임보다도 선택의 길을
 주심으로 배우게 하신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문제는 언제나 선택의
 문제였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 하나님 편을 선택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들을 불러내신 하나님은 복사판 을
 만들듯이 강압적으로 하시기보다 그들 앞에 두 길을 두심으로
 인도하신다. 좁은 길과 넓은 길, 우상과 하나님, 자기와 하나님 중 하나를
 선택하라 하신다. 여호수아 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고 했고 모세는
 "헌신된 사람, 하나님 편에 선 자"에 관심이 있었으며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관심도 여전히 자기나 주님이냐에 있으셨다. 우상을 선택한
 이스라엘의 마지막은 온역, 기근, 칼이었다. 14절에는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 거하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볼라까지
 처량하고 황 무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줄 알리라"고 했다.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아 닌 그리스도를 언제나 선택함으로 순종할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알 게 되고 그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II. 두려운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본래
 하나님을 앎으로 시작한 구원(마16:16이하)은 그를 깊이 알고
 순종함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 가는데, 매 맞기 전에 그를 잘 알고,
 즐기는 사람이 되어 야 한다. 이것은 언약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과 언 약을 세우신 하나님이 경배(Worship)

와 축제(Festival)를 같이 원하셨던 것처럼 진 정한 경배를 원하셨기에
절투하기까지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신다. 진정한 즐 거움을 누리게
하려고 절기를 매년 지키는 훈련을 하게 하셨다. 진정한 축제는 오 직
주님을 아는데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만날만한
때에 찾으며 가까이 계실 때 부르시 기 바란다. 그를 알려고 사모하며
골방을 찾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는 모세처럼, 물 떠온 하인들처럼
정오의 빛처럼 그 풍성한 세계를 알게될 것이다.

Let's know Jehovah now! (Ezekiel 6:1-14)

Ezekiel, who received God's word, prophesied to the Israelites that Israel's mountains, hills, valleys, streams, and the entire land where Israel lives would be destroyed by God's judgment, and that corpses would overflow between the altars, urging them to repent. urged. Repeated four times. Through the words, "You know that I am the Lord" (7, 10, 13, 14), he still wants his people to know, love, and worship God. Discover the earnest heart of God. Those of us who believe that knowing God is the goal of Christians who are like strangers, let us think about how we can know God deeply. I. You can know when you receive the word from above well. In Exodus 34, when God established a covenant with Israel and entered the promised land and drove out its inhabitants, he specifically presented them with a way to forbid idols. In other words, he demanded actions such as not making a covenant with Gentiles, prohibiting Gentile marriage, and tearing down altars of idols. Only then can he love God. God, who came down to Mount Sinai for the second time, proclaimed before them, "Jehovah, Jehovah, God merciful and gracious,

slow to anger, and abundant in lovingkindness and truth” (6). Christ also claimed, “I am the good shepherd,” “I am the true vine,” and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The word of God came to me, saying,” in verse 1 of the text is the same phrase as the repeated formula in Ezekiel, meaning that only God is the source of all revelation. This indicates that we come to know God when His Word first comes to us. Even if you saw a vision, it was necessary to explain and teach it in detail. Therefore, every time we read the Bible, we must wait for the word of God to come to us. When this happens, we come to know God experientially. I hope that we will be filled with this knowledge of Jehovah so that we can live a righteous life loving only Him as God's people. II. You can know this by choosing God's side. God helps us learn by giving us choices rather than coercive indoctrination. So Israel's problem has always been a matter of choice. It is our job to choose God, God's things, and God's side. God, who made a covenant and called them out, guides them by setting two paths before them rather than by force, as if making a copy. He tells us to choose between the narrow path and the wide path, between idols and God, and between ourselves and God. Joshua said, “Choose this day whom you will serve,” and Moses was interested in “those who are devoted, those who stand on God's side,” and the Lord's concern for us was still whether it was Him or the Lord. The end of Israel's choice of idols was pestilence, famine, and sword. Verse 14 says, “I will stretch out my hand upon them, and I will make the whole land they are living in, desolate and desolate, even from the wilderness to Tibula. And they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When we, like Apostle Paul, always choose and obey Christ rather than ourselves, we can come to know God, who turns water into wine, and enjoy His abundant grace. II. We must know God before the fearful judgment.

Salvation, which originally began with knowing God (Matthew 16:16ff.), grows from faith to faith by deeply knowing and obeying Him. Before being beaten, one must know Him well and become a person who enjoys Him. This is because this is God's wish for His covenant people. Just as God, who established a covenant with Israel, wanted worship and festivals together, he wants true worship, so he wants to receive our love, even to the point of jealousy. He gave us training to keep the feast every year so that we could enjoy true joy. Because the true festival lies only in knowing the Lord. Dear saints, please seek God when you can meet Him and call Him when He is near. Those who long to know Him and strive to find His inner room and gather together, like Moses, like the servants who drew water, like the light of noon, will come to know the rich world.

성소를 정결케 하자(겔5:1-17) 2001.6.6

본문 T1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 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껴 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라고 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폐망은 한 마디로 성소(Sanctuary)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성소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곳으로 넓게는 구약 이스라엘의 거주지인 가나안을 가리키며, 좁게는 그들이 예배하는 장소인 성막, 성전을 가리키며, 신약의 그리스도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마음을 더럽힌 사람은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주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성전을 더럽혀서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 이 중이 마드는그리고 어떻게 정을 경시 지에 이해 대격해 사 I. 무엇이 성소를 더럽혔는가? 11절에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성소를 더럽혔나니"라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미운 물건과 가증한 일이란 무엇인가? 1) 우상숭배이다. 바알 신, 아세라목신, 그리고 태양신과 같은 우상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놓고 섬겼 다. 십계명중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은 보이는 우상에 대해, 열 번째 계명은 보이지 않는 타락이 성소를 더럽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짐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우상숭배가 도덕적인 타락과 윤리적 타락으로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 그는 타락한 인간을 높이며 결국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 앉는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은 밖에 있는 것보다 마음 속에 있는 악이다. 막7:20-23절에 보면 악한 생각의 12제자인 음란, 도적질, 살인, 갈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궤방, 교만, 광패가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바울은 바른 교훈에 착념치 않으면 거짓교훈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런 죄악이 우리 속에 있다면, 즉시 돌이켜 거기서 벗어나려 해야한다. II. 성소를 더럽힌 자는 어떤 징벌을 받는가? 고전3:16-17에 보면 "누구든지 성전(성소)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했다. 에스겔은 성소를 더럽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져왔다고 말하면 서 실물교육을 통해 보여주었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1/3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1/3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1/3은 바람에 흩으라(1-6) 했다. (12절) 특히 8-17절을 보면 세 가지 징벌을 발견한다. 1) 하나님이 자비를 거두신다. (11- 12)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손을 거둔 상태이다. 2) 하나님 이 흩으신다. (9-10) 아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아버를 먹으리라" 가장 친숙한 관계를 갈라놓으신다. 동족상잔은 일종의 징벌이다. 3) 황폐함이 따른다. (14) 172 황무함, 능욕거리, 수욕, 조롱, 경계, 괴이한 것, 기근의 독한 살, 양식, 악한 짐승 의 피해가 따른다. 우리는 자신의 삶과 가정에 이런 별을 발견한다면 에스겔처럼 책임지고 주께 나아가는 제사장이 되어 책임지고 회개해야한다. III. 어떻게 성소를 정결케 할까? 본문 6-7절에는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지 않았기에 이런 심판이 왔는데, 성소를 정결케 하는 길은 오직 말씀을 따르는 길뿐이다. 규례를 따를 때 우리는 세가지 특 징적인 일을 행해야한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성령의 관유가 넘치고 우 리 안에 기도의 향이 항상 올라가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성소 청결을 위해 성령의 기름이 넘치도록 간구하고

사모해야한다는 것이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와 관유를 통과하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하자.

Let's purify the sanctuary (Ezekiel 5:1-17) 2001.6.6

Verse T1 of the text: Therefore, as I live, says the Sovereign LORD, because you have polluted my sanctuary with every abominable thing and every abomination, I will not spare you or show you any mercy, but will make you weak.” As such, the fall of Israel was simply due to the desecration of the Sanctuary. The Sanctuary is a place where God is served and worshiped. In broad terms, it refers to Canaan, the Old Testament residence of Israel, and narrowly, it refers to the tabernacle and temple where they worship. It refers to Christ, the church, and the heart of Christians in the New Testament.

Therefore, those who defiled their hearts are judged because they defiled the sanctuary. It is said that you will be called, but you are among the robbers.

How can you understand and attack the people by ignoring the affection? I. What defiled the sanctuary? Verse 11 says, “You have defiled the sanctuary with every hateful thing and every abomination.” What are the hateful things and abominations referred to here? 1) Idolatry. God Baal, Asheram, and the sun god. Among the Ten Commandments, the first and second

commandments were about visible idols, and the tenth commandment was about the corruption of visible virtue and the destruction of the sanctuary. It is natural that idolatry manifests itself as moral corruption and ethical corruption, and ultimately it is the evil within the heart that defiles the heart of today's Christians. :20-23, the 12 disciples of evil thoughts, such as sexual immorality, theft, murder, greed, malice, deceit, lewdness, an evil eye, slander, pride, and foolishness come from within and defile people. It is said that if we do not

adhere to the correct teaching, we must immediately turn away from it if we have this kind of sin in us. What is the punishment for those who defile the sanctuary? Ezekiel said, "If anyone defiles the temple (sanctuary), God will destroy it," and showed through object education that Israel, who defiled the sanctuary, brought about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Burn it with fire, strike 1/3 of it with swords from all sides of the city, and scatter 13 to the wind (verses 1-6). In particular, looking at verses 8-17, we find three punishments: (11-12) The most fearful thing in this world is the state of God's mercy being withdrawn. (9-10) The father will eat the son, and the son will eat the father. He tears apart the most intimate relationships. Fratricidal violence is a kind of punishment. 3) Desolation follows. (14172 Desolation, humiliation, humiliation, ridicule, caution, strange things, the poisonous flesh of famine, food, and damage from evil beasts follow. If we find these stars in our lives and families, we become priests like Ezekiel who take responsibility and come to the Lord. III. How do we purify the sanctuary? In verses 6-7, this judgment came because we did not follow God's regulations, and the only way to purify the sanctuary is by following the regulations. When we follow, we must do three characteristic things, believe in the merits of Christ's blood, and pray for the anointing oil of the Holy Spirit to overflow and the fragrance of prayer to always rise within us. Let us seek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to pass through the blood and ointment of Christ every day.

십자가는 지는 에스겔 (겔4:1-17) 2001.5.30

오늘 본문에서 파수꾼으로서의 에스겔이 첫 번 임무로 이스라엘에게 임박한 멸 망을 경고하여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대하게된다. 에 스겔에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을 담당시켜(4.6) 고생의 떡을 먹게 함으로서, 바 벨론 포로 생활의 비참함을 실물교육하심으로 그들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패역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십자가 지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시다. 이 간절한 부 림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하는 파수꾼의 응답으로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일에 동참해야만 한다.

우리는 본문에서 십자가 지는 자가 가질 확신, 두 가지를 배운다. I. 우리의 싸울 대상은 죄악이란 사실이다.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온갖 방법을 연구하여 새로운 요법과 비법을 개발 해 내지만 여전히 죄악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죄의 삶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파수꾼은 잘 알고 있어야한다. 본문의 두 상징적인 행위는 죄 가 얼마나 불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칼빈은 이 행동을 환상가운데 이루어진 것 으로 보나 Taylor 같은 현대학자들은 공적 선언인 만큼 실제적인 것으로 본다. 어 켜든 분명한 것은 죄악은 심각한 불행이며 비참하다는 사실이다. 1), 죄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가리킨다. 1-3절에 나오는 작은 토판에다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운제와 토둔과 진과 공성퇴를 만들어 그 옆 에 누워 성읍을 에워싸는 것처럼 하고 그 사이에 전철(철벽)을 두라 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루살렘사이에 서로 갈 수 없는 죄악의 장벽을 가리킨다.

죄는 장벽이 고 간격이고 서로 건널 수 없는 구렁이다.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내었다는 사59: 1-2의 말씀대로 죄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가리킨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게 된다.(롬1:18) 2) 또, 죄는 현재의 우리 삶을 비참하게 만든다. 9-16 절에서 에스겔에게 390일간 누워서 온갖 잡곡으로 쇠똥 불에 구워 만든 떡을 먹게 한 것은 개도 싫어하는 음식이었다. 이렇게 죄는 현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든다. (엡2:1-5), 3) 그리고 죄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 하나님은 에스겔로 이 스라엘을 위해 390일간, 유대족속을 위해 40일간, 범죄한 날수대로 누워있도록 했다. 이것은 죄악을 그 수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손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제 2계명에도 자손 3-4대까지 나를 미워하는 죄를(출20:5) 갚으리라 했고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썸의 후손들을 축복하셨음을 본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여 피 흘리기까지 영혼을 거스리는 죄와 싸워 나가자. II. 십자가만이 죄악을 해결한다는 사실이다. 십자가란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한다. 그의 영단번의 속죄제사로 우리의 오고 속죄를 의지한 사람들이 맡겨주신 이웃들을 위해 대신 지는 십자가를 말한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십자가를 지고 주를 좇아가는 것은 오직 주님의 공로에 근거를 둔 것이다. 사도들에게 성령을 받고 그들이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요20:23)도 같은 의미이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적용함으로 만 세상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다. 우리가 야곱처럼 자기 죄 때문에 고난 당한다면 회개하지만 때론 요셉처럼 십자가 지게 될 때는 고난 당함 이 필요하다. 교회는 바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부름 받은 자들이다. 대제사장의 가슴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긴 12개의

보석이 달린 판결 흉패를 안고 주 앞에 나아가듯이 우리는 이웃의 죄를 사랑으로 담당하고 주 앞에 나가야한다. 십자가 지면 손해이고 불행인줄 아는 잘못된 선입관에서 벗어나, 십자가 길을 걸을 때 도리어 나도 살고 이웃도 살게되어 더불어 찾아오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파수꾼에게는 넘쳐있어야 한다. (벧전4:14)

Ezekiel carries the cross (Ezekiel 4:1-17) 2001.5.30

In today's text, Ezekiel's first mission as a watchman is to confront God's earnest heart as he warns Israel of their imminent destruction and urges them to repent. By making Ezekiel bear the sins of Israel and Judah (4.6) and eating the bread of suffering, it is an expression of God's love to make them turn back by teaching them an object lesson about the misery of captivity in Babylon. God, who does not forget mercy even in His wrath, is looking for those who bear the cross to save His people, even though they are rebellious people. By responding to this earnest call like a watchman saying, "Here I am, send me," I must live and participate in saving my neighbors as well. From this text, we learn two things about the confidence that a cross bearer must have. I. The fact is that the object of our fight is sin. People research all kinds of ways to live a better life and develop new remedies and secrets, but they have not been able to solve the problem of sin, and they will never be able to do so. The watchman must be well aware of the fact that "a life of sin is death." The two symbolic actions in the text show how unfortunate sin is. Calvin sees this action as accomplished in fantasy, but modern scholars such as Taylor see it as a public declaration. In any case, what is clear is that sin is a serious misfortune and misery. 1) Sin refers to the state of being disconnected from God. It was said to make a trench, a camp, and a battering ram and lie down

next to it as if to surround the city, and to place an iron wall between them. This refers to the barrier of sin and the gap between God and Jerusalem. According to Isaiah 59:1-2, which states that sin has separated people from God, God's wrath remains upon that person. (Romans 1:18) 2) , sin makes our present life miserable. In verses 9-16, Ezekiel was made to lie down for 390 days and eat bread made with all kinds of grains roasted over a fire, a food that even dogs dislike. (Ephesians 2:1-5), 3) God made Ezekiel to lie down for 390 days for Israel and 40 days for the Jewish people, according to the number of days of sin. The second commandment shows us God's thorough hand in repaying in number (Exodus 20:5), and He will punish the descendants of Shem who hate sin and want to serve God. We see that God has blessed us. Let us fight against the sins that offend our souls, even to the point of shedding blood. The cross symbolizes Christ's death as a sacrifice for sin. It refers to the sacrifice of heart on behalf of the neighbors entrusted to us by those who depend on the atonement. Our denial of self, taking up our cross, and following the Lord is based solely on the merits of the Lord. Jesus' promise that if the apostles receive the Holy Spirit and forgive their sins, they will be forgiven (John 20:23), this also has the same meaning. Only by applying the cross of the Lord can the sins of the world disappear. If we suffer because of our sins like Jacob, we repent, but sometimes, when we bear the cross like Joseph, we need to suffer. The church is the ones called to carry this cross. Just as the high priest comes before the Lord carrying on his chest the judgment breastplate with 12 jewels engraved with the names of the sons of Israel, we must bear the sins of our neighbors with love and go before the Lord. Instead of breaking away from the wrong preconceptions that losing the cross is a loss and misfortune, the watchman should be overflowing with the

glorious joy that comes with walking the path of the cross, as both he and his neighbors live. (1 Peter 4:14)

교회의 파수꾼(겔3:16-27) 2001.5.16 수

원수가 몰려올 때 경고의 나팔을 불거나 비상신호를 보내는 파수꾼(Watchman)은 현재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지명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존을 가진 에스겔을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17)으로 세워 하나님대신..깨우치시려 했다. 만일 책임을 소홀히 할 때 그에게서 "그 피 값을 네게서 찾겠다 다"(18-19)는 경고를 보면 그가 받은 사명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알 수 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들은 21세기의 파수꾼의 신앙을 여기서 배운다. 파수꾼은 누구이며 무엇하는 사람인가? I.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17절에 "너는 내 말을 듣고 내 대신 외치라"고 한 대로 먼저 파수꾼은 주님이 주신 두루마리의 단맛과 쓴맛을 체험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 받은 베드로일지라도 복음을 바로 아는데는 시간이 걸렸다. 복음을 모른 그는 자기, 영광을 구하여 자기아집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 영웅심리로, 주님을 따라 마침내 주님을 세 번 부인했다. 오순절 성령을 받은 후에야 파수꾼으로서 자기 할 일을 알게되었다. 복음의 맛을 모른 자는 죄 사함과 영생과 참 자유를 모다. 큰 죄를 범한 다윗이 체험한 죄 사함의 행복을 안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이 복음을 알기를 그렇게 소원했던 것이다. 이것이 복음을 아는 자의 참모습인 것이다. 또 복음의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명이 있다. 파수꾼은 길 잡이요. 대언자요, 사신(ambassador)이다.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 택하신 족장·사지 하라로 불러 내 구하게와의 변천25인 후리기운 정원수꾼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로 증거해야 하겠 II.

그는 잠자는 자를 깨우는 것이 목표이다. 에스겔의 목표는 이스라엘을 깨우는 일이다. 깨운다는 말은 경고를 가리킨다. 경고를 통해 돌이키게 하는 일 곧, 회개와 믿음을 가리킨다. 18-19절에 보면 악인에게 꼭 죽으리라는 경고를 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만일, 그가 듣지 않으면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고 했다. 또, 의인에게도 경고하여 (20) 깨우 치게 하셨다. 그를 깨우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시대의 파수꾼인 우리들은 회개케 하고 믿게 한 비존과 목표가 분명해야한다. 바울 사도처럼 증거하지 않으면 화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이런 장벽을 뛰어 넘어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증거하자. II 그를 위해 하나님의 권능이 준비되었다. 에스겔이 가는 곳은 어려웠다. 7일동안 기도한 후 그들을 대했지만 답답한 상황이었다. 그들은 응답을 기대하기가 힘든 패역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로 나가게 하여 새로운 힘을 공급하셨다. 22-23절에 그발 강가의 그 영광이 또 나타나 그를 인도하셨다. 바울처럼 그가 묶이는 것까지도 미리 알려 주시고 그때 그때마다 입을 열어주셨다. 일거리를 주신 하나님은 감당할 능력까지 주시는 분이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전 능자다. 하나님의 안목을 가진 하나님 대리자로서 큰 능력을 받아 증거하자.

Watchman of the Church (Ezekiel 3:16-27) 2001.5.16 Wed

A watchman, who blows a warning trumpet or sends an emergency signal when enemies approach, must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situation and have the foresight to foresee the future. So, God appointed Ezekiel, who had vision, as a watchman (17) for the Israelites to enlighten

them. If you neglect your responsibilities, you can see how important the mission he received is by looking at his warning, “I will demand blood from you” (18-19). We who spread the word in season and out of season learn here the faith of the watchmen of the 21st century. Who is the watchman and what does he do? I. He is God's representative. As verse 17 says, “Listen to me and shout on my behalf,” the watchman’s first priority is to experience the sweet and bitter taste of the scroll given by the Lord. Even Peter, who was called to be a fisher of men, took time to understand the gospel. Without knowing his gospel, he had no choice but to be caught up in his own ego, seeking for himself and his glory. As a hero, he followed the Lord and eventually denied Him three times. Only after he received the Holy Spirit at Pentecost did he know his job as a watchman. Those who do not know the taste of the gospel do not know forgiveness of sins, eternal life, and true freedom. Paul, who knew the happiness of forgiveness of sins experienced by David, who had committed a great sin, hoped that Israel would know the gospel even if he himself was cut off from Christ. This is the true face of someone who knows the gospel. Also, the keepers of the gospel have the mission of spreading the word of God. A watchman is a guide. He is the advocate, he is the ambassador. Israel is a holy people, a chosen patriarch. As a guardian of the 25th generation of the 25th generation in the world of Wa, we must understand the gospel of God and testify right away whether the season is right or not. II. His goal is to wake the sleeping person. Ezekiel's goal is to awaken Israel. The word awaken refers to warning. It refers to the work of turning back through warnings, that is, repentance and faith. In verses 18-19, he said that he would hold the wicked accountable if he did not warn him that he would surely die, and that if he did not listen, he would preserve his life. Also, he warned the

righteous (20) so that they would be enlightened. If you don't wake him up, he will hold you accountable. As the watchmen of the times, we must have a clear vision and goal to make people repent and believe. Like Apostle Paul, we need to be convinced that we will be in trouble if we do not bear witness. Let us overcome these barriers and testify the gospel to anyone. II The power of God was prepared for him. The place Ezekiel went to was difficult. He treated them after praying for seven days, but it was a frustrating situation. This is because they were rebellious people for whom it was difficult to expect a response. At that time, God took him out into the fields and provided him with new strength. In verses 22-23, the glory of the river Chebar appeared again and guided him. Like Paul, God even informed him in advance that he would be bound, and opened his mouth each time. God, who gives us work, is the Almighty who gives us the ability to handle it and the ability to overcome even when faced with difficult tasks. As God's representative with God's perspective, let us bear witness with great power.

두루마리를 먹으라 (겔3:1-12) 2001.5.9 수

부름받은 사명자는 먼저 우리를 진단하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한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손이 퍼지면서 애가, 애곡, 재앙의 말 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보며(2:9-10) "받아 먹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것을 먹어야 자신이 패역에 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금강석 같은 이마를 가진 백성들에게 증거 할 수 있겠기 때문이다. 에스겔에게 먹으라고 했던 두루마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먹어야하나? I. 두루마리는 기록된 말씀, 성경을 가리킨다. 여기서 말하는 두루마리란 그리스도 말씀인 성경(기록된 말씀)을 가리킨다. 두루마리 안팎에 기록된 말씀은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살리시는 말씀이나 교만과 불신앙으로 끝까지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지없는 심판의 말씀이시다. 너무 소중한 말씀이시기에 기록으로 남기셨고 또한 이 기록된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일하심은 정말 기이하다.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책망과 경고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가? 세상과 벗된 사람들이나 돈만 아는 부자들을 향하여 회개하고, 멸망의 길에서 주님께로 돌이키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안타까이 외치는 야고보의 경고와 "독사의 자식들이 회개하라"라며 외식하는 자들에게 탄식하는 요한의 외침이 울려 퍼져야만 이 시대가 산다, "빙하주의"라는 타전을 무시하여 1500여명의 생명을 불과 2시간 반만에 앗아간 타이 타닉호의 사건처럼 우리는 성경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아야한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이기에 세상이 뭐라 하든지 사랑하는 이 말씀에 우리 마음을 온통 주시해야한다. I. 말씀의 단맛 체험이 일어나야 한다, 유대인들이

성경책에다 꿀을 칠해 두어 먹게 함으로 성경을 사랑하도록 가르친 것처럼 말씀의 단맛을 알아야 한다. 단맛이란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밝음과 뜨거움이 일어나는 깨달음을 가리킨다. 이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강한 미혹에서 우리를 보호한다. 목이 곧고 패역한 백성을, 상대로 일하기 위하여는 이런 말씀의 무장이 절대 필요함이다. 우리는 다윗처럼 주의 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종일 묵상하며 또한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단 체험을 해야 한다.(119:97-103)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고 고백했던 다윗과 같은 체험,(시19:7-11) "내 입에는 꿀 같이 다니이다"고 했던 요한의 체험(계10:9-11),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라고 했던 예레미야의 체험(렘15:16)이 일어나야 한다. III. 말씀을 마음 깊숙히 받아야 한다, 에스겔은 입으로만 받은 것이 아니었다,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3)고 했다. 10-11절도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이 이르하시다 하라 하시더라"고 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 깊숙히 생각해야 한다.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케 해야 한다. 이 말씀이 감정에 영향을 미치게 하여 요동하는 감정이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해야 한다. 나의 의지의 주체가 이 말씀이어야 한다. 주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고 해야 한다,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은 믿음의 희생 즉 자아부인과 십자가를 요구하지 만 거기에 위대한 기적이 일어난다. 순종하기 전에는 말씀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텔아에서 백성들 가운데

7일간 머문(12-15) 에스겔은 성령의 감동 과 능력을 받아 사명을 순종했다. 말씀을 깊이 받은 자는 반드시 순종하고 변 화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다. 주님이 주신 두루마리, 성경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리고 묵상할 때마다 단맛을 체험하며 창자와 배에 깊숙히 넣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순종과 변화를 체험하며 살자.

Eat the scroll (Ezekiel 3:1-12) 2001.5.9 Wed

The missionary who is called must first deeply understand the word of God that diagnoses us and saves us. As God's hand stretched out, Ezekiel saw a scroll written with words of lamentation, mourning, and disaster (2:9-10), and heard God's voice saying, "Take, eat." If you eat this, not only will you avoid falling into rebelliousness, but you will also be able to testify to the people who have foreheads like diamonds. What is the scroll that Ezekiel was told to eat and how should we eat it? I. The scroll refers to the written word, the Bible. The scroll referred to here refers to the Bible (written word), which is the word of Christ. The words written inside and outside the scroll are words of salvation to those who hear and obey them, but are words of inevitable judgment to those who do not receive them to the end due to pride and unbelief. It is truly amazing that he recorded these words because they are so precious, and that the Holy Spirit works through these recorded words. Don't we hear voices of rebuke and warning through the Bible today? Repent toward those who are friends with the world or the rich who only care about money, and turn from the path of destruction to the Lord. James's warning that faith without works is a dead faith and John's cry to the hypocrites, "Repent,

you brood of vipers" must be heard for this era to survive, breaking the tradition of "glacierism." We must not ignore the warnings of the Bible, like the incident of the Titanic, which took the lives of 1,500 people in just 2 and a half hours. Because the Bible is useful for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we must focus our hearts on this loving Word, no matter what the world says. I. We must experience the sweetness of the Word. Just as the Jews taught us to love the Bible by coating it with honey and having people eat it, we must know the sweetness of the Word. Sweetness refers to the realization that brightness and warmth arise when one receives the Word with faith. This protects us from the strong delusions of the lust of the flesh, the lust of the eyes, and the pride of life. In order to work against a stiff-necked and rebellious people, this kind of armament of the Word is absolutely necessary. Because we love the law of the Lord like David, we must meditate on it all day long and experience the word sweeter than the honey of the honeycomb. (119:97-103) We will desire it more than gold, much finer gold, and sweeter than honey and the honey of the honeycomb. (119:97-103) An experience like David's who confessed that it was sweet (Psalm 19:7-11), an experience like John's who said, "It is as sweet as honey to my mouth" (Revelation 10:9-11), the word of the Lord brings me joy and joy to my heart. The experience of Jeremiah (Jeremiah 15:16), who said, "Iona" must occur. III. You must receive the word deeply in your heart. Ezekiel did not receive it only with his mouth, "Put this scroll into your stomach and fill your intestines." (3) Verses 10-11 also said, "Son of man, receive with your heart all the words I will tell you. Then go to your captive people and tell them, whether they listen or not, saying to them, 'Sovereign LORD. He said, "This is what He says.'" We must ponder these words deeply

in our hearts and make them obey Christ Jesus. The subject of my will must be this word, and I must say that I will do this and that. Obedience in action requires the sacrifice of faith, that is, self-denial and the cross, but great miracles occur there. The effectiveness of the word does not appear until one obeys it. Ezekiel, who stayed among the people in Telah for 7 days, received the inspiration and power of the Holy Spirit and obeyed the mission. Every time we receive the scroll and Bible words given by the Lord and each time we meditate on them, let us experience the sweet taste, put them deep in our intestines and stomach, and live in obedience and change with actionable faith.

에스겔 선지의 소명 (겔2:1-10)

아무리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소명(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어둠 속에 살수 있다. 소명(calling)이란 나에게 맡겨진 일을 버리고 목사 또는 선교사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어디서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주님의 일이란 확신의 삶이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귀한 시간과 재능과 청춘을 다 허비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앞드리진 에스겔이 부름 받는 모습에서 소명에 대한 진리를 배우고자 한다. I. 소명자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한다. 소명자는 무엇보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에스겔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 "그 신이 내게 입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패역한 백성에게 보내노라" (1-3) 성령 임재를 체험함과 동시에 에스겔은 자기의 할 일에 대한 부르심을 들었다. 성령님을 환영할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 지기 때문에 성령 임재를 느끼는 자리까지 나가야 비로소 소명의식이 생긴다. 성령의 임재와 소명의식은 같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에스겔을 부르신 분은 누구신가?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이다. 주권자이신 성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거절할 수 없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한다. 에스겔서에 97회 나온 "인자"는 단 7: 13절의 인자(메시아의 명칭)와는 다르다. 에스겔을 "인자"는 나약하고 패역하기 쉬운 인간임을 강조하는 뜻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금도 주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일을 맡기는 이 원리를 잊지 말아야한다. II. 소명자는 여호와의 말씀만을 전해야한다. 소명 받은 에스겔에게 주님은 무엇하라고 말씀하셨는가?(3하-5)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라고

하셨다. 말씀을 전할 대상은 패역자, 배반자, 마음이 강박한 자들인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 성들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인간의 말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직 주님의 권능의 말씀만이 역사를 돌이킬 수 있을 뿐이다. 말씀의 내용은 사랑 화평의 말이 아니었고 주 여호와와 말씀인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전하는 것이었다. (9-10)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다. 전도자도 준비되지 않으면 같이 패역할 수 있기에(8)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 말씀으로 무장한 후 교훈과 책망의 말을 전하는 일, 이것이 소명자의 할 일이다. III. 소명자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한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증거하도록 부름 받은 소명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 일의 평가를 주님에게 맡겨야만 하는 일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옳다는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약1:12) "듣든지 아니 듣든지 증거하는 것은 무책임한 증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순종 후에 모든 결과 또한 하나님께 맡겨야함을 뜻이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받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로 증거하고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어 소명자의 길이다, 바울처럼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 열심히 쫓아가는 성도가 되자

Prophet Ezekiel's calling (Ezekiel 2:1-10)

No matter how saved you are, if you do not have a clear understanding of your vocation (calling), you can live in darkness. Calling does not mean that I have to abandon the work entrusted to me and become a pastor or missionary, but it is a life of confidence that the work entrusted to me is the Lord's work at all times and everywhere. Without this, we would waste all our precious time,

talent, and youth. We want to learn the truth about calling from the sight of Ezekiel, who fell on his face after seeing the glory of God. I. Those who are called must receive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Above all, those who are called must receive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Ezekiel had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The Spirit came upon me and raised me up, and I heard the voice of him speaking, and I send to the rebellious people." (1-3) At the same time as he experienced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Ezekiel heard the call for his work. When you welcome the Holy Spirit, you are filled with the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so only when you go to a place where you can feel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does a sense of calling arise. This is because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and the sense of calling move together. Who called Ezekiel? He is Christ sitting on the throne. We cannot refuse the call of God the Son, the Sovereign, and must always approach with a humble heart. The "Son of Man" that appears 97 times in the Book of Ezekiel is different from the Son of Man (the name of the Messiah) in Dan 7:13. Ezekiel's "son of man" comes from the meaning of emphasizing that he is a weak and rebellious human being. Even now, the Lord seeks humble people and we must not forget this principle of entrusting work to humble people. II. The person called must only preach the word of Jehovah. What did the Lord tell Ezekiel, who was called, to do? (3b-5) "He told him to testify only the word of God. The target of the message is the Israelites who are in sin, who are traitors, traitors, and hard-hearted people. To these people, human words are of no help, and only the word of the Lord's power can turn back history. (9-10) The Bible is a useful word for teaching, rebuking, and righteousness, and if the evangelist is not prepared, he can rebel as well, so he first examines himself and arm himself with the word. Delivering words of rebuke is the job

of the caller. III. There is something that the caller must remember, as he or she is called to testify only the word of Christ in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It is something that must be left to the Lord and must be acknowledged as right by God. (James 1:12) “Whether you hear it or not, testifying does not indicate irresponsible witnessing, but after thorough obedience, all results must also be left to God. It means. Desiring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directly testifying only to the Word of God received, and entrusting the results to the Lord. This is the path of this calling. Let us become saints who pursue diligently to obtain the reward of our calling like Paul.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라 (겔1:15-28) 2001. 4. 28 주

에스겔이 그밭 강가에서 바라 본 이상은 하늘에서 일어난 놀라운 광경이었 단. 네 생물이 하나님을 옹위하고 섬기는 모습은 에스겔 자신 뿐 아니라 오 늘날 성도들에게도 참 섬김의 거울이 된다. 오늘은 에스겔 이상 중심에 해 당되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려한다. 1. 에스겔은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바라 보았다. 에스겔은 15절 이하에서 다른 현상을 보았다. 움직이는 네 생물 밑에 바퀴가 있는데 이 바퀴 속에 또 바퀴가 있고 그 안에 눈이 가득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는 눈이 이 생물을 이끌고 있음을 보았다. 그리고 네 생물의 머리 위에 보좌를 보았고, 거기 앉으신 분을 보았다. "그를 여호와 영광의 형상의 모양 (28)"이라 했다. 이 분은 사람의 모양 같은 (26절) 성육신 하기 전 그리스도이시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15에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라고 했고 사도 요한도 동일한 이상을 보았다. (계4:-5:) 보좌에 계신 그 분은 아무도 볼 수 없는 분이시나 복된 시대에 살고있는 우리는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자를 통해 항상 아버지를 보고있기 때문이다. 그를 통해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 진실, 공의를 알게되었다. 이는 아버지의 온전한 계시자는 그분뿐이기 때문이다. (히1:1-2) 성령님도 그를 통하여 아버지를 알게 하시지 우리로 직접 성부를 보게 하시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이 보좌에 계신 분을 영접함이다. 네 생물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 분이 나의 경배를 받으시니 얼마나 귀한 일인가? 우리가 교회에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경외하고 봉사하고 바치는 것은 보좌에 계신 분에게 드리는 것이다. 얼마나 귀한 일인가? II. 에스겔은

진실로 충만한 그리스도를 보았다. 계시록 4:3절에 요한이 바라본 보좌도 무지개와 같은 모양의 녹보석이었 으며 보좌의 형상의 모양이 남보석 같다 (26절) 하였고 출애굽기 24:10에 나 오는 70인 장로들이 시내산위에서 본 여호와와 발아래 청옥을 편 듯하고 하 였다. 이것은 모두 진실한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이다. 그리스도는 충성과 진실이시다. 오직 보좌는 진실한 자에게 열리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한 자가 되어야만 하고 디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든 직분자의 기본 자격조항이기도 하다. 그리스도인은 업적위주가 아니라 성품 변화 위주여야 하며 날개를 가리우는 일이 없는 봉사는 헛되며 주님이 받지 않으심을 기억하자. 우리는 진실하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본 받아 진리로 우리의 사상을 무장 시키고 성령의 인도를 이해하고 전적으로 순종하자. 우리교회는 이런 진실 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자. III. 에스겔은 성령 임재로 충만한 영광의 빛을 보았다. 또한 27-28절에서 에스겔은 그 허리이상의 모양은 단 쇠 같아서 사면으 로 광채가 나는 여호와와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보자 꼬꾸라졌다. 그가 본 것은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진실성이며, 성령의 임재로 충 만한 광경을 보았던 것이다. 불, 광채, 번개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킨다. 그 임재를 접할 때 누구나 그를 경외하고 절대 헌신하게 되고 그에게 사로 잡히게된다. 그리스도로 완성된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이 임 재 안에 사는 것이다. (요1:18) 이것을 알려면 어두어진 우리의 눈이 열려 야하고 귀가 열려야한다. 하박국시대의 어두움을 밝히는 길은 하나님의 묵시였고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그의 임재를 접함이다. 에스겔은 성육하시기 전 그리스도를 보았지만 우리는 성육신하셔서 모든 구속을

완성한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 그를 주목하며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며 진실한 감사와 헌신의 사람으로 화하게 할 것이다.

See Christ on the throne (Ezekiel 1:15-28) April 28, 2001

The vision that Ezekiel saw on the banks of the Chebar River was an amazing sight in heaven. The four living creatures protecting and serving God serve as a mirror of true service not only to Ezekiel himself but also to today's believers. Today, I would like to think about "the throne of God and Christ on it," which is the center of Ezekiel's vision. I. Ezekiel looked at Christ sitting on the throne. Ezekiel saw another phenomenon in verses 15 and below: Four moving living creatures. There was a wheel underneath, and within the wheel was a wheel full of eyes, indicating the working of the Holy Spirit, and I saw a throne on the head of the living creature, and one sitting on it. "He is the likeness of the glory of the Lord (28)." This is Christ before His incarnation (verse 26). "He is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 and Apostle John also saw the same vision. (Revelation 4:-5:) He who is on the throne is someone no one can see, but we who live in a blessed age always see the Father through the Only Begotten Son who was in the Father's bosom. Because through him, we came to know the Father's love, truth, and justice (Hebrews 1:1-2). The Holy Spirit also makes us know the Father through him. He does not allow us to see the Father directly, so when we receive the Lord, we receive the worship of the four living creatures. How precious is it for us to praise Him in church? How precious is it to give thanks, reverence, service, and offering to the One on the throne? II. The throne that John saw in

Revelation 4:3 was also a green gem. The shape of the throne was like a precious stone (verse 26), and the 70 elders in Exodus 24:10 said that it was like spreading sapphire at the feet of Jehovah on Mount Sinai. These are all true expressions of God's character. Christ is loyalty and truth. Since the throne is only open to those who are truthful, we must be truthful people, and this is the basic qualification for all office bearers in the church as mentioned in Titus. Let us remember that Christians should focus on changes in character, not on achievements, and that service without covering one's wings is in vain and will not be accepted by the Lord. Let us imitate the renewal of the truthful Holy Spirit, arm our thoughts with the truth, understand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and obey completely. Let us make our church a church governed by this truth. III. Ezekiel saw the light of glory filled with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Also, in verses 27-28, when Ezekiel saw the appearance of the image of the glory of Jehovah, shining brightly on all sides, from the waist up, it looked like iron, and he was struck down. What he saw was Christ and the truth that comes from Christ, and he saw a scene filled with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Fire, brightness, and lightning all point to the presence of God. When anyone encounters His presence, they fear Him, become absolutely devoted, and become obsessed with Him. We who live in the age completed by Christ live in this presence. (John 1:18) To know this, our darkened eyes and ears must be opened. The way to brighten the darkness of Habakkuk's time was God's revelation and encountering His presence through crying out in prayer. Ezekiel saw Christ before his incarnation, but we see Christ incarnate and completing all redemption. When you pay attention to Him and entrust everything to Him with faith, you will be filled with the glory of God's presence and will become a person of true gratitude and devotion.

천사들의 섬김을 배우자 (겔1:1-14) 2001. 4. 1.

그 동안,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복음의 영광스러운 빛을 보았고, 전도서를 통해서는 허무로 가득 찬 세상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이 복된 삶인 것을 상고함으로 은혜를 받았다. 이제 15년 동안 우리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 인지를 에스겔서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다. 수요 강단에서의 강해되는 에스겔 이상을 통해 성전에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고, 환상의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산문대가 되어 주름잡힌 것이 없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기를 소원한다. 에스겔의 이상은 회복되는 교회의 모습이었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구약교회의 부흥이었다. 여전히 하나님의 꿈은 교회 부흥이었고 성령과, 말 씀으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이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에스겔이 급 발 강가에서 바라 볼 이상에 보좌에 계신 분을 섬기는 네 생물의 봉사를 통해 지상에 있는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지를 생각하고자한다. 1.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섬김이어야한다. 절망의 시대에 에스겔은 절망 중에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하늘 이상을 본다. 에스겔이 본 네 생물의 모양은 어떠했는가? 네 생물의 전체모양은 사람 형상이었다. (6-9) 4-5절에 북에서 오는 폭풍과 큰 구름 속에, 반짝거리 는 물, 사면을 비추는 빛, 그리고 단소(glowing metal), 같은 것이 보이면서 그 안에 네 생물의 모습이 보였다. 하나님의 임재시 나타났었던 현상들 속 20)이 그룹은 하나님을 옹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천사들로서 계 시록에 나오는 네 생물을 가리킨다. 왜 성령님은 네 생물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형상처럼 표현했을까? 이것은 그들이 섬기는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어 우리로 본을 삼도록 함이다. 우리의 섬김은 세상의 섬김과 다르다. 목적만 좋으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해버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방법 을 따라 섬겨야한다. 그래야만 섬기는 중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때문 II. 자아부인과 거룩으로 가득 찬 섬김이어야한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성품을 드러낸 네 생물의 두 가지 중요한 섬김 의 특징을 발견한다. 1) 자아부인으로 졌다. 고로 날개로 자기 일을 거리다., 설정 국물 내개로 서로 열하 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눅9:23)는 주 님의 방법이였다. 서로 연합하여 오직 하나님의 권위만이 세우는데 그들이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자세였다. 2) 서로 연합하여 졌다. 우리들은 봉사하기 전에 자기 몸을 가리우고 연합하는 것을 배워야한다. 이것이 네 생물의 섬김이였다.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주님의 일에 가 장 잘 쓰임 받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III. 성령의 인도에 절대 순종하는 섬김이어야한다. 또 네 생물은 자아를 부인하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섬겼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자상한 인도를 그대로 따라 섬겼다는 것이다. 12-14 절에 생물의 봉사의 모습이 어떠함을 보인다. 숯불, 횃불 모양 같은 생물 사이에 불이 오르락 내리락 했고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 번개가 있었 고 왕래가 번개같이 빨랐다. 천사의 섬김을 통해 우리는 신속하고 절대적 인 봉사를 보는데, 오직 여호와와 신의 인도를 따라 행하는 것임을 본다 (12) 성령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는 주를 섬긴다. 성령의 지시를 알뿐 아니라 그것을 전적으로 따라야한다. 성경을 읽고 순종할 때, 금식할 때, 기도할 때 그의

인도를 알게 하신다. 섬김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 자. 네 생물의 본을 따라 섬기자.

Let's learn about the service of angels (Ezekiel 1:1-14) April 1, 2001.

In the meantime, we saw the glorious light of the gospel through the book of Isaiah, and through the book of Ecclesiastes, we received common benefit by pondering that fearing the Lord and obeying his word is the only way to live a blessed life in a world full of emptiness. Now, we have a great opportunity to think through the Book of Ezekiel about what God, who has led our church to this point for 15 years, requires of us. Rivers of living water flowed into the temple through the vision of Ezekiel being strengthened from the Wednesday pulpit. I hope that the dry bones of the Valley of Illusion will become a living doorway and grow into a beautiful church without any wrinkles. Ezekiel's ideal was a restored church and a revival of the Old Testament church through the work of the Holy Spirit. God's dream is still the revival of the church and the kingdom of God that is achieved only through the Holy Spirit and words. Today, for the first time, we will consider how we, the church on earth, will serve the Lord through the service of the four living creatures who serve the One on the throne, as seen by Ezekiel from the riverside. 1. It must be service that reveals the character of Christ. In an age of despair, Ezekiel sees a vision of heaven, the world's only hope. What did the four living creatures that Ezekiel saw look like? The overall shape of the four creatures was human-like. (6-9) In verses 4-5, amidst the storm and large clouds coming from the north, sparkling water, light shining on all sides, and glowing metal were seen, and the figures of four living creatures were seen within them. Among the phenomena that appeared during God's presence 20) This group refers to the

four living creatures in the Book of Revelation as angels who defend God and reveal His glory. Why did the Holy Spirit express the appearance of the four living creatures as the image of Christ and the image of God? This is to reveal the character of Christ in their service so that we can become an example. Our service is different from the service of the world. As long as the purpose is good, you don't have to do anything regardless of the means. You must serve only according to the Lord's way. Because only then can God's character be revealed while serving. II. It must be a service filled with self-denial and holiness. In today's text, we discover two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service of the four living creatures that reveal the character of Christ. 1) It was defeated by self-denial. Therefore, they carry out their work with their wings. This was the Lord's way: "Let all of you deny yourself and take up your cross and follow me" (Luke 9:23). They unite with each other to establish only the authority of God, which is the only thing they can do. 2) We must learn to cover our bodies and become united before serving. Only those who deny themselves and take up their cross are the best in the work of the Lord. Because they are well-used people, they must serve in absolute obedience to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They served while displaying the character of Christ, but more importantly, they served according to the gentl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Verses 12-14 show what the ministry of the living creatures looked like, and there was fire rising and falling between them, and the fire was bright, and there was lightning in it, and the movement was as fast as lightning. Through service, we see quick and absolute service, and we see that it is only done according to the divine guidance of Jehovah. (12) Following the guidance of God the Holy Spirit, we must not only know the instructions of the Holy Spirit, but also follow them completely. Let us pray that we may

be filled with the spirit of service when we read and obey, when we fast, and when we pray.

인생의 본분 (전12:9-14) 2001.4.11 수

그 동안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지혜의 삶이란 종말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보 았다. 해 아래 새것이 없지만 그리스도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사실을 "여호와 를 경외함으로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13)으로 요약해서 말한다. 전도자가 말하는 인생의 본분을 다하는 삶은 바로 우리 주님의 삶이다. 왜냐하면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오신 주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과 그 명령을 전적으로 순종하신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겐세마네 동산이 나 대제사장과 빌라도 앞에서의 심문과정이나 십자가상에서의 고통하는 사건 에서 이런 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도자가 말하는 인생의 본분이란 무엇이며, 또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하는가? 첫째 무엇이 인생의 본분인가?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고 했다. 본분이란 "온전한 의무"(the whole duty), "의무의 총화"라고 말할 수 있다. 나무의 뿌리와 같고 집의 기초와 같은 것이 본분이다. 본분이란 may 가 아니고 must 이다.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반드시 해야되고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다. 그는 인생의 본분을 두 가지로 설명했 다. 1)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했다. 여기 "경외(fear)"란 말은 공포의 두 려움과 구분된다. 마귀는 공포를 안겨준다. 싫어지고 멀리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진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경외란 사랑을 동반한 두려움이다. 그 분에게 가까이 가고 싶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지는 끈끈한 정이 통하는 그런 것이다. 시2:11-12에 "여호와 는 경외함으로 기고 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는 말씀처럼 근신과 깨어있는
 선한 긴장이 있는 것을 가리킨다. 이런 사랑과 긴장을 가진 두려움이
 성도의 가슴에 잃어져선 안된다. 이것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이다. 2)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이 본분이다.
 경외심은 자연히 명령 순종으로 연결된다. 그의 말 씀이라면 어렵게
 여기고 무작정, 무조건적으로 그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다. 나
 다나엘에게 그의 전지하심이 드러나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의 전능이
 드러났 을 때 이 경외심이 일어났고 곧이어 순종으로 나아갔다. 이것이
 신령한 지식이다. 이런 경외함과 순종함이 나의 뿌리, 나의 배경, 나의
 기초, 나의 지정의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11:9 121) 둘째 그러면 인생의
 본분을 어떻게 지킬까? 인생의 근본을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지켜나가고 파수하고 보호해야 한다. 인생의 근본을 어떻게
 지켜나갈까? 1) 기록된 진리의 말씀의 거울 앞에 정직하게 섬으로 된다.
 (10) 2) 목자의 음성을 잘 들음으로 된다.(12)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 여기 나오는 목자는 하나님이다.(시23:, 요10:) 고난 당하신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며 그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
 그런 사랑의 목자는 자기 양을 잘 알고 꼴을 주신다. 그 말씀을 먹 을 때
 우리는 본분을 잘 지킬 수 있다. 근본을 아는 자란 기록된 말씀에 착념
 하여 거기서 나오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이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 게 일어난 체험, 성경을 풀어줄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
 마음 문이 열리 는 체험이 말씀을 대할 때 일어나야만 한다. 이것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다. 이럴 때 경외심과 순종심이 일어나 인생의 본분을 지키 나가게 되는 것이다.

Duty of Life (Ecclesiastes 12:9-14) Wednesday, April 11, 2001

In the meantime, through the book of Ecclesiastes, we have considered from various angles that the Christian life of wisdom is living in proper service to God with awareness of the end. The fact that there is nothing new under the sun, but can only be enjoyed in Christ, is summarized as “Fearing the Lord and keeping his commandments” (13). The life that the evangelist describes as fulfilling one's duty in life is the life of our Lord. This is because the Lord, who came as both true God and true man, showed his fear of Jehovah and complete obedience to his commands. In particular, examples of this can be found in the Garden of Gethsemane, the interrogation process before the high priest and Pilate, and the suffering on the cross. What is the mission of life that the evangelist speaks of, and what must we do to achieve it? First, what is the duty of life? In verse 13, he said, "Now that you have heard the end of the matter, fear God and keep his commandments; this is man's duty." Duty can be said to be “the whole duty,” “the sum of duties.” Our duty is like the roots of a tree and the foundation of a house. Duty is not may, but must. Just as you will die if you do not eat, you must do it and it is directly related to life. He explained the duties of life in two ways. 1) It is said to fear God. The word “fear” here is distinct from the fear of fear. The devil brings fear. He starts to hate you, wants to stay away from you, wants to run away. However, the reverence spoken of here is fear accompanied by love. It is something that connects with a strong affection that makes you want to get closer to Him and give everything to Him. As in Psalm 2:11-12, “Crawl in fear of the Lord and

rejoice; kiss his son,” it refers to the good tension of being disciplined and alert. This love and tense fear must not be lost in the hearts of believers. Because following this is our life and our duty. 2) Obeying God’s commands is our duty. Fear naturally leads to command obedience. When it comes to what he says, obedience is to consider it difficult and do it blindly and unconditionally. When his omniscience was revealed to me, Daniel, and his omnipotence was revealed at the wedding feast in Cana, this awe arose and then immediately moved on to obedience. This is divine knowledge. This kind of reverence and obedience must become my roots, my background, my foundation, and the foundation of my purpose. (11:9 121) Second, then, how do we keep our duty in life? It is not possible to know the fundamentals of life. This must be maintained, guarded, and protected. How do we maintain the fundamentals of life? 1) Be honest before the mirror of the written word of truth. (10) 2) It is done by listening carefully to the voice of the shepherd. (12) “The words of a wise man are like a sharp whip, and the words of a leader of the congregation are like nails driven in. They are all given by one shepherd.” The shepherd here is God. (Psalm 23:, John 10:) Our Lord who suffered was the good shepherd, and he gave his life for the sheep. Such a loving shepherd knows his sheep well and provides pasture for them. When we eat that word, we can keep our duty well. Those who know the fundamentals are those who pay attention to the written word and live by receiving the grace that comes from it. The experience that happened to the two disciples on the road to Emmaus, the experience of having your heart warmed when reading the Bible, and the experience of opening your heart, must occur when you encounter the Word. This is the experience of meeting the Lord personally. At times like this, reverence and obedience arise and we continue to fulfill our duties in life.

네 식물을 물에 던지라 (전11:1-8)

다니엘의 예언대로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많은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 눈을 들어 받을 바라볼 때 구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육적 기아와 천연재해로 인한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영적 도움이 절실히 요청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 크리스 찬 허무주의를 강조하는 전도자는 구제에 대한 교훈을 말함으로서 이 세상에 서의 새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있는 신본주의 사람임이 더욱 돋보인다. 1절에 네 식물을 물에 던지는 것은 구제하는 일이다. 주님 가르치신대로 오른 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구제란 어떤 것인지 전도자를 통해 들어 첫째, 구제할 이유 왜 우리는 구제해야하는가? 성경에 의하면 자기 생존 비결이 구제이라 한다. 받았으면 나누어주는 것은 자연의 원리이며 영적 원리이다. 모든 것이 다 주고 받음으로 시작된다. 3절도 구름에 비가 있으면 쏟아진다고 했다. 오래 고 이면 썩어 버린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는 주님의 말씀은 삶의 레이고 그리고 소리가 우에 없어, 장의추거이다 동안전 의 교회자애버, 다 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기에 절한 자가 없다고 할 정도였다. 은혜를 받기 원 하는가? 나누어줄 목적으로 그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은 반드시 주신다. 그러나 자기만을 위하고 받는 것이 목적이려면 있는 것도 잃어버리고 거두어 가심을 볼 것이다. 더욱이 전도자는 인간은 미래를 알지 못하는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구제해야한다고 한다. 2절에 보면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 양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고 했다. 여기서 우리는 구제할 이 유를 발견한다. 구제의 긴박성을 가리킨다.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항상 좋은 날이 아니다. 우리는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때가 바로 기회 인 줄 알고 부지런히 구제해야한다. 4-
 6절에 우리는 바람이 부는 길과 아이 벤 자의 태 속의 아이의 뼈가
 어떻게 형성되는 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만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식물을 물위에 던져야한다고 했다. 받는 인 생보다 주는
 인생의 목표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둘째, 구제의 방법 그러면
 어떻게 구제할까? 본문 1-2절에 "너는 네 식물을 물위에 던지라 여 러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이나 여덟에게 나눠줄지니라"고 했다. 여기서
 우 리는 구제 방법을 발견한다. (1) 은밀하게 해야한다. 물위에 던지라는
 말은 은 밀하게 하라는 말이다. 마태복음 6:6절에도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고 했 다. 하나님 앞 에 서 있을 때만이 은밀하게 할 수
 있다. (2) 자신의 것으로 해야 한다. 자신의 것, 자기의 은사, 자기 희생과
 각오를 가지고 구제하라는 말이다. 전깃불보다 촛불이 되어 수고가 따른
 사랑이어야 의미가 있다. (3) 하나님의 심 정으로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한다. 일곱이나 여덟에게 던지라는 말은 많이 주라는 말이다.
 많이 구제하는 자가 정복자다,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민족 을 위해
 주었고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자기 동족의 복음화
 를 그렇게 원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 헌금 할 때 우리는 구제의 방법을 따라서 은밀하게, 자기의 것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 어 주어야한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기 위하여
 구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런 정복자의 마음으로 살아가 자. 바른 구제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는 약속을 현실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구제하는 인생의 복을 누리기 바란다.

Throw your food into the water (Ecclesiastes 11:1-8)

Even in an age where people travel quickly and have a lot of knowledge, as Daniel prophesied, when we lift our eyes and look at the fields, we can easily see that there are too many people in need of relief. How many people around us are in desperate need of spiritual help, as well as those suffering from physical hunger and natural disasters? The evangelist who emphasizes Christian nihilism stands out as a theological person who knows what new life in this world is by speaking of lessons about salvation. In verse 1, throwing your plants into the water is an act of almsgiving. As the Lord taught, we heard from the evangelist what kind of almsgiving is to make the left hand not know what the right hand is doing. First, the reason for giving. Why should we give? According to the Bible, the secret to one's survival is charity. It is a natural and spiritual principle to give after receiving. Everything begins with giving and receiving. Verse 3 also says that if there is rain in the clouds, it will pour. If it stays for too long, it rots. The Lord's words that those who give are more blessed than those who receive are the words of life, and there is no voice, and it is a funeral, and it was said that no one bowed down to share it with others. Do you want to receive grace? When we seek that grace for the purpose of sharing, the Lord will definitely give it. However, if your goal is to receive only for yourself, you will lose what you have and see it taken away. Moreover, the evangelist says that humans are limited beings who do not know the future, so he must save them. Verse 2 says, "Give to the seven or to

the eight, for you do not know what calamity will come on the earth.” Here we find a reason to save. It indicates the urgency of relief. It's not always there. It's not always a good day. If there is anything we can do for our neighbors, we must do so diligently, knowing that this is an opportunity. Verses 4-6 say that since we have no idea how the wind blows or how the bones of the child are formed in the womb of a pregnant woman, we must rely on God, who accomplishes all things, and throw the plants on the water. I hope that your goal will change from a life of receiving to a life of giving. Second, the method of relief. So how do we provide relief? In verses 1-2 of the text, it says, “Throw your food on the water, and after many days you will get it back. Divide it among seven or eight.” Here we find a way to salvation. (1) It must be done secretly. Casting it on the water means doing it secretly. Matthew 6:6 also says, “Do your giving in secret.” You can do it in secret only when you are standing before God. (2) You must do it on your own. Your own, your own gifts, and self-sacrifice. It is meaningful to give charity with determination and determination. (3) To give to many people with the heart of God means to give a lot. A giver is a conqueror. Moses gave his life for the nation, and Paul wanted to evangelize his people even if he was cut off from Christ when he ga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people. We must follow the method of giving and give to many people in secret. We should not give in hopes of receiving something, but should live with the spirit of a conqueror since we have received it for free from God. Now, don't forget that proper almsgiving is a realistic promise that "you will get it back after many days," and enjoy the blessings of a life of almsgiving.

선덕사의 지혜 (잠10:1-20) 2001.3.27 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덕을 세우는 선덕사로 부름 받는다. 그래서 베드로는 벧전2:9에서 구원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 우리를 택한 목적이라고 했다. "덕"이란 유익이란 뜻이다. 진정한 덕은 그리스도의 공로가 적용된 복음의 삶을 가리킴으로 로마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썬 지키는 것이 덕이고 했고, 우리 주님도 "발을 서로 씻기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오늘 10장에 나오는 여러 잠언은 해 아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가장 복된 삶,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지혜와 우매를 비교하여 지혜의 탁월함을 우리에게 잘 말해준다. 그 중, 우리는 덕을 세우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세 가지만 생각하려한다. 선덕사는 무슨 지혜가 필요한가? 첫째. 그는 공순한 침묵이 필요하다.(1-6) 이미 우리는 곤고한 날에 "생각하라"(7:15)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기 를 생각하는 지혜를 생각했었다. 또다시 전도자는 인생의 우매에 대해서 말하면서 애매한 고난이든 실수든지 난관을 만날 때 침묵의 자세를 가르쳐준다. 이것이 선덕사의 지혜인 것이다. 1-2절에 보면 작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파괴한다고 했다. 우매자에게 높은 지위를 들려주면 우매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 5-6절에 주권자가 우매하여 우매자가 큰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고. 종들이 말을 타고 방백들이 땅에 걸터다닌다고 했다. 그래서 주권자의 분노 앞에서 공순하라고 했다.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공순(Calmness)하여 침묵하면 큰 허물도 가볍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예수님의 침묵을 배우는 것이 선덕사가 배워야 할 지혜이다. 구스

내시가 읽은 사53:7-8절의 말씀에 보여진 잠잠한 어린양은
 침묵일관이었다. 십자가를 지는 침묵이 위대한 일을 이루는 자세이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쉬는 침묵이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침묵으로서 하나님의 풍성한 구속을 맛보고 이 은혜로
 우리 주변을 새롭게 하는 자로서 살아가자. 둘째. 그는 예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8-11) 선덕사는 장래 일을 내다보기 때문에 준비하는 자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근심을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다.(요14:1-3) 선덕사인 그리스도인은 앞의 것을 미리 준비하는
 자다. 함정을 파는 자가 거기에 빠지고, 담을 허는 자가 뱀에게 물리고,
 돌을 떠내는 자가 상하고, 나무를 쪼개는 자가 위험을 당한다.(8) 힘이 더
 들지 않도록 무. 철 연장을 고(10), 뱀에 물리기전에 방술을 행하라(12)고
 했다. 선덕사는 미리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한다. 그러자면
 근면해야한다.(15-19) 어린 왕과 아침에 연락하는 대신은 화가 있다는
 나라이지만 귀족의 아들인 왕과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기력을 보하려고
 먹는 나라는 복이 있다(16)고 했다. 우리는 선덕사로 일을 잘하기 위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 미리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자. 셋째. 그는
 은혜로운 말이 필요하다(12-20) 그리스도의 선덕사는 말로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많다. 그래서 말을 소금 처럼 은혜로 고르게 해야 한다.
 지혜자의 말과 우매자의 말의 영향은 전혀 다르다.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12) 입의 말은 우매요 끝은
 광패이며(13)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나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14) 그리고 20절에도 심중에서도 왕을 저주치 말고 침 방에서도
 부자를 저주치 말라 공중의 새와 날짐승이 그것을 전파한다고 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말에 있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리에 나가자. 선덕사는 덕으로서 주변을 은혜롭게 만드는 자이다. 그러자면 자신이 그리스도의 덕으로 충만해야한다. 침묵정진을 배워야한다. 문제를 알고 미리 예방 해야한다. 남의 상처를 치료하는 은혜로운 말을 해야한다. 이런 선덕사의 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한다.

Wisdom of Seondeoksa Temple (Proverbs 10:1-20) 2001.3.27 Wed

Christians who receive salvation by accepting Christ are called to be edifying people. So, in 1 Peter 2:9, Peter said that the purpose of choosing us was "to proclaim the beautiful virtues of him who brought us into the wonderful light of salvation." Virtue means benefit. True virtue is the virtue through which the merits of Christ are applied. Referring to the life of the gospel, Robaul said that living a life worthy of the gospel and maintaining the unity of the Holy Spirit are virtues, and our Lord also explained it as "washing one another's feet" and "loving one another." Several proverbs in Chapter 10 show what the most blessed and wise life is for those who fear the Lord under the sun, and they compare wisdom and foolishness and tell us about the excellence of wisdom. First, what kind of wisdom does Seondeoksa need? (1-6) We are already told to "think" in difficult times (7:15). Through this, the evangelist once again talks about the foolishness of life and teaches the attitude of silence when faced with difficulties such as ambiguous hardships or mistakes. In the verse, it is said that a little foolishness destroys wisdom and honor, and if a high position is given to a fool, the ruler will live in foolishness, and the fool will gain a great position and the rich will sit in a low position. It is said that servants ride horses and princes walk on the earth, so even if they are treated unfairly in the face of the anger of the sovereign, Jesus' silence can be

lightened. Learning is the wisdom that Seondeoksa must learn. The silent Lamb shown in the words of Isaiah 53:7-8 is the attitude of silence carrying the cross to achieve great works. It is the silence of thinking and resting in it. Let us taste God's abundant redemption through the silence of the Lord's cross and live as those who renew our surroundings (8-11) Second, virtue. People are prepared because they look ahead to the future. Our Lord has prepared everything to resolve our concerns. (John 14:1-3) A Christian who is a virtuous person is one who prepares for the future in advance. The person who digs a trap falls into it, the person who breaks down the wall gets bitten by a snake, the person who removes the stone gets hurt, and the person who splits the wood is in danger. (8) Avoid using more force. He advised to use iron tools (10) and to practice magic before being bitten by a snake (12). Seondeoksa must live a life of preparation in advance. In order to do so, you must be diligent. (15-19) Woe to the minister who contacts a young king in the morning, but blessed is the nation that eats to maintain strength rather than getting drunk with the king who is the son of a nobleman (16). . Let us live as Seondeoksa people who prepare in advance before something happens in order to do our work well. Third. He needs gracious words (12-20) Christ's virtuous work often helps people with words. So he must make sure his words are seasoned with grace, like salt. The impact of the words of a wise man and the words of a fool are completely different. The words of a wise man's mouth are gracious, but the lips of a fool swallow him up.(12) The words of his mouth are foolishness, and their end is foolishness.(13) It is said that a fool speaks much, but he does not know what will happen in the future.(14)) And verse 20 also says, do not curse the king in your heart, and do not curse the rich man in your bedroom. The birds and birds of the air spread it. As

witnesses of Christ, let us go out into positions where we are governed by the Holy Spirit in our speech. A Seondeoksa is a person who brings grace to those around him through virtue. To do so, he must himself be filled with the virtues of Christ. He must learn to move forward in silence. He must know the problem and prevent it in advance. He must speak gracious words that heal the wounds of others. I hope that the wisdom of Seondeoksa Temple will be filled with this kind of wisdom.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전9:11-18)

아무리 해엄을 잘 치는 물고기도 물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니며, 아무리 잘 나는 새 도 공기가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간은 어느 한 순간도 살수 없는 존재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진리 를 배우는 것이 특징이다. 아브라함, 다윗,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는 심정으로 살았다.(엡2:8-9)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는가?" 실제로 하나 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겸손과 신실을 배울 뿐 아니라 그 것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시편기자의 자리에 나간다. (시73:25)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며 그것을 세우려고 한 사상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지 않은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 개혁자들의 확신이었다. 오늘 전도자는 자기 나름대로 수많은 노 력과 자유로운 활동을 체험하고 연구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말하 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철학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 그것은 무엇인가? 첫째, 은혜 안에서 겸손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기서 전도자는 인간 노력의 한계 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보여준다. 11절에 빠른 경주자, 유력자, 지 예전에 버지 능자라고 있다. 이것은 앞 사업의 우예의 안 다는 자에게 9할220) 성경에는 "시기와 우연"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많이 보여준다. 우연히 쏜 화살이 변 복한 아합 왕을 맞춘 것도 하나님의 허락인 것이다. 세겔 사람을 호기심에서 보러나갔 던 다나의 봉변과 대 살상은 야곱을 부수시는

주님의 손이셨다. 낚시한 고기의 입에 한 세겔 동전이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주님이 예정하신 것이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를 제하고서는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지혜로 무슨 일을 이 루었어도 우리는 결코 자랑할 수가 없다.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는 고백이 바른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방식 제 일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의 겸손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겸손은 은혜를 받는 그릇이고, 겸손은 은혜 받은 자의 열매이다. 은혜 받으려면 겸손해야 한다. 의도적으로도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하고, 섭리적 고난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신다.(슥3:17) 성산에서는 모든 교만을 반드시 끊어버리신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사 모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란다. 둘째, 작은 일일지라도 신실하게 행한다. 여기서 전도자는 은혜가운데 산다하여 수 고가 들어가지 않은 무위도식하는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작은 일에 충성 할 것을 가리킨다. 은혜는 진정한 수고가 들어갈 때 은혜다워진다. 예를 들면 기도할 때 수고가 필요하다. 성경연구에도 수고가 필요하다. 수고와 노력과 고생을 빼버린 은혜 를 갈구하도록 마귀는 우리를 계속 유혹한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절하면 쉽게준다고 약속한다. 오늘 본문 16절에는 작은 지혜로 나라를 구한 사건을 보이면서 작은 일에 신실 하라고 가르쳤다. 한 여인이 시세라를 죽여 나라를 구하거나 아비가일의 지혜가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게함으로(삼상25:28) 범죄를 막은 것은 이 여인의 지혜였다. 잠언에 작으 나 지혜로운 것, 서넛이 있는데(잠30:24-28) 개미는 준비에, 사반(바위 너구리)은 방어 에, 메뚜기는 자발적인 연합에, 도마뱀은

왕궁부요를 누리는 지혜를 보임으로서 작은 일에 대한 신실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말기 바란다. 작은 일에
 신실한 삶이 우리의 길이다. 세째,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해야한다.
 이렇게 은혜의 삶은 겸손을 만들고 지혜의 삶은 작은 일에 대한
 신실함을 만들고 이 둘은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한 삶이 지혜이며 은혜의 삶이기
 때문이다. 왜냐? 오늘 15-16절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밝혀 준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구했어도 후대의 사람들은 그를 기억치 않는 것이
 인 간의 한계이다. 사람에게 잘 보이고, 칭찬 들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헛되게 한다. 마리아의 옥함을 깨뜨린 헌신은 바로 이런 자리에
 있었기에 위대한 것이었다. 바울의 말처럼 그는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확신하고 몸소 그렇게 한 것이다. 만족은 오직
 하나님에게로서 나오는 것을 잘 깨달았기에 그런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하게 살며 작은 일에
 신실하게 사는 자이다. 이런 삶은 오직 주님으로만 만족함으로 나아간다.
 바울의 권고대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한다.

Let him grow in grace (Ecclesiastes 9:11-18)

Just as a fish, no matter how well it swims, is nothing without water, and a
 bird, no matter how well it flies, is nothing without air, humans without the
 grace of God cannot live even for a single moment. Therefore, Christians are
 characterized by learning the truth that can only be achieved by God's grace as

each day passes. Abraham, David, and Paul also lived with the sentiment,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Ephesians 2:8-9) Do you believe, “It is by the grace of God that I am what I am?” Do you believe that it actually came about by the grace of God? If so, that person will not only learn humility and faithfulness, but through them, he or she will become a psalmist who is satisfied with God. (Psalm 73:25) So, the reformers' doctrine was that, of all the ideas that emphasized human free will and tried to establish it, there was almost nothing that did not steal the glory of God. Today's evangelist has experienced and studied countless efforts and free activities on his own, but he still says that it is through the grace of God. It clearly shows us the Christian life philosophy of starting with the grace of God, proceeding with the grace of God, and living by the grace of God. What's that? first. It is living humbly in grace. Here, the evangelist points out the limits of human effort and shows that we live by the grace of God. In verse 11, it says that he was a fast racer, a strong man, and a powerful man. This is 90% to those who know the wisdom of the preceding business. The Bible shows many times that God works through “timing and coincidence.” It was God's permission that the arrow accidentally shot hit the betrayed King Ahab. The uprising and mass murder of Dana, who went out to see the people of Shechem out of curiosity, was the hand of the Lord crushing Jacob. It was not a coincidence that there was a shekel coin in the mouth of the fish that was caught, but it was planned by the Lord. That is why everything in this world cannot be resolved without the grace of the Lord. So no matter what we have achieved with our own wisdom, we can never boast about it. Like Paul, it is correct to confess that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Therefore, we must be confident that the first part of a Christian's lifestyle comes from the grace of God. So humility in

grace should be our life. Humility is a vessel that receives grace, and humility is the fruit of those who receive grace. To receive grace, you must be humble. We must know how to humble ourselves intentionally, and God humbles us through providential suffering. (Zeph 3:17) All pride must be cut off on the Holy Mountain. I hope that you will seek grace and live humbly. Second, even if it is a small task, do it faithfully. Here, the evangelist is not talking about a life of inaction and no effort by living in grace. On the contrary, it refers to being faithful in small things. Grace becomes grace when true effort is put into it. For example, it takes effort to pray. Studying the Bible also requires effort. The devil continues to tempt us to crave grace that takes away our hard work, effort, and suffering. He promises that he will easily give you the glory of all the nations of the world if you bow down to him. Verse 16 of today's text shows an incident in which a nation was saved with a little wisdom and taught to be faithful in small things. It was this woman's wisdom that prevented her crime, such as saving her kingdom by killing Sisera, or her Abigail's wisdom allaying David's anger (1 Samuel 25:28). In the book of Proverbs, there are three small but wise things (Prov. 30:24-28): the ant is for preparation, the rock raccoon is for defense, the grasshopper is for voluntary association, and the lizard is for showing wisdom in enjoying royal wealth. It teaches us the importance of faithfulness to work. Please don't ignore the little things. A life of faithfulness in small things is our path. Third, we must be satisfied only with God. In this way, the life of grace creates humility, and the life of wisdom creates faithfulness in small things, and both lead us to a place where we are satisfied only with Christ. This is because a life that is satisfied only with God is a life of wisdom and grace. because? Today's verses 15-16 reveal to us the reason. Even though he saved his country with such wisdom,

the people of later generations do not remember him, which is the limit of humanity. Trying to impress people and get compliments makes us vain. Mary's devotion to breaking the alabaster box was great because it was in this situation. As Paul said, he was convinced that all things come from the Lord and return to the Lord, and he did so himself. I was able to make such a dedication because I fully realized that satisfaction comes only from God. A Christian is someone who lives humbly in the grace of God and is faithful in small things. This kind of life proceeds by being satisfied only with the Lord. I hope that you will grow in the grace of Christ as Paul advises.

영적 즐거움(전9:1-10)

오늘 9장에서 전도자는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오는 "영적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복되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음을 알 때 기쁨이 있지만 금강적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 하나님과의 교감이 없어 이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의 대상과 영역을 다른데 두기 때문에 문제다. 오늘 우리는 이 영적 즐거움이란 어떤 것인지, 즐거워해야 할 영역이 어디인지를 영감 받은 전도자를 통해 듣기를 원한다. 우리는 무엇을 즐거워 해야 하는가? 첫째, 하나님의 손아래 있는 그 자체를 즐거워해야 한다. 1-6절까지 전도자는 "일반"(common destiny)이란 말을 4번 사용했다. "모든 것이 일반이라(2), 결국이 일반이니(2),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라(2)" 그리고 3절에도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것(same destiny)은이라 말했다. 평범한 생활을 누구나 다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아래 있음을 아는 것이 즐거움이다. 그래서 1절에 "네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아래 있으니"라고 했다. 하나님은 모든 선악을 하나도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기에(2) 우리는 하나님의 손아래 있는 그 자체를 즐거워해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믿지 못했을 때는 두려워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의식할 때 아무리 거센 파도가 몰려왔어도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는, 주의 손의 창조는 믿는데 주의 손이 지금도 그 일을 간섭하심을 믿지 못 할 때가 많다. 전신갑주를 다 만들어 주셨는데도 입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다. 취하여 입기만 하면 그

풍성한 승리는 내 것이 된다. 순종하고 사모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일이다. 우리의 모든 일이 다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쉴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즐거움이다. 둘째, 지금 내게 생명 있음을 감사하며 즐거워해야 한다. 전도자는 매우 현실주의자이다. 3절에 하나님의 손안에서 의인이나 악인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은 마치 바울의 복음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들린다. 여기서 장난 기차가 경사진 길을 달리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현재라는 시간에 생명이 있음을 감사해야한다. 그래서 전도자는 죽은 자보다 산 개가 더 낫다고 한다. 이유인즉, 산 자는 죽을 줄을 알지만 죽은 자는 아무 것도 모르고 다시는 상도 못 받고 잊혀진 된다고 한다. 7-8절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라고 한 것은 지금이란 시간에 생명 있음을 감사하고 즐기 라는 뜻이다.

세속주의, 쾌락주의를 권장하는 말이 아니고 오직 주님이 주신 현실의 삶을 감사함으로 임하라는 말이다. 바울이 "세월을 아까라"고 할 때, 현실 이라는 것에 진정한 기회가 무엇인지를 찾으라는 말이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다. 정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진 만이 현실을 바로 살아간다. 주님은 미래잔치의 소망을 약속하시면서 현재의 깨어 있는 삶을 요구하신 이유가 그 날을 바라보는 자마다 흰 의복을 입고, 향 기름을 바르게 되는 것이다. 세째, 가정 생활에서 즐거워 해야한다. 전도자는 우리의 즐거움의 대상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현재라는 삶을 즐거워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가정생활을 즐기라고 했다. 9절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라고 했다. 이것은 가정생활에서의 즐거움이 그 리스도인의 즐거움의 중요한 영역인 것을 가리킨다. 다른 것은 다 하면서 가정생활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것이다. 가정 건강이 하나님 교회의 건강이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교회란 가정의 부부와 자녀관 계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왜 가정 생활의 복종과 사랑을 말했는가? 여기에 비밀이 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한 생활이며, 교회생활의 구체적 적용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가정생활의 즐거움을 누리기 바란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Spiritual Joy (Ecclesiastes 9:1-10)

In today's chapter 9, the evangelist says that it is blessed to enjoy the "spiritual joy" that comes from communicating with God. There is joy in knowing that God has heard my prayers, but if you do not want to listen to the Word with a diamond heart, you will not be able to enjoy this joy because you will not have communion with God. However, this is a problem because many people place the object and area of enjoyment in different places. Today we want to hear from an inspired evangelist what this spiritual joy is and what areas we should rejoice in. What should we be happy about? First, we must enjoy being under the hand of God. From verses 1 to 6, the evangelist used the word "common destiny" four times. "Everything is common (2), the end is common (2), "the good and the best, those who swear and those who are afraid to swear are common (2)" and also in verse 3, the end of everyone is common. Although we all live ordinary lives, it is a joy to know that we are under the

hand of God, so in verse 1, “If you examine all these things with all your heart, you will be righteous and wise.” “Everything they do is under the hand of God.” Since God is not ignorant of all good and evil (2), we should rejoice in being under the hand of God. Jesus’ disciples are also in the hand of God. When we did not believe, we were afraid, but when we were conscious of God’s hand, we were not shaken no matter how strong the waves were. Although we believe in the creation of the Lord’s hand, there are many times when we do not believe that the Lord’s hand is still interfering with that work. Even though the whole armor has been made, there are many times when we do not want to put it on, and the abundant victory becomes ours when we know that everything we do is in the hands of the Lord. We can rest in it. This is our spiritual joy. Second, the evangelist says in verse 3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being a righteous person and being a wicked person. It sounds as if the joke train is running down a steep road.” Therefore, we must be thankful that life exists in the present. That is why the evangelist says that a living dog is better than a dead lion. The reason is that the living know that they will die, but the dead do not know anything and are never rewarded or forgotten again. Verses 7-8 say, “Go, eat your food with joy, and drink your wine with a cheerful heart, for God has already been pleased with what you have done.” This means being thankful and enjoying life at this time. It means. This does not encourage secularism or hedonism; it simply means that you should approach the real life that the Lord has given you with gratitude. When Paul says, “Take advantage of time,” he means to find out what the true opportunities are in reality. This is a life of abundant grace lived in faith. Only those who truly have hope for the future live in reality. The reason why the Lord required a present, awake life while promising the hope of a future feast

is that everyone who looks forward to that day will wear white clothes and be anointed with incense oil. Third, you must enjoy your family life. The evangelist said that the object of our joy is to enjoy the present life in the hands of God, and lastly, he told us to enjoy family life. He said in verse 9, “Live happily with your wife whom you love.” This indicates that enjoyment in family life is an important area of Christian enjoyment. It would be foolish to do everything else and not enjoy the joys of family life. Family health is the health of God’s church. The church united by the Holy Spirit in Ephesians must be embodi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husband and wife and children in the family. Why did you speak of obedience and love in family life? Here’s a secret. This is because this is the life of Christ and the specific application of the church life. I hope you enjoy the joys of family life. Because this is one of the most beautiful lives.

지혜로운 사람의 생활 (전8:1-17) 2001.3. 7.

전도서 8장은 여러 가지 교훈과 반성으로 되어있다. 1절에 지혜자가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타나 하나니 그 얼굴의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는 말은 사나운 얼굴이 밝은 얼굴로 변하는 것은 바로 지혜의 역할이라고 한다. 이런 지혜를 소유한 자는 어떤 삶을 사는지 전도자를 통해 들어보자. 첫째,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게 된다. 2-8절에 보면, 왕 앞에서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지 말고 그 권위를 인정하라고 가르쳤다. 왕 앞에 급거히 물러가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3)", .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적절한 때)와 판단(규정)을 분별하나니(4)" 지혜자는 하나님의 경륜(administration)안에 있는 인간을 보기 때문에 복종의 지혜를 따름이 행복인줄 안다. 장래도 모르고; 생기도 모르고, 죽는 날도 모르고, 전쟁을 피할 방법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복종하는 것이 지혜인 줄 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는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라는 가르침을 받는다. 가정에서는, 부모와 남편, 직장에서는 상사, 나라에서는 임금. 교회에서는 목사에 게 복종하도록 철저히 가르친다. 성령이 오신 이유가 바로 권위에 대한 복종을 배우게 함에 있다. (엡 5:18절 이하 참고) 에베소서 4:3절에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은 교회 머리인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복종하라는 뜻이다. 복종은 그리스도인의 주된 임무이고 몸을 세우는 근본 수단이다. 엡5:22-24절에 나오는 부부 관계에서의 복종과 6:5-8절에 나오는 상전에 대한 복종은 모두 권위에 대한 복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한다. 남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순종함이라 했고 상전에 대한 복종일지라도 주께서
 친히 다 갚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각종 권위를 반대하는 것보다 순
 종하는 것이 참다운 지혜인 것이다. 둘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일반제도의 권위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순종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 그 목표이다. 9-10절에서 전도자는 변칙하는
 상황을 내다보면서도 주님의 주권을 찬양했다. 백번의 악을 범해도
 장수하는 일이 있다고 말한다. 14 절에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고 했다. 의인이 잊혀진바
 될 때 의를 행할 의욕을 잃어버리기 쉽다. 그리고 이런 수 없다"는 주권
 신앙을 따름이 지혜인 것이다. 주님의 주권이 세워질 때 능력 이 임하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셋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에
 머문다. 또다시 전도자는 권위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언제나
 인정하는 자리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지혜라고
 말한다. 그래서 11-13 절에 전도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잘된다"는
 확신에 넘쳐있다. 사람의 먹고 마시는 순간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활의
 치를 알고, 현실에 충실할 때 이것이 복이다. 여호와 경외는 예배로
 표현되고 찬송으로 표현되고 기도 로 표현된다. 바울은 감옥에
 있다할지라도 그런 찬양과 소망에 넘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
 환경이 문제되지 않았고 도리어 감옥에 갇힘을 영광이라 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경외하는 자리이다. 이런 지혜 가 마구
 솟아나는 곳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리이다. 참된 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한다.

The life of a wise person (Ecclesiastes 8:1-17) 2001.3. 7.

Chapter 8 of Ecclesiastes contains various lessons and reflections. In verse 1, “Who is the wise man, and who knows the interpretation of sarira? A man’s wisdom makes his face shine, and the ferocity of his face changes.” This means that a ferocious face is ill with a bright face. It is said to be the role of wisdom. Let’s hear from the evangelist what kind of life a person who possesses such wisdom lives. First, he must not act recklessly in front of the king. He taught us to recognize authority and not to quickly withdraw from the presence of the king or to do evil, for the king does whatever he wants. (3), . “The heart of a wise person discerns timing (appropriate time) and judgment (regulations). (4)” Because a wise person sees humans in God’s administration, he knows that following the wisdom of obedience is happiness. Without knowing the future; Since we do not know birth, the day of death, or how to avoid war, we know that it is wise to acknowledge God’s authority and obey it. In many places in the Bible we are taught to respect and obey authority. At home, parents and husband, at work, a boss, and in the country, a king. The church thoroughly teaches us to obey the pastor. The reason the Holy Spirit came is to help us learn obedience to authority. (Refer to Ephesians 5:18 et seq.) In Ephesians 4:3, “Make every effort to keep the unity of the Spirit” means to completely submit to Christ, the head of the church. Obedience is the main task of Christians and a fundamental means of building up the body. Obedience in the marital relationship in Ephesians 5:22-24 and submission to the master in 6:5-8 both teach us how important submission to authority is to Christ. Second, it is true wisdom to obey rather than oppose various authorities, even if it is obedience to one’s superior. The goal of obedience is to lead to obedience to God’s absolute authority. In verses 9-10,

the evangelist praised the Lord's sovereignty even if one commits evil a hundred times. Verse 14 says, "For there is vanity in the world: some righteous people receive it according to the deeds of the wicked, and some wicked people receive it according to the deeds of the righteous. This, I say, is futile." When the righteous are forgotten, it is easy to lose the will to do righteousness. And it is wisdom to follow the faith of sovereignty that says, "This cannot be done." This is because when the sovereignty of the Lord is established, the power comes and the Lord is glorified. Third. Stay in a position of fearing the Lord. Again, the evangelist obeys authority and Therefore, in verses 11-13, the evangelist says that it is wisdom to always acknowledge God's sovereignty, that is, to remain in a position of fearing Jehovah. This is a blessing when one knows the value of living a life that pleases God at the moment of eating and drinking, and is faithful to reality. The fear of Jehovah is expressed through worship, praise, and prayer. Even if Paul was in prison, he was able to offer such a prayer overflowing with praise and hope. The environment was not a problem, and on the contrary, one could say that being imprisoned was an honor. This is the place of fear of the Lord. The place where this kind of wisdom springs forth is the place where the Lord is loved and feared. I wish you to live a life of true wisdom.

나는 정직한 사람인가? (전7:25-29) 2001.2.29 수

오늘은 정직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정직이란 의(upright)를, 가 리킨다. 정직한 사람이란 의인을 가리킨다.(7:20고) 그리고 정직은 단순성 (simplicity)을 가리킨다. 이 단순성은 그리스도인의 특성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무사기성을 가리킨다. 그래서 전도자는 29절에 본래 정직한 인생이 꾀를 많 님 앞과 사람 앞에 얼마나 정직한가? 정직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로 놀라운 변화 가 함께하기를 축원한다. 본래의 인간은 정직했었다. 본래의 인간은 정직한 존재였다고 전도자는 말한다. 29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니"라고 한 것을 보면 인간은 정 직한 존재로서의 창조물이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정 직을 닮은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임을 가리키 면서, 엡4:22-23에. "너희는 유혹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 어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 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고 했다. 여기 나온 새사람은 3가지 요소인 의의 모습, 진실의 모습, 거룩한 모습은 서로 관련을 가진 것으로서 정직이란 말로 요약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진리를 떠난 정직이란 없고 거룩을 무시한 정직이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도자가 헛된 것으로 채워진 세상에서 많은 경험과 연구를 통해서 깨달 있었고 다니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다. 나다니엘을 향해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직한 사람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정직한 자의 꿈을 꾸면서 살아가자. 타락한 인간은 부정직한 존재로 떨어졌다. 그런데

이런 정직한 존재인 인간이 타락하여 부정직한 존재가 된 것이 비극이었다. 많은 피를 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29) 그래서 인간은 하는 일마다 부 정식으로 지혜를 짜내기 때문에 사망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한다. 전도자는 "사망보 다 독한 여인이 바로 인생이라고 했다. 마음은 올무와 그물이 있고, 손에는 포승 이 있는 음녀로 비유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을 떠난 세상주의자들의 모습 인간의 :의관이 원의 28호에 며, 이의 공의 기적 한 나 병의 마이 모든 천 여인가운데 한사람의 정직자도 찾지 못했다고 한 것은 천 명의 아내를 둔 솔 로몬의 경험적 진리로서 여전히 인생은 거짓됨을 배웠다는 말이다. 바울은 성령 으로 이것을 깨닫고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짓된 인생임"을 말한바 있다. 만물보 다 더 부패한 것이 인생이다. 이런 인간의 실상을 알고 받아드릴 때 거기서부터 진정한 지혜가 시작되는 것이다. 오직 주의 보혈을 믿음으로만 정직이 회복된다. 시편 78편에는 인간의 범죄사를 다룬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매를 감하지 서도 주님을 기뻐하는 자만이 이기고 죄인은 그 올무에 쉽게 걸린다고 했다. 여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오직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를 가리킨다. 다윗이 거짓의 포로가 되었다가 오직 주의 보혈로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된 것처럼 (시51:) 오늘날 모든 성도가 이기는 길은 오직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길뿐이다. 주께 나갈 때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나가자. 오직 그의 피를 통과할 때만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 은 이전에 적의 사 글리스도인의 나 이라 이다. 구리, 우리의 버지된 마지하면 보길 음으로 나아가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달라고 기도하자. 이것이 능력의 삶이며 정복자의 삶인 것이다.

Am I an honest person? (Ecclesiastes 7:25-29) Wednesday, February 29, 2001

Today I would like to think about the importance of honesty. Honesty refers to uprightness. An honest person refers to a righteous person (7:20) And honesty refers to simplicity. This simplicity indicates a childlike heart and selflessness as a Christian characteristic. So, in verse 29, the evangelist asks, How honest is a person who is inherently honest before God and before people? I pray that amazing changes will occur through the work of the Holy Spirit, the spirit of honesty. The original human being was honest. The evangelist says that original humans were honest beings. Verse 29 states, “God created man upright,” which shows that man is a creation of uprightness. Because God made it in his own image. It resembles God’s honesty. So, Paul points out that our salvation is the restoration of the image of God, in Ephesians 4:22-23. “Put off your old self, which is corrupted by deceitfulness, and put on the new self, which is renewed in your spirit, created after God in righteousness and true holiness. This new self is made up of three elements: righteousness. The appearance, the appearance of truth, and the appearance of holiness are interrelated and can be summarized in the word honesty, because there is no honesty apart from the truth, and honesty without holiness is unthinkable in a world filled with vain things. Through experience and research, Daniel realized this and said to Nathanael, “There is no deceit in you.” This is the self-portrait of an honest Christian person. Let us live while dreaming of being an honest person. It is said that fallen humans fell into dishonest existence, but it was a tragedy that humans, who were honest beings, fell and became dishonest (29). That is why humans are dishonest in everything they do. The evangelist said, “The woman who is more poisonous than death is life.” She was likened to a prostitute with a snare and a net in her heart and a

rope in her hand. In fact, this is the image of worldlyists who have left the center of God: the medical profession is number 28 of the Won, and the miracle of this work is that of a woman with leprosy and of all the thousand women, not a single honest man was found. This means that as an empirical truth of Romon, we have learned that life is still a lie. Paul realized this through the Holy Spirit and said, "It is a false life in which there is no one righteous." Life is more corrupt than all things. When we know and accept this human reality, true wisdom begins from there. Honesty can be restored only through faith in the precious blood of the Lord. Psalm 78 deals with the history of human crime. He said that even if the punishment is reduced by God's love and mercy, only those who delight in the Lord will win, and sinners will easily fall into that snare. Here, those who please the Lord refer only to those who rely on the precious blood of the Lord. Just as David became a prisoner of lies, but his honest spirit was renewed only through the blood of the Lord (Psalm 51:), the only way for all saints to win today is by relying on the blood of the Lord. Whenever we go to the Lord, let us go only through the merits of Christ. Only by passing through his blood are we transformed into new people. is the age of the former enemy Christians. Guri, let's move on to the sound of our verge. Pray for a renewal of an honest spirit. This is the life of power and the life of a conqueror.

균형 있는 삶(전7:15-24)

몸매의 균형을 유지하는데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닌데. 모든 생활의 균형을 가진 적 절한 삶을 이루는 것은 더 어렵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이 추구하는 인간상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균형은 우리 평생의 과제이며 이 일을 위하여 성령님이 오신 것이다. 이것을 거룩의 삶. 하나님 닮은 삶, 성령 충만한 삶 등으로 표현할지라도 여전히 균형을 가진 삶'을 가리키는 줄 믿는다. 사실상, 우리가 균형을 잃어버린다면 이것은 아직 미 성숙하다는 말이다. 평상시에 균형 있는 것 같은데. 작은 어려움이 몰려올 때 마치 평 균대에서 균형을 잃어 떨어져 어쩔 줄 모르는 제조선수처럼 자신을 보고 실망할 때가 오늘 본문에 전도자는 바로 이 균형 있는 삶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16-17절 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지나치게 악인이 되 지 말고 우매자가 되지 말라"고 했다. 이것은 의인과 지혜자의 삶을 소극적으로 구하 라는 뜻이거나, 악인과 우매자의 생활을 예찬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균형 잡힌 삶 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것이다. 15절에 보면. 이 세상에서, 의인이 의로운 중에 망하 고, 악인이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엉뚱한 변칙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것 만을 보더라도 전도자는 세상의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없음을 알고. 치우치지 않은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을까? 첫째. 하나님 중심한 생활을 배워야한다. 전도자의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일에 벗어날 것임이니라 (18)는 말은 경외하는 마음이 양극단을 피할 수 있음을 가리켜준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인 것이다. 시 편 73편에서 "복을 정의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함"(25)이라고 말한다. 원수가 잘 되고,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한 것과 맞서 우리는 더 잘 살고, 더 건강하고, 자가용 돌면 더 좋은 것 모든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복이라 하지 않고, 도리어 "임마누엘" 이 복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시인은 고백하기를 하늘과 땅에 나의 사모할 자는 주 님밖에 없다고 했다. 하늘에서 주님만을 내가 가지고, 땅위에서 주님만을 나의 욕망 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소유의 대상, 욕망의 대상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이 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이다. 균형이라고 하니까. 시간의 분량이나, 업무의 분량이 아니다. 균형이란 오직 하나 님을 중심 할 때만 오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이 균형을 오해하기 때문인 것 같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의식이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이 균형을 쉽게 잃어버린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어도 시간, 일, 돈에 대한 우선권을 주님에게 두는 훈련이 필요하다. 둘째. 사람의 평가에 오르내리지 말아야한다. 또, 우리가 균형있는 생활을 위해 한가지 더 기억할 것은 사람의 평가에 오르내리지 않는 확신이다. 21-24절에 보면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말라" 고 했다. 네 종이 너를 저주하고. 너도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함으로 잘 치우치기 때문에 사람의 평가에 오르내리는 것은 이 균형을 깨뜨리기 때문이다. 욕은 이것을 잘 알아 십자가 길을 막는 마귀의 교묘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특히 인본주의의 물결은 이 중심을 어지럽히지만 마침내 망한다. 오늘날 뉴 에이지 운동이 영 지주의다. 여권신장을 주장하는 사상적 뿌리가 영지주의에 있다. 남자는 물질,

악과 동격으로 보고 여자는 영, 선과 동격으로 본다. 여권이 구원에 이르는 열쇠라고 믿어 마침내 성경관에 대해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단수 일 인칭 대명사를 복수 이 인칭 대명사로 바꾸는 일이 예사이다. (예: 요15:5. 계3:20의 NRSV 를 보라) 이것은 단수한 일이 아니라 비 성경적 여권신장으로 나아가려는 증거이다. 그리고 사람의 평가에 오르내리는 자는 자기 기만에 빠져 완전주의에 나아가 더 큰 문제로 나아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좋아해야 한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삶의 목표가 "영광(Glory)"이 아니라 "십자가(Cross)"여야 한다. 이것이 먼저 간 균형 잡힌 성도의 참 모습이었다.. 오늘 우리는 균형 잡힌 삶의 중요성을 생각했다. 하나님 중심 생활이 우리를 복 되게 한다. 이 일을 위해 우리는 수고와 희생을 좋아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를 가장 복된 자로 만들기 때문이다. 이런 은혜가 같이하기를 축원한다.

A balanced life (Ecclesiastes 7:15-24)

Maintaining body balance is not an easy task. It is more difficult to achieve a proper life with balance in all aspects of life. In a sense, balance in Christ, the human image pursued by the Bible, is our lifelong task, and the Holy Spirit came for this task. This is a life of holiness. Even if it is expressed as a life resembling God or a lif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I believe it still refers to a life with balance. In fact, if we lose our balance, we are still immature. It seems like you are normally balanced. When small difficulties come and you feel disappointed in yourself, like a manufacturing athlete who has lost his balance and doesn't know what to do, the evangelist in today's text is talking

about the importance of this balanced life. Verses 16-17 say, “Do not be overly righteous, and do not be overly wise... Do not be overly wicked, and do not be overly foolish.” This means to passively seek the lives of the righteous and wise, or to live the lives of the wicked and foolish. In verse 15, it does not praise life, but simply teaches the importance of a balanced life. How should we evaluate the strange anomaly in this world where the righteous perish while being righteous and the wicked live a long life? First, how can an evangelist learn to live a balanced life, knowing that good and evil cannot be distinguished by worldly standards? It is good to hold on to this and not to let go of the other, for he who fears God will escape from all things (18) indicates that a heart of fear can avoid extremes, and a heart that fears God is a God-centered life. In Psalm 73, when defining blessing, it is said to be “close to God” (25). We do not say that it is a blessing to win the competition where the enemy prospers, lives well, eats well, is healthy, and tastes good, but we live better, are healthier, and drive a better car. Rather, we claim that “Immanuel” is a blessing. So the poet confessed that the only person I adore in heaven and earth is the Lord. I will have only the Lord in heaven, and I will have only the Lord as the object of my desire on earth. The object of possession and desire is the Lord. This is the normal life of a Christian. It's called balance. It is not the amount of time or the amount of work. Balance comes only when you center on God. It seems that one of the reasons why we Christians fail is because we misunderstand this balance. Unless the consciousness of living thoroughly before God is revealed through the Holy Spirit, we easily lose this balance. Therefore, we need at least the training to give priority to the Lord over time, work, and money. second. You shouldn't be judged by people's evaluations. Also, one more thing we must remember to

live a balanced life is the confidence to not be judged by other people's evaluations. In verses 21-24, it says, "Do not set your heart on listening to what anyone says." Your servant is cursing you. Since you are prone to cursing others, being judged by others breaks this balance. Job knew this well and did not listen to the devil's subtle words that blocked the way to the cross. The wave of humanism disrupted this center, but today's New Age movement advocates the promotion of spiritual power. The ideological roots of this can be seen in Gnosticism, which views men as equal to matter and evil and women as equals to spirit and good, ultimately attacking the view of the Bible as the key to salvation. Changing a pronoun to a plural or personal pronoun is common (e.g., see NRSV in John 15:5 and Revelation 3:20). This is not a singular thing, but evidence of a person's attempt to promote unbiblical authority. Those who go up and down fall into self-deception and move on to perfectionism and bigger problems. Therefore, we must like God's evaluation, and the goal of life on this earth is not "Glory." Cross)". This was the true image of the balanced saints who went before. Today we thought about the importance of a balanced life. A God-centered life makes us blessed. For this work, we put in effort and sacrifice. We must like this because it makes us the most blessed. I hope that this kind of grace will be with us.

곤고한 날에 생각하라(전7:1-14) 2001. 2. 4.

형통주의, 성공주의로 복음이 회석되어 가는 오늘날.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 가르침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부자 됨이 하나님의 뜻이다'는 말을 좋아하는 현대 그림 스도인과는 달리. 우리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머리돌 곳 이 없다는 말씀을 더 좋아하셨다. 또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바울의 교훈과 정반대의 길을 걷는 시대임을 느낀다. 전도자도 고가 형통보다 더 나은 것으로 평가하면서, 우리로, 곤고한 날을 경멸하지 말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날에 숨겨 놓은 축복을 찾으라고 권한다. 명예가 기쁨보다 (1) 초상집이 잔치집 보다(2.4), 슬픔이 웃음보다(3), 끝이 시작보다 더 중요하다(8) 고 한다. 오늘이 옛날보다 더 낮고(10) 지혜가 돈보다 더 낮다(11-12) 한다. 그래서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한다. 이유인즉, 바로 그 곤고한 때가 지혜를 배우고; 진리 를 배우고 경외를 배우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자기 분수를 알고 거기에 맞는 인생을 사는 지혜를 배우게 하시려고 형통과 곤고를 병행케 하심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곤고한 날, 고통의 날이 진정한 형통의 길을 배우는 가치 있는 순간이 될 수 있는 것 이다. 어째서 곤고한 날은 가치가 있는가? 첫째, 곤고한 날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타락한 인생은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려 하지 않는다. 무신론 사상으로 사는 인생에게 "나쁜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 12절에 지혜와 지식의 피난처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다. 이 경외가 고난의 장 소에서 얻어지는 축복이란 것이다. 정말 인생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부터 소망이 시작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가장 가까이 오셨다. 자기주의에 치우쳐
 우상을 만드는 인생에게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길을 보여주기에
 귀한 것이다.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자꾸 목상하고,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시기 바 랐다. 오직 새역사는 하나님을 알 때
 시작되기 때문이다.. 둘째. 곤고한 날에 자기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곤고한 (나쁜 때)때에 자기의 비참함을 깨닫는다. 이것이
 제대로 되 는 것이다. 그래서 노련한 스승으로서 전도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여러 비교를 통 해서 그 가치를 주장한다. 1) 명예가
 기름보다 낫다 한다. 에서는 이 일에 실패함으 로 망령된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란 명예를 재상 것과 바꾸지 말아야한다. 2) 초상집이
 잔치집보다 낫다. 그리스도인이 낮은데 마음을 둘때 거기서 지혜를
 얻는다. 가나의 혼인잔치보다 나사로의 초상집에서 주님은 더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 마리아 와 마르다의 믿음을 성장시키셨고 그리스도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드러내셨다. 상징으로 보여주신 것이
 실제로 드러난 것이다.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 자체임을 드 러내시는
 영적 체험은 초상집에서 일어났다. 3) 옛날보다 현재가 더 낫다는 진리도
 알고 예배(worship)는 것은 더 중요하다. 문화 사역이란 과제가
 그리스도인에게 있 지만, 이것은 초상집에서 지혜를 배운 사람들의
 분뿜이지, 영지"가 없는 사람은 도 리어 타협하고. 교회에 이상한 물결을
 가져와 순수한 복음을 희석시킨다. 그래서 우 리는 고난의 날에
 그리스도의 빛 아래 자기 실상을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자. 세째, 곤고한
 날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아는 자는 곤고한
 날에 기도를 배운다. 물에 빠진 자가 지 푸라기도 붙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은 기도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 고난은 그 사람에게 고마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곤고한 날에 기도의 골방으로 가야한다. 이 고난은 우리를 깨우고, 변덕 많은 우리의 욕구에 정함이 있게 한다. (Calvin) 다윗의 시편을 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본다. 69편에 나온 다윗은 큰 어려움을 당하 자로 나온다. 자기영혼에 몰하는 시편이 있었다. 고독과 비탄에 싸여있었다. 거기 서 그는 무엇을 했는가? 그는 부르짖음으로 기도를 배웠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웠다. 찬미하기로 결심하는 믿음으로서 다윗은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정말 곤고한 날은 저주가 아니다. 그것은 축복의 샘을 발견하는 위대한 기회인 것이다. 전도자를 통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자. 곤고한 날에 우리는 먼저 하 나님을 생각하고 자기의 비참함을 바라보고 적극적인 기도자가 되자. 이것이 형통의 정로이며 곤고한 날에 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다.

Think about it in difficult days (Ecclesiastes 7:1-14) 2001. 2.4.

Today, the gospel is being interpreted as prosperism and successism.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teachings of Jesus and the teachings of the apostles. Unlike the modern Grimm Christians who like to say 'It is God's will to be rich'. Our Lord preferred to say that foxes have dens and birds of the air have nests, but they have nowhere to lay their heads. I also feel that we are living in an age where we are taking a path that is completely opposite to Paul's teaching that 'the love of money is the root of all evil.' The evangelist also evaluates difficult days as being better than prosperity and encourages us not to despise difficult days, but to honor them and look for the blessings hidden in them. It is said that a house of mourning is more important than oil (1), a house of mourning is more important than a house of parties (2.4), sadness is

more important than laughter (3), and the end is more important than the beginning (8). Today is better than the past (10) and wisdom is better than money (11-12). So, on difficult days, I tell you to think. The reason is that it is precisely in difficult times that one learns wisdom; This is because it is an opportunity to learn the truth and learn reverence. It is God's will to allow us to experience both prosperity and hardship in order to help us learn the wisdom to know our purpose and live a life that fits our purpose. That is why difficult days and days of pain can become valuable moments to learn the path to true prosperity. Why are hard days worth it? First, because you can think of God on difficult days. The nature of fallen life does not want to believe in the existence of God. For those living with atheist ideology, “when bad things happen” becomes an important opportunity to think about God. In verse 12, what is the refuge of wisdom and knowledge? It is the fear of God. This reverence is a blessing obtained in a place of suffering. Hope truly begins in life when we think of God. So God came closest to revealing Himself. For a life that is focused on self-centeredness and creates idols, suffering is precious because it shows the way to know God. When you think you are going through suffering, keep meditating on God and fill your heart with God. Because new history only begins when we know God.. Second. This is because you can know yourself right away on difficult days. Also, we realize our misery in difficult (bad) times. This is what works. Therefore, as a seasoned teacher, the evangelist is moved by the Holy Spirit and asserts its value through various comparisons. 1) They say fame is better than oil. Esau failed to do this and became a ruined person. As a Christian, you should not exchange your honor for something new. 2) A house of mourning is better than a house of banquets. When a Christian sets his heart on low things, he

gains wisdom there. The Lord accomplished a greater work at the house of mourning for Lazarus than at the wedding feast in Cana. He grew the faith of Mary and Martha and revealed that Christ Himself is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What was shown as a symbol was revealed as reality. The spiritual experience of revealing that it is life itself that saves the dead occurred in the house of mourners. 3) It is more important to know the truth that the present is better than the past and to worship. The task of cultural ministry lies with Christians, but this is the responsibility of those who have learned wisdom from the Book of Sorrows. Those who do not have the "gnosis" compromise on the contrary. They bring strange waves to the church and dilute the pure gospel. So we do not have to endure the suffering. Third, let us use these days as an opportunity to see our reality under the light of Christ. Those who know God and themselves can learn to pray in difficult days. In that sense, the suffering is something that the person is thankful for, and so we must go to the closet of prayer and adjust to our fickle desires. (Calvin) We see this in Psalm 69, where he was suffering from great hardships and sorrow. What did he do? He learned to pray and by his decision to praise, David received amazing grace. It was not a great opportunity to find a source of blessing. Let us listen carefully to the words of our Lord through the evangelist. In difficult days, let us think of God first, look at our own misery, and become active prayers. This is the path to prosperity and thinking the right thoughts.

신지식과 인간지식(전6:10-12) 2001.2.7 수

전도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할 때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알고 누릴 수 있음 을 가르친다. 6절에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 침내 다 한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는 것은 바로 심령의 은혜위주의 생활로 사 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임을 가리키는 말이다. (12절) 첫째, 심령의 즐거움이 얼마나 귀한가? 먼저. 전도자는 부귀보다 더 귀한 것이 심령의 낙이라 했다. 1-2절에 보면, 해 아 래서 다른 폐단(evil)을 하나 보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재물, 부요, 존귀를 선물로 받 고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함을 가리킨다. 종전에도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게 지키는 것과 재난으로 재물을 잃고 아들을 낳았지만 돌볼 수 없는 궁핍상태를 보았을 때 이것을 폐단이라 했다.(5:13.16) 전자는 풍부와 궁핍에 치우쳐서 죄를 범하는 상 태라면 후자는 마음의 소원대로 재물과 명예를 받았지만 심령이 둔하여 그 선물을 누 리지 못한 상태를 가리킨다. 이런 경우가 성경에 많이 나온다. (시73:7) (욥21:7-13) 반면, 우리는 부귀를 가졌지만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을 또한 본다. 요10장에 나오 는 목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양이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부요를 본다. 무엇을 누린다고 했는가? 양은 구원을 누리며(9)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10) 절대보호를 누린다. 38- 39)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현재라는 지금 그 시간에 이 풍성한 선물을 얼마나 누리는가? 이세벨 처럼 주어진 지위와 존귀로 이웃을 강탈하고 선지자들을 죽 이는 불행에 떨어지지 말고 심령의 낙을 얻기위해 살아가자. 둘째로 장수보다 더 귀한 것이 심령의 즐거움이라 했다. 3-6절에 보면 전도자는 장수보다 심령의 낙이 더 귀하다고 말한다. 3절에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 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였노니라 했고, 6절에 이 천년을 살아도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한다. 우리는 평강을 누리는
 장수를 구해야 한다. 그 평강은 심령의 평강으로 하나님나라의 평강이다.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에녹이 삼 백년동안 자녀를
 낳았지만 이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부귀보다 더
 귀하고, 장수보다 더 귀한 심령의 평강을 구하자. 교회생활에 있어서
 이런 평강을 소유하며 섬겨야한다. 예수님처럼 풍랑 중에서도 주무실 수
 있는 평 강을 누리는 자가 되자. 둘째. 어떻게 심령의 낙을 누리는가?
 부귀보다 귀하고 장수보다 더 귀한 심령의 평강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데서 시작된 다. 전도서를 읽다보면 우리는 마치 실존주의자들의
 글을 읽는 것 같다. (7-9) 사람의 수고는 다 입을 위함이니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 이 무엇이나?, 인생 앞에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는 무엇이 유익한고?, 눈으로 보 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낫다는 말은 아주 현실적이며, 매순간 순간의 헌신된
 삶만 이 의미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전도자는 실존주의자는 아니고
 신본주의자였다. 10-12절에 자기 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룰 자가
 누구냐고 했다. 그림자 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후에 해야해서 무슨 일이 있을 것 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심령의 영원 한 낙을
 누리는 삶을 보여준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죽음에 관해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의 하시는 일이 인간의 상상을 넘는 일임을

보며, 주님 아는 것이 모든 일에 우선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본다. 사랑하는 자에게도 고난은 따랐다. 주님은 고난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이다. 실패의 그 장소와 그 순간이 바로 주님 일하시는 기회라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며 나를 알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런 앞에서 우리는 심령의 낙이 오직 하나님과의 교통인 것을 배우는 것이다. 그리 스도인은 액기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데서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모임 때마다 은혜 충만하여 심령의 낙을 누리는 사람임을 확시하자.

The Knowledge of God and the knowledge of man (Ecclesiastes 6:10-12)

Wednesday, February 7, 2001

The evangelist teaches that humans can know and enjoy true happiness through the knowledge of God. Verse 6 says, “Even if he lives twice as long as a thousand years, if he does not enjoy pleasure, will he not all return to one place?” This means that living a life centered on spiritual grace is the most blessed thing. (Verse 12) First, how precious is the joy of the soul? first. The evangelist said that the joy of the soul is more precious than wealth. In verses 1-2, we see another evil under the sun, and it indicates that even though we received the wealth, wealth, and honor that God gave us as a gift, we were unable to enjoy them. In the past, when owners kept their wealth to their own detriment, and when they lost their wealth due to a disaster and gave birth to a son who was in poverty and could not take care of him, this was called an evil. (5:13.16) The former is a sin committed by being biased towards abundance and poverty. The latter refers to a state in which one receives wealth and fame

according to one's heart's desire, but is unable to enjoy the gifts due to a dull spirit. There are many cases like this in the Bible. (Psalm 73:7) (Job 21:7-13)

On the other hand, we also see people who have wealth but enjoy it. In the parable of the shepherd in John 10, we see the Lord's riches that the sheep can enjoy. What did you say you enjoyed? Sheep enjoy salvation (9), abundant life (10), and absolute protection. 38- 39) Whatever we have, how much do we enjoy this rich gift in the present moment? Instead of falling into the misfortune of robbing our neighbors and killing prophets with the status and honor we were given like Jezebel, let us live to gain the joy of our hearts.

Second, it is said that the joy of the soul is more precious than longevity. In verses 3-6, the evangelist says that the joy of the soul is more precious than a long life. Verse 3 says, "Even if she gives birth to 100 children and lives long and has many days, if her soul does not have enough pleasure and her body cannot be buried, then I said, 'Better is one who is aborted than another.'" Verse 6, Even if you live for 2,000 years, It is said that there is no meaning if we do not enjoy peace of mind, and that peace is the peace of the kingdom of God for three hundred years. Even though we gave birth to children, we are those who enjoy this peace. So, let us seek peace of spirit, which is more precious than wealth and longevity. We must have this peace and serve it in the midst of the storm like Jesus. Let us become people who enjoy peace.

Second, how do we enjoy spiritual happiness? When we read the book of Ecclesiastes, we feel like we are reading the writings of existentialists. (7-9) All a person's toil is for the sake of clothing, and his appetite is not satisfied. What is better for a wise man than a fool?, What is the benefit of a poor person who knows how to act in the face of life?, Seeing with the eyes. It is very realistic to say that something is better than the imagination of the soul,

and it seems that only a dedicated life at every moment is meaningful. However, the evangelist was not an existentialist, but a theistic person who said in verses 10-12, "Who can compete with someone who is stronger than him?" John shows that knowing the Almighty God is a life of eternal joy for the soul. Who knows what will happen to a person during his life as a shadow? In the Lord's words regarding the death of Lazarus in chapter 11 of the Gospel, we see that the Lord's work is beyond human imagination, and we also see here that knowing the Lord must come first in all things, even for those who love. It is said that the Lord will be glorified through suffering, and that the place and moment of failure is an opportunity for the Lord to work. When you truly know God, you know yourself, and when you know yourself, you know God. In the face of this, we learn that the joy of the soul is only communication with God. Christians are people who live a life of essence, and this comes from knowing God and knowing myself. Whenever we gather, let us make sure that we are people who are filled with grace and enjoy the joy of our hearts.

그리스도인의 물질관 (전5:8-20) 2001.1.31 수

해 아래의 모든 것이 헛되나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안에서 바른 물질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여기서 전도자는 재물을 해롭게 저축하는 수전논 와 재물을 바로 물려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어리석음을 경고하고있다. 오늘날 물질과 관련된 이런 폐단을 보는 우리는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 러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I.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인정해야한다. (19) "물질이 신이다"는 막스주의는 자유 진영에 사는 현대인들의 사고 속에 여전히 자리잡혀있다. 아이들에게도 장래의 희망을 물어보면 결국 돈 버는 것에 초점을 맞 주는 일색이다. 우리도 그런 계획을 가지되 그 이상을 것을 추구해야한다. 물질이 있어 교만하거나 물질이 없어 비굴한 사람이 아니라 물질 자체를 하나님의 선물로 보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오늘 본문에도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한 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19) 일상생활의 저축된 재물이나 큰 부요나 수고로 얻은 샐러리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다. 정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두 부자였는데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이 다. 이런 사상을 가진 자는 물질을 만족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 10절도,"은을 사랑 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 것도 헛되도다"고 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배워야한다. 역사상에 물질로 만족하려는 자는 다 망했고 그 물질이 인생을 망치게 했다. 그래서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다. 우리는 현재의 나의 음식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분 몫인 줄 알고 감사 해야된다. 공수래
 공수거한 인생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이 있다면 텀으로 주는 은혜 인줄
 알고 감격하며 주어진 시간에 가장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한다.
 어 리석은 부자처럼 넘치는 소출이 하나님의 은혜인줄 모르고 자기
 힘으로 된 줄 알려 아 자기 영혼까지도 물질로 해결해 보려는 유혹에
 빠지지 말자."돈이면 다 된다." 는 사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금물이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지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지니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소서" 라고 읊처럼 확신하자. II. 물질을 바로
 사용하는 지혜를 배워야한다. 이런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철저한 생각은 자연히 잘 사용할 줄도 알게 한다. 어떻게 사용할까? 1)
 자기를 위해 저축하지 말아야한다. (1) 전도자는 "내 가 해 아래서 큰
 폐단 되는 것을 보았는데 물질을 해되게 지키는 것(13)이라고 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되고, 흠어 나누어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잠언 이 한다: 개아의 회개 나 바로 주겠다 회개이다. 가 앓하면 누가 주
 터진다. 인색한 사람이 후한 사람으로, 수전노가 가난한 자를 도와줄
 마음을 갖는 다. 2) 요동하는 물질을 신뢰하지 말아야한다. 재난으로
 물질을 잃고 출생 한 아이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것을 지적했다."그
 물질이 재난으로 인하여 폐하 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
 것도 없느니라" 물질은 날개가 달렸듯이 날아간다. 우리 물질도 이렇게
 날아가기 때문에 마음을 거기에 두어선 안된다. 인 생은 타락한 이래,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치하는 습관이 생겼다. 이것이 우상이 다.
 우상주의자들은 물질주의자들이다. 물질을 하나님처럼 신뢰한다.

광야에서 만 나를 내려주심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배우게 하려는 것인데 그 들은 물질을 따라갔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그를 물질의 왕으로 삼으려는 어 리석음을 보면 언제나 오늘날이나 사람들은 요동하는 물질을 하나님처럼 신뢰하고 있음이 증명된다. 그래서 우리는 3) 물질로 가난한 자를 힘써 도와야 한다. 8절 에 보면, 물질로 빈민을 도우라 했다. 빈민을 확대함은 하나님이 주목하신다고 했다.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하여 일하는 지혜자가 되어야한다. 주님은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다. 건강 있고, 능력 있고, 재물이 있을 때 주를 위해 살아가기 바란다. 전도자의 물질관은 바로 우리의 것이 되어야한다. 물 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정복하는 자로서 살아가자.

Christian View of Materials (Ecclesiastes 5:8-20) 2001.1.31 Wed

Although everything under the sun is vain, we must still live with a correct view of material things in Christ. Here, the evangelist warns against the foolishness of those who save wealth in a harmful way and those who do not inherit wealth right away. Today, when we see these evils related to materials, we must live with a correct view of materials. So what kind of confidence should we live with? I. We must acknowledge that material things are gifts from God. (19) Marxism, which states that “matter is God,” is still entrenched in the thinking of modern people living in the liberal camp. When you ask children about their hopes for the future, they often end up focusing on making money. We must have such a plan, but pursue something more. Rather than being arrogant because of material possessions or servile because of lack

of material possessions, one must have the confidence to view the material itself as a gift from God. Today's text also says that material goods are "gifts from God. It is a gift from God that God gives anyone wealth and wealth, enabling them to enjoy it and to receive their share and rejoice in their hard work." (19) It is a gift from God that is saved in daily life. Wealth, great wealth, and salary earned through hard work are all gifts from God. Indeed, Abraham, Isaac, and Jacob were all rich, and it was all by God's grace. People with this kind of thinking do not use material things as the basis for satisfaction. Verse 10 also says, "He who loves silver will not be satisfied with silver, and he who loves abundance will not be satisfied with income. This too is vanity." We must learn that our satisfaction comes only from God. In history, anyone who tried to be satisfied with material things was ruined and those materials ruined his life. That's why Paul said, "The love of money is the root of all evil." We must be thankful, knowing that our current food is a portion of God's grace and blessings given to us. If the people who have been collected by the empty air have something to eat and wear, we must give it to them. You must be grateful for the grace given to you and become the person who is used most precious in the given time. Like the foolish rich man, you do not know that the abundance of wealth is the grace of God, but you think that it is your own strength, so you fall into the temptation of trying to solve even your soul with material things. Let us not believe that "money is everything." Let us be confident, like Job, that "it is God who gave, and God takes away." II. We must learn wisdom. The thorough thought that these materials come from God naturally teaches us how to use them well. (1) The evangelist must not save them for himself. I looked at it and it said it was to protect material things from harm (13). Proverbs say that even if you save

excessively, you will become poor, and even if you spread and share, you will become rich: It is repentance that I will give you as white as I am. If you don't go, someone will explode. A stingy person becomes a generous person, and a miser has the heart to help the poor. 2) Do not trust fluctuating substances. He pointed out that material things are lost in a disaster and cannot meet the needs of a born child. "Because of the disaster, material things are destroyed. Although they have given birth to a son, there is nothing in their hands." Material things fly as if they have wings. Since our materials also fly away like this, we must not place our minds there. Since the fall of man, a habit has developed of replacing God with something else. This is an idol. Idolists are materialists. Trust material things like God. God sent me down in the wilderness so that they could learn to live by God and his word, but they followed material things. When they see the foolishness of trying to make him the king of material things through the miracle of five loaves and two fish, people are shaken yesterday and today. It is proven that we trust material things like God. So, in verse 8, we must do our best to help the poor with material things. It is said that God takes notice of mistreating the poor. The Lord told us not to store up treasures on earth, but to store up treasures in heaven. The evangelist's view of material things is what we should live for when we have health, power, and wealth. Let us live as conquerors of material things, not as slaves to them.

화목의 위력 (전4:7-12)

오늘 본문에는 홀로됨이 얼마나 헛된지를 그림을 그리듯이 말해준다. 8절에는 자 식도 형제도 없는 사람이 심령의 낙을 금하며 열심히 저축한 돈이 엉뚱한 곳에 쓰여진 것을 보고 무익한 수고라는 평가를 내렸다. 이 세상에서 "화목"이 얼마나 큰 힘인가를 가르쳐준다. 이것은 비단 전도자의 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그 자체가 화목의 모임이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성령 안에서 하나이 되는 삶이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 것"(요17: 11) 같은 모임을 계획하셨다. 전도자는 하나님 백성의 생활에 있어서 화목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는가? 첫째, 더 좋은 상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고 했다. 더 좋은 상을 받을 수 있기에 화목이 좋다는 것이다. 부부가 서로 화목을 이루어 주님을 섬겨야 할 이유는 "생명의 유업을 함께 나눌 자이기 때 문이다. (벧전5:7) 바울도 감독과 집사의 아내들도 남편 못지 않는 높은 경건의 수준을 이룰 것을 말했다. (딤후3:11) 특히 두 세 사람이 협력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을 움직이는 응답을 받으리라고 약속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간구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하나님도 배워야하지만 우리 의 하나님을 배워 더 좋은 상급을 얻을 수 있어야한다.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장차 온 세상은 성전화 되어간다. 첫 창조 때에 "심히 좋았더라(very good)"고 하신 주님은 성전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가장 좋았더라(best good)"고 하실 그 날을 기다리신다. 이 완성된 교회는 14만 4천의 택한

자들이 완전 화목함으로 얻는 최상의 상급일 것이다. 금년에 그리스도안의 협력을 배워 더 좋은 상을 얻기 바란다. 둘째, 서로 세워주기 때문이다. 화목은 서로 세워주는 것이기에 중요하다. 10-11절에는 서로 세워주는 것이기에 화목과 단결의 중요성을 두 예로 설명했다. 1) 넘어질 때 세워준다. 우리의 생활에는 넘어질 때가 많기에 화목이 참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지 주님은 둘씩 전도하게 하셨다. 화목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이렇게 서로 세워주는 일이 절대 필요하다. 2) 둘이 누우면 서로 따뜻하게 되는 예는 화목의 중요성을 또다시 보여준다. 선다성이 티벳 고원을 걸어 죽어 가는 사람을 같이 엮고 넘어자기도 살고 그 사람도 살았다는, 이야기는 너무 잘 알려졌다. 주운 겨울 텐트 속에서 둘이 서로 부둥켜안아야 살아나듯이 그리스도인은 화목을 이름으로서 서로 살ान다. 신앙의 장작 모닥불은 서로 붙어있어야 활활 타오르도록 되어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우는 일(덕)이 많아야 한다. 교훈도 중요하지만 교훈을 적용 한 "덕"이 많이 필요하다. 이론이 필요하지만 실체가 더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지만 말씀을 적용한 기도가 절대 필요하다. 은혜와 진리는 언제나 공존하기 때문이다. 서로 세워주는 것이 교회의 큰 업무이기에 우리는 물처럼 스며들어가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이 지배하는 물과 같은 은혜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른다. 금년에 우리는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세우는 사람이 되자. 선조사한 한, 아이 을 나에서 있기에 끓인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든,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라고 했다. 물려오는 공격을 능히 당하는 것이 바로 화목의 힘이라고 한다. 맹수의 공격 앞에 한 마리의 황소는 쉽게

물리지만 여러 마리가 같이 진을 칠 때는 공격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안에서의 하나이 된 교회는 맹렬 하게 몰려오는 악의 공격을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이 무너지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의 광야생활에서도 원망, 불평이 마침내는 실패하게 했지만
화목의 영으로 가득 찬 초대 교회의 생활은 어떤 최대의 원수의 공격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라는 약속을 내 것으로 삼자.

The power of reconciliation (Ecclesiastes 4:7-12)

Today's text tells us, as if drawing a picture, how futile it is to be alone. In verse 8, a person who has no children or brothers refrains from joy in his heart and sees that the money he worked hard to save is being spent in the wrong place, and he evaluates it as a useless effort. It teaches us how great a power “reconciliation” is in this world. This is not just the words of an evangelist, but also the teachings of our Lord. The church that the Lord establishes is itself a gathering of reconciliation. A life worthy of the Gospel is one in the Holy Spirit. First, why does the evangelist say that harmony is so important in the lives of God's people? Verse 9 says, “Two people are better than one, because they will receive a good reward for their hard work.” Harmony is good because you can receive better rewards. The reason why married couples must serve the Lord in harmony is because “they share in the inheritance of life.” (1 Peter 5:7) Paul and the wives of bishops and deacons must achieve a high level of godliness that is equal to that of their husbands. (1 Timothy 3:11) In particular, God promised that if two or three people cooperate and pray in

the name of the Lord, they will receive answers that will move heaven. We must learn from God, but we must be able to receive better rewards by learning about our God, and in the future, the whole world will become a temple. This completed church is waiting for the day when God will look at the new heaven and new earth and say, "It is the best." This will be the highest reward that the 144,000 chosen ones receive through complete reconciliation. I hope that this year we will learn about cooperation according to the Christian pattern and achieve better results. Second, the importance of harmony and unity is given in verses 10-11 because it builds each other up. 1) We build each other up when we fall. There are many times when we fall, so we really need reconciliation, so the Lord has us preaching the gospel of reconciliation in this way. 2) The example of two people becoming warm together when they lie down shows once again the importance of harmony, and the story of how Sundarsing crossed the Tibel Plateau and overthrew a person who was freezing to death so that he and the other person could survive is well known. Just as two people survive by hugging each other in the winter tent, Christians must have a bonfire of faith burning brightly in the name of harmony. Therefore, the church must have many teachings. It is important, but it requires a lot of "virtue" in applying the lessons. Theory is necessary, but practice is more important. The Word is important, but prayer that applies the Word is absolutely necessary. This is because grace and truth always coexist. Building one another up is the church's biggest task, so we must seep in like water and help. You don't know how much we need grace like water, dominated by a poor heart, a mourning heart, and a gentle heart. This year, let us not be people who tear down, but let us be people who build up. As long as the ancestors lived, the child was boiled as soon as he was born.

“If one person can defeat it, two people can overcome it.” It is said that being able to withstand attacks coming from a crowd is the power of harmony. A single bull can easily be bitten by a wild beast, but several bulls can fight together. Just as it cannot be attacked when it is attacked, the church that has become one in Christ can definitely overcome the fierce attacks of evil, even if the powers of Hades cannot overcome them if peace with God and with neighbors is destroyed. Even in Israel's wilderness life, resentment and complaints ultimately led to their failure, but the life of the early church, filled with the spirit of reconciliation, did not give in to the attacks of even the greatest enemy. "Blessed are the peacemakers." Let us make the promise our own: “You will be called the Son of God.”

성령의 환상을 보리라 (행2:16-21) 2001.12.31 송구영신예배

오순절 사건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증거대로 2002년, 365일이 성령의 환상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 시대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질 그 환상이란 어떤 것입니까? 첫째 그것은 성령받은 그리스도인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환상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의 꿈과 성령의 환상이 있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17절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모든 육체(all people)"란 세상 모든 사람을 가리키지 않고 택한 자기 백성들만을 가리킵니다.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 이지만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된 모든 자들을 가리킵니다. "내 남종과 여종들"(19)이라는 말이 이를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지 않은 자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도 없고 이 환상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꿈, 예언, 환상은(17하-18) 성경 기록되기 전의 일반적인 계시의 도구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꿈의 책이고, 환상의 책이고, 예언의 책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령으로 인하여 성경이, 우리 개인에게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꿈을 꾸어야하고, 성경 속에서 환상을 보아야하고, 성경, 속에서 나의 갈 길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영적 꿈이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령 받은 당신은 이런 환상을 가져야만 합니다. 둘째, 그것은 말세에 폭포수처럼 쏟아 부으시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성령의 환상은 말세에 교회에 부으시는 은혜를 가리킵니다. 요엘의 예언에

"후일"은 신약시대를 가리킵니다. 말세는 그리스도 오심으로 시작된
 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심판을 상징하는 피와 불과 연기의 징조가
 보이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최후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때의 은혜는 넘치는 은혜입니다.
 이사야의 예언 대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강물같이 흐르는 시대이며
 이방이 주께로 돌아 오는 시대이며 하나님이 절대능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천군들이 나타나 어린양을 통한 영광과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보좌에 계신 분을 향하여 면류관을
 던지며 구속의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없 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에
 성령 부어짐으로 이루어지는 "풍성한 구원의 환상"입니다. 세째, 이것은
 구원사역을 위해 주어진 환상입니다. 21절에서 베드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로 마칩니다. "주 께서
 부르시는 그들이 회개하면 죄 사함과 아울러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38-39)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회년을 선포하셨습니다.(눅4:18-19)
 그러므 로 교회는 영혼 구령의 환상으로 설레어 있어야합니다.
 여러분의 금년 향 해에 성령의 비존이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You will see a vision of the Holy Spirit (Acts 2:16-21) 2001.12.31 Songgu
 Youngsin Service

As Apostle Peter testified about the Pentecost incident, I hope that the year
 2002 will be a church filled with the vision of the Holy Spirit for 365 days.
 This is not just for that era, but it is the vision promised to me and you. What
 is the vision we will have? First, it is a vision that any Christian who has

received the Holy Spirit can have. It is not special to have dreams of the Holy Spirit and visions of the Holy Spirit, but it is natural. This is because he promised, "I will pour out the Spirit on all flesh." Here, "all people" does not refer to all people in the world, but only to his chosen people. As many people as he calls, they are recorded in the palm of God's hand. The phrase "my male and female servants" (19) refers to this. Therefore, no one who has not received the Holy Spirit can say that Christ is Lord, nor can he have this vision (17). Ha-18) It was a general tool of revelation before the Bible was written. This is why the Bible is a book of dreams, a book of visions, and what is more surprising is that it is a book of prophecy. It is true that it bears more fruit for the individual. That is why we must dream in the Bible, see visions in the Bible, and say that we have received the Holy Spirit in the Bible, but do not have a spiritual dream. You may not be a Christian. Second, the vision of the Holy Spirit pouring out like a waterfall in the last days refers to the grace poured out on the church in the last days. In Joel's prophecy, "the last days" refers to the New Testament era, which began with the coming of Christ. It is said to be a time when signs of blood, fire, and smoke, symbolizing judgment, are visible. This is the final era when salvation and judgment take place. Therefore, the grace we live in at this time is an overflowing grace. As Isaiah prophesied, this is an era in which the knowledge of Jehovah flows like a river, an era in which the Gentiles return to the Lord, and an era in which God achieves salvation with absolute power. So the heavenly hosts appeared and had no choice but to praise the glory and grace through the Lamb, throw their crowns toward the One on the throne, and sing a song of redemption. This is the "rich vision of salvation" achieved through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in the last days. Third, this is a

vision given for the work of salvation. In verse 21, Peter ends with the words,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If those whom the Lord calls repent, He will give them the forgiveness of their sins and the gift of the Holy Spirit. (38-39) In that sense, Jesus also proclaimed the Jubilee. (Luke 4:18-19) Therefore, the church is the vision of saving souls. I hope that your voyage this year will be filled with the vision of the Holy Spirit.

목자들이 바라본 복락원 (눅2:8-20) 2001.12.24. (월) 성탄이브

첫 번 크리스마스 이브에서 목자들이 경험한 은혜는 에덴동산의 회복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는 일이기 때문이며, 천군 천사의 찬양에는 첫 에덴동산 때에 일어난 내용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 입니다. 베들레헴 들판, 소외된 목자들에게 임한 탄생 계시는 에덴회복이 어떤 것으로 나타났나요? 첫째, 교제의 회복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주의 탄생 사건을 중심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은 교제의 회복을 뜻합니다. 13절에 "홀연히 다 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라는 말이나, 15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라는 말을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 장소로 지음받은 에덴에서의 교제가 회복되었음을 보입니다. 에스겔 23:13절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 황옥과 홍 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음이며 네가 지음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고 한 대로 아직은 서곡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에덴의 교제가 완전히 회복됨을 보이는 것입니다.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는 예언을 미리 보 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귀를 가진 에덴동산 안에서의 교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요일1:3) 둘째, 영광의 회복으로 나타났습니다. 본문의 천사찬송의 내용 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Glory to God)"란 가사는 잃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그 리스도 만이 일곱인(구속상징)을 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에 구속 할 자가 없어 탄식하던 요한이 안심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속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만이 구속을 이루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에 텐 회복의 증거입니다. 에텐은 하나님에게 집중하여 그에게서 주어지는 은혜를 누린 곳이며 에텐의 완성인 천 당에는 24장로가 영광의 면류관을 던지며 찬양하듯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에 게만 돌아가는 곳입니다. (계5:9-12) 성탄절기에 우리는 이 땅에 떨어진 하나님 의 영광을 회복해야 합니다.(고전10:31) 세째, 평화가 회복 되었습니다. 에텐의 평강이 회복되었음을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 화로다"는 말씀이 증거합니다. 범죄하기전 인간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심판(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창3;8절에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는 사이렌소리와 같은 심판의 소리이기에 아담과 이브는 두려워 숨었습니다. 평강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이 두려움을 종식시키고 자기백성을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가 오심으로 잃은 에텐의 평강이 회복된 것입니다. 은혜가 있었기에 평화가 온 것입니다. NIV 역에는 은혜(favor)가 머 무는 곳에 평화(peace)가 있는 것으로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평강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한 씨앗 속에 모든 가능성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탄생소식 속에서 우리는 교제와 영광과 평강이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어야하고 그 감격 속에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Paradise as seen by the shepherds (Luke 2:8-20) 2001.12.24. (Monday)
Christmas Eve

The grace experienced by the shepherds on the first Christmas Eve announced the restoration of the Garden of Eden. This is because Christ, the second Adam, becomes a human being, and because the praise of the angels reflects exactly what happened in the first Garden of Eden. What did the revelation of birth that came to the neglected shepherds in the fields of Bethlehem reveal the Blessings of Eden? First, it appeared as a blessing in fellowship. Centering on the birth of the Savior, the appearance of angels ascending and descending symbolizes the restoration of fellowship. Verse 13 says, “Suddenly all the heavenly host was with the angel, praising God,” and verse 15 says, “The heavenly beings departed and ascended to heaven,” indicating that in Eden, which was created as a place for fellowship with God, It appears that their fellowship has been restored. Ezekiel 23:13 “For I was in Eden, the garden of God, decked with every kind of precious stone, with sardines, with yellow stones, with diamonds, with topaz, with red onyxes, with amaranths, with sapphires, with aquamarines, with rubies, and with gold. As it is said, “tambourine and harpsichord were prepared for you on the day you were received,” it is still only a prelude, but it shows that the fellowship of Eden has been completely restored through Christ. He foretold the prophecy, “You will see angels ascending and descending on the Son of Man.” So, we are living a life of fellowship in the Garden of Eden where we have fellowship with God in the Holy Spirit. (1 John 1:3) Second, it appeared in the restoration of glory. The lyrics of the angelic hymn in the text, "Glory to God in the highest," refer to the restoration of God's lost glory. Why is the birth of Christ a glory to God? Only Christ has seven This is because John, who was

sighing because there was no one in heaven and on earth to redeem him, was relieved because he knew that only Christ could achieve redemption. God received glory. This is evidence of the restoration of Eden. Eden is a place where people focus on God and enjoy the grace given from Him, and in the heavenly temple, which is the completion of Eden, all the people praise and throw crowns of glory. It is a place where glory goes only to God. (Revelation 5:9-12) During the Christmas season, we must restore the glory of God that fell to this earth. (1 Corinthians 10:31) Third, the peace of Eden has been restored. The words, “Peace on earth among those with whom He is pleased,” testify that God was a God of love before sin, but to fallen mankind, God appeared as a God of judgment (righteousness). In verses 3:8, the sound of God's footsteps walking in the garden was the sound of judgment like a siren, so Adam and Eve were afraid and disappeared, but the coming of Christ put an end to this fear. He came with the meaning of loving you, and peace came because the peace of Eden that was lost was restored. I hope that this kind of peace will be with you. Just as all possibilities are contained in one seed, we must be able to see fellowship, glory, and peace restored in the news of the birth of Christ, and live in that excitement. I'll do it.

[The end of pastor Living Stream Book 5 (2001)]

Soli Deo Gloria